

太白文化

第九輯



太白文化院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대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서 꽃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으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는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 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문화학교 입학식



한문교실 수업광경



장고교실 수업광경



고전무용 수업광경



문화학교 수료식



경로효친수범자 표창식

차 례

■ 지역문화선언		3
■ 주요행사화보		4
■ 발간사	우성조	12
■ 축사	류승규	14
■ 올해년 향토 문화소식		16
■ 특별법		30
■ 태백의 상징 동·식물	김강산	52
■ 논문 / 낙동강환경과 문화		
• 탄광폐수 오염에 따른 맑은 하천가꾸기와 환경대책	이명진	62
• 햇대(日竿)考	김강산	97
■ 태백의 민속놀이		
• 태백산 12거리굿놀이	김강산	130
■ 특별기고		
• 三陟·東海碑文과 眉叟 逐癘文의 考察	김강산	139
• 太白山 巫俗村 建立 計劃	김강산	163
■ 태백시 남·여 백일장 중등부		
• 낙동강	김영화	175
• 구문소의 깊은물	박 정	176

• 바람	김인식	177
• 낙동강	박정균	178
• 바람	이은실	179
• 구문소	진자영	180
• 전설의 길목에서	정현주	181
• 지금의 모습은 버리고	안미라	183
• 십육세의 반란	유정이	185
■ 태백시 남·여 백일장 고등부		
• 구문소	권창숙	187
• 바람	장곰돌	188
• 낙동강	변지현	189
• 구문소, • 바람, • 낙풍강	김혜선	190
• 구문소	정혜영	191
• 낙하천	유소은	192
• 구문소	조미영	193
• 한 여름날의 새로운 추억	김연화	194
• 구문소에서 기다리다	임현재	197
• '삶의 작은지혜'	김혜란	199
■ 태백문화연혁		201
■ '95년도 태백문화원 사업현황		202
■ 태백문화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		205



太白文化

第九輯

太白文化院

특별법으로 관광태백 길을 열다.



우 성 조
(태백문화원장)

태백이 이제 희생하려나 봅니다.

태백지역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열화와 같이 요구하고 초지일관 관철시킨 보람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 마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어찌 경하할 일이 아니며 피폐일로에 있던 태백경기가 되살아날 불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뭉치면 태백은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서로를 아끼지 않는다면 태백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야말로 태백을 기사희생시킬 묘약이며 태백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손잡고 힘을 합해 고원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해야할 때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뜻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일어설려고 하는 사람에겐 손을 잡아 주고 힘든 수레를 끄는 사람에겐 뒤를 밀어 주어야 우리 태백은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입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주고 반대 의견을 경청하며 안되는 쪽 보다는 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때 태백이 화합하며 단결되어 하나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모든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결속도 중요하지만 외부적 도움없이 관광도시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하고 수백억원이나 들어가는 관광사업에 대기업이 투자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백의 홍보요원이 되고 관광도우미가 되어 산 좋고 물 좋은 태백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작은 힘이지만 모아서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하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벌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기업이 나와야 하고 작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속있는 관광사업을 실행해야 하고 우리 태백의 전통문화를 지켜갈 때 우리는 관광태백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다간 재주 부리는 곰이 되고 말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와 함께 심화되는 태백문화



류 승 규
(국 회 의 원)

태백문화원이 문을 연지 열두해 동안 메마른 우리 고장의 생활을 촉촉하고 윤기 흐르게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이룩한 업적은 그 무엇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1987년 “太白文化”를 창간, 매년 거르지 않고 발간하여 아홉번째에 이르게 된 것은 태백문화원과 전 태백시민의 응집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文化)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하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입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규범, 관습, 풍속, 기술등의 문화유산과 전통은

잘 보존해 오면서 그 시대에 맞게 개량하여 사용하다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생활 자체의 심화 변화를 초래하여 슬기로운 선조들의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태백문화원이 그 맥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태백문화원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한 것은 태백시민 모두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백문화원의 힘만으로 태백의 옛것을 지키고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다같이 힘을 모을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때 우리는 생활은 더욱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태백의 독특한 문화가 심화되어 재정립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 건립되는 태백문화원을 보금자리로 더욱 왕성하고 실속있는 태백인을 위한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갑시다.

「태백문화」9집 발간과 함께 태백시와 태백문화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축하인사에 가름합니다.

을해년(乙亥年)향토 문화소식

■ 제2회 태백산 눈축제 열려

태백산눈축제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회 태백산눈축제가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동안 태백산도립공원과 황지연못 KBS태백방송국에서 펼쳐졌다.

이번 태백산눈축제에는 서울대를 비롯, 전국 17개대학에서 20개팀이 참가하는 눈조각 경연대회와 전국눈사진공모전 눈썰매대회가족눈사람만들기대회 시민노래자랑 눈꽃아가씨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태백산눈축제는 태백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해 지난해 처음 기획한 이벤트행사로 외래 관광객들로부터 큰인기를 모아 지난해보다 더 큰 호응을 받으며 치루어 졌다.

■ 시 동인지 탄전문학 3호 출간

탄전지대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가꾸어가고있는 탄전문화연구소가 시동인지인 탄전문학3호를 출간했다. 박물관속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이번호에는 11명의 시인이 노다지의 꿈을 안고 찾아 왔으나 이제는 박물관에 간직될 운명에 놓여있는 광산촌의

이야기를 다양한 목소리로 풀어내고 있다.

■ 태성전문대학 첫 신입생 모집

3월에 개교하는 태성전문대학이 첫신입생을 모집했다. 모두 9개 학과에 6백80명을 선발하는 태성전문대학 신입생모집은 우선전형 68명, 일반전형4백8명, 주간특별2백4명이다.

■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열려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가 2월 27일 오후7시 KBS태백방송국공개홀에서 주민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황지청년회의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아파쇼나타 관악합주단이 연주했으며 피아노 클라리넷 트럼펫 연주자들의 협연이있었다.

■ 취미·기술교육 학교열어

시근로 청소년복지회관은 3월20일부터 6월 16일까지 3개월코스로 실시되는 95제1기 취미 및 단기 기술교육수강생을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하였다. 신청자격은 청소년과 근로자가족 일반시민등이며 무료로 실시되었다.

■ 태백산 도립공원 석장송 도민속자료로 지정되어

태백산도립공원내 시민광장에 세워져 있는 석장송이 강원도민속자료 제4호로 지정됐다. 도민속자료 제4호로 지정된 석장송 2기는 당초 북쪽으로 1천2백미터가량 떨어진 장송둔지에 있었던 것으로

40년전 망경사로 옮겨다가 지난87년 태백문화원이 현재위치로 옮겨 복원했다. 석장승은 규암으로 천하대장군의 높이는 1백70cm 둘레1백30cm, 지하여장군은 높이 1백55cm 둘레 1백35cm이다. 제작시기는 알 수 없으나 태백산 천제의식과 관련, 수호신상으로 추측되며 얼굴 부분이 다소 마모됐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한편이다.

■ '95년 제1기 문화학교 운영

문화체육부 지정 태백문화학교(학교장 우성조)에서는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3개월간 교육에 들어갔다.

국악교실, 고전무용교실, 사진교실, 종이접기교실, 도자기교실, 한문교실 등 6개반 강좌를 1개반당 30명씩 모집해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무료로 운영했다.

■ 황지3동사무소 책자발간

시 황지3동은 최근 「우리 동사무소,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1쪽짜리 소책자 일천부를 발간해 전입주민과 통, 반장 각급단체 주민들에게 배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청소년 수련실 운영

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놀거리 제공을 위해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한다. 태백시 문곡동에 개설,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실은 공부방과 음악감상실 다목적 강당등이 마련됐으며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한다.

■ 지역발전 애향운동 「태백사랑회」발족

3월 31일 오후2시에 지역발전과 애향운동을 위한 태백사랑회가 발족했다. 태백시 황지1동 태백하이랜드 회의실에서 태백하이랜드 관계자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등 10여명이 참석해 태백사랑회 창립대회를 가졌다. 앞으로 태백사랑회는 지역발전과 애향운동차원에서 거리캠페인과 서명날인 운동 설문조사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차리티앙상블'무료연주회 개최

국내정상급 연주자들이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른 잇단 폐광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탄전지역을 찾아 음악을 선물해주었다. 태백시에 따르면 순수 자선음악단체로 지난 2월4일 창단된 차리티 챔버 앙상블이 탄광촌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4월7일~8일까지 자선음악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 강·바다살리기 캠페인 열려

태백한우리스쿠버클럽에서는 4월초부터 말까지 푸른강 푸른바다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 「고원의 관광 태백」안내 책자 발간

사회단체 태백발전추진위원회가 태백시를 소개하는 관광안내 책자「고원의 관광 태백」을 발간했다. 이 관광안내 책자에는 시관내 주요명소 유적지 등이 컬러사진과 함께 소상하게 실려 있고 교통편 숙식편의시설 여행비용까지 담겨 있다.

■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문학의 밤 열려

청소년의 달을 맞아 탄광촌청소년을위한 문학의밤 행사가 5월 13일 오후에 탄광촌교육환경개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KBS태백 방송국 공개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행사는 민족문화작가회의 시분과위원회와 민예총강원지회가 주최하는 제5회 전국순회 시낭송회와 함께 펼쳐졌다.

■ 제10회 태백산 철쭉제 개최

제10회 태백산철쭉제가 6월3일 오후6시30분 태백산 도립공원내 당골광장에서 류승규의원 각급단체장 행사관계자 주민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백시 산악협회가 주최하고 삼척MBC등이 후원한 이날 태백산 철쭉제행사는 개회식에이어 산재와 캠프화이어 풍물놀이 등이 펼쳐졌다. 6월4일 본행사로 열린 등반대회와 시민노래자랑 산악사진 전시회 등이 주민들의호응에 힘입어 성황리에 끝났다.

■ 태백청소년합창단 주영군돕기 거리공연 열려

백혈병에 걸린 주영군돕기 거리공연이 태백청소년 합창단의 주관으로 6월10일 오전11시 황지연못공원에서 열렸다.

장성국교 4학년인 김주영군은 백혈병에 걸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가족들이 애를 태웠다.

태백청소년합창단이 주영군의 수술비를 마련키 위해 펼쳤던 주영군돕기 거리공연에는 황지고금관5중주단과 장성여고·황지여상중창단과 작은사람들 태백청소년 합창단이 출연했다.

■ 제13회 도합창경연대회에서 태백 혼성합창단 최우수상받아

제13회 도합창경연대회에서 태백시혼성합창단이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6월 9일 오전10시부터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17개 시·군합창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이날 경연대회에서 태백시혼성합창단은 박용근씨 지휘로 지정곡「모란이 피기까지는」 자유곡「가시리」를 불러 최우수상을 받았다.

■ 제10회 태백시남녀백일장및 사생대회개최

태백문화원이 주최한 제10회 백일장및 사생대회가 6월9일 오후3시부터 동점동 소재 구문소앞 광장에서 열렸다.

시관내 중·고등학생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던 이대회는 시부문, 시조부문, 산문부문, 동양화부문, 서양화부문으로 나누어 중·고등부 각각시상했다.

■ 무료컴퓨터교실 운영 하여

태백우체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교실을 운영했다.

6월15일부터 운영한 태백우체국의 컴퓨터교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MS-DOS, 아래한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등 4개과목이다.

■ 「사진으로 보는 태백의 어제와 오늘」발간

태백문화원이 최근 사진으로 보는 「태백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사진집을 펴냈다.

가로26cm, 세로22.5cm 92쪽 분량의 이 사진집은 석공 장성광업소가 개광하기 2년전인 35년 황지국교 개교기념 사진에서부터 최근의 시가지 모습까지 흑백90컷컬러 1백10컷등 모두 2백여컷의 사진이 실려있다.

■ 태백 소개책자 무료배부

시는 고원휴양도시 태백을 소개하는 책자 5천부를 제작해 전국의 여행사와 주요 기관단체에 배부, 컬러 화보 52쪽 10절국배판으로 제작된 안내책자는 시가 1천8백80만원을 들여 태백산의 사계절을 비롯, 한강발원지 검룡소와 낙동강발원지, 구문소등 태백의 명승지를 담고 있다.

■ 제30회 도민체전 열려

태백고원의 청명한 하늘아래 성화가 타오르고 수백마리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가운데 7월 12일 2백만 도민의 최대축제행사가 열렸다.

「함께 힘껏 빛냄」을 대회구호로 내건 제30회 도민체전이 12일부터 15일까지 태백공설운동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치뤄졌다.

■ 태백체전 기념음악회 열려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기념 「인간토레스 남성 합창단」초청연주회가 7월 14일 오후7시30분 KBS태백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

다. 태백시청이 주최하고 음협태백시지부가 주관하는 이번연주회는 이병직씨의 지휘로 성가와 흑인영가 민요 외국인요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했다.

■ 제2회 거리농구대회 열려

태백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제2회 거리농구대회가 7월22일, 23일 이틀동안 황지여중에서 개최됐다.

관내 중고교생 4명이 한팀을 이뤄 참가한 이번 농구대회는 재미있는 팀의 이름만큼 열띤 경기를 벌였다.

이행사에 참가한 전원에게 기념품을 주고 우수팀 준우승 장려팀에게 메달과 부상이 주어졌다.

■ 춘천시향 순회연주 열려

춘천시립합창단 「'95순회 연주회」가 8월 18일 KBS태백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지역간 문화예술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이번 연주회는 아리아, 우리가곡, 성가곡등 다양한 곡들을 선사했다.

■ 근로자를위한 음악회 열려

산재근로자를 위한 음악회가 8월 27일 오후3시에 태백시 소도동 태백산도립공원내 시민광장에서 열렸다.

이번행사는 매일경제신문사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95년 제2기 문화학교개강

태백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태백문화학교(학교장우성조)에서 제2기 문화학교 수강자를 모집 운영했다. 지난 9월10일부터 3개정 과정을 수강 신청 받았는데 고전무용교실, 도자기교실, 국악교실, 사진교실, 종이접기교실, 한문교실 등 6개 과목 각 30명씩 수강신청을 접수 받아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 성황리에 개강하였다.

특히 도자기교실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어 생활용기들을 직접 만들어 전기가마에 구워내어 가정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 고원 관광축제 열려

폐광때문에 사람들이 속속 떠나 폐허로 변한 흑백의 도시 태백시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컬러의 도시로 만들기위한 문화행사가 10월2일부터 일주일간 태백시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태백시 자마이벤트(대표 김원종)는 순수민간축제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95 고원관광축제를 개최했다.

흑백에서 컬러의 도시로라는 주제로 열렸던 이번 관광축제 기간에는 고원벽화, 페스티벌, 태백가요제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 제14회 태백제 열려

10월 3일 오전11시 7만 태백시민 화합 한마당잔치인 제14회 태백제가 태백산 정상 천제단에서 태백산천제를 시작으로 축제의막이 올랐다.

당골산제터에서는 산신제가 단군성전에서는 단군제가 있었고 산

업전사위령탑에서는 산업전사위령제가 있었다.

이밖에도 태백시 산악협의회가 주관하는 태백산 등산대회가 열렸고 당골광장에서는 제3회 전국굿대회가 열려 전국에서 참가한 11개 굿팀이 묘기를 백출 관광객과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3일부터 개설된 종합경기장 주변의 야시장에서는 각종 전통 향토음식들이 선보여 밤늦게까지 시민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시의 향토축제인 태백제는 10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됐다.

■ 태백산 천제 올리다

단기 4328년 10월 3일(개천절) 오전11시 태백산 정상 천제단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천제가 진행됐다.

태백산 상상봉 천제단에서 거행된 천제는 태백산천제위원회(위원장 김강산)에서 주최한 범민족적인 제사로써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미래 영원한 인류의 평화를 구하고자 올려지고 있다.

이날 태백산 정상에는 전국각지의 뜻있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영신굿 강신 진설 참신 주유 헌작 고천 송신 소지순으로 의식이 행하여 졌으며 배달민족이면 종파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는 이 태백산 천제는 한민족은 하나임을 고하는 제사인만큼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제15회 무후제 열려

제15회 무후제가 개최됐다 무후제는 후손없이 세상을 떠난 영령을 위로 하기위해 태백시가 매년 음력9월9일 올려왔다. 이번 무후제는 11월1일 오전11시30분 태백시 황지3동 심원사에서 태백시장님과 시의회장과 각급기관·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미용 기술 세미나 열여”

대한미용사회 태백시지부(지부장 이정자)는 11월9일 오후1시 황지 라이온스회관에서 회원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용종사원들의 기술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제3회 전국 굿 대회 개최

태백산 천제 위원회(위원장 김강산)에서는 지난 10월3일~5일까지 태백시 종합운동장에서 제3회 전국 굿 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온 15개 굿패가 경연을 벌여 그 가운데 대구 팔공산 천황굿패가 대상을 받았으며 전주에서 온 씻김 해원굿패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3회 전국 굿 대회는 태백제 기간중 가장 인기있는 축제로 하루 수천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3일간 성황리에 끝마쳤다.

■ 태백시민 화합잔치 열려

가족노래자랑대회가 10월 28일 오후2시 황지연못 근린공원에서 태백시민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백시 주관, 자마이벤트 여성단체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행사는 화목하고 사랑스런 가족들의 모임을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과 경로 효친사상을 계승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이날행사 1부에서는 모범주부 16명을 선정하여 홍순일태백시장 이 포상을 했다. 그밖에 시상식은 참가한 모든 가족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 태백소방서 화재예방 홍보활동 펴

태백소방서는 11월하순 어린이 주부소방 안전교실운영과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등 소방관련행사를 개최해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 및 생활소방이 정착할수 있도록 노력했다.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관내 18개국민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소방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소방장비 전시회 열어

태백소방서는 소방홍보의 효율성과 경각심을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불조심 작품 입상작및 소방장비 전시를 11월27일부터 3일간 열었다.

27일은 황지연못 근린공원에서 28일은 영암운수터미널에서 29일은 태백소방서 청사앞에서 어린이 불조심작품 입상작15편 사상대회입선작 20편을 전시했다.

또 각종소화기구와 소방장비및 인명구조장비등을 황지연못 근린공원에서 전시했다.

■ 제5회 향토음식 솜씨 자랑대회 열려

제5회 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가 12월 13일 오전11시 태백문화원에서 열렸다.

가정에서 전래되어온 전통 향토음식을 발굴해 태백시의 관광식품으로 개발토록 하기위해 지난 91년부터 개최해온 태백문화원의 전통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는 지난해까지 80여종의 향토음식을 개발했다.

이번대회는 모두 18개팀이 참석하여 제각기 음식을 만들었다.

제5회 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으뜸상 = 주목강냉이술(한일산) • 버금상 = 호박식혜(김노미)
도토리군만두(이정현) • 솜씨상 = 감자옥수수야채튀김(김성자) 찹전
병(김경자) 아카시아동동주(황정희) 찰강냉이시루떡(이규복) 메밀꿀
두국수(이화월) 배숙차(전영숙)

■ 연극 「이대감 망할대감」 공연

올해 창단한 태성전문대 연극동아리 「천제단」창립공연이 11월 19일 6시에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있었다.

이연극 「이대감 망할대감」은 이대감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사회의 부정, 부패의 한 단면을 현대적시각으로 풍자한 작품이다.

■ 경노효친 수범자 표창

'95년 12월 21일 태백문화원에서 경노효친 수범자를 발굴 추천하여 시상식을 가졌다.

경노효친 수범자들은 부모님을 잘공경하고 또는 부모님이 안계시는 소년, 소녀가장중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였다.

경노효친수범자들은 다음과 같다.

• 태백중학교 박성민 • 장성여중 심임연 • 철암중학교 김소희
• 황징여자중학교 최지혜 • 함태중학교 진선미 • 황지중학교 신영호
• 상장중학교 김병기

경노효친 수범자에게는 장학금과 부상이 주어졌다.

■ 황지여상 동그라미모임 연극 공연열려

1995년 12월 16일 황지여상 동그라미 연극모임이 태백문화원강당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 공연은 흥부전이라는 작품을 각색하여 「신놀부전」이라는 제목으로 형제간의 갈등과우애 그리고 메마른 사회에 사랑을 심자는 과정을 그렸다.

■ 한밤사진동우회 창립10주년 사진전 열려

한밤사진동우회(회장신동일)창립10주년 기념전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태백문화원강당에서 열렸다.

흑백9점, 칼라39점등 모두 48점의 전시작품들은 풍경과 인물들을 주제로 폐광촌의 환경문제를 제기했다.

정리 : 이명숙

法律 第5089號

廢鑛地域開發支援에 관한

特別法, 制定되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5089호로 12월 29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로써 폐광지역인 태백시를 비롯 강원 남부지역에 개발의 초석이 놓여지게 되었으니 환영 할 일이다. 특별법의 전문과 그동안 추진일정을 전제한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 일정

- 95년 3월 3일 - 朴雲緒통산부차관의 탄광종합대책 5개항발표
(특별법 제정 약속)
- 3월 10일 - 도, 탄광개발촉진지원단 구성
- 6월 3일 - 도, 폐광개발특별법안 제출
- 7월 10일 - 통산부, 특별법 초안 확정
- 7월 20일 - 30일 - 통산부, 관련부처 협의
- 8월 18일, 19일 - 도 실, 국장, 중앙부처방문
- 8월 29일 - 통산부, 주민간담회
- 8월 30일 - 통산부, 특별법안 입법예고
- 9월 13일 - 강원남부폐광지역주민대표자회의, 환경부 문체부 방문

- 9월 21일 - 金振旻 행정부지사 환경부 문체부 건교부 통신부 등 방문
- 9월 25일 - 崔珏圭 지사 내무부장관 통산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휘보고
- 10월 4일 - 경제차관회의
- 10월 6일 - 경제장관회의 통과
- 10월 30, 31일 - 도의회 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형재) 위원 10명, 문체부 환경부 통산부 국회 정당 청와대 등 방문
- 11월 4일 - 총리행정조정실 주재 차관회의
- 11월 7일 - 도지사 태백, 정선, 영월, 삼척, 시장 군수, 총리께 드리는 건의문 제출
- 11월 9일 - 차관회의 통과
- 11월 10일 - 국무회의 의결
- 11월 22일 - 국회 통상산업위 통과
- 11월 28일 - 국회 법사위 통과
- 11월 30일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정

제13201호 관 보 1995. 12.29. (금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5년 12월29일

국무총리 이수성

국무위원

통상산업부 박재윤
장 관

● 法律 第5,089號

廢鑛地域開發支授에 관한 特別法

第1條(目的) 이 法은 石炭産業의 斜陽化로 인하여 落後된 廢鑛地域의 經濟를 振興시켜 地域간의 均衡있는 발전과 住民의 生活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鑛地域"이라 함은 炭鑛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地域과 그 인접 地域으로서 廢鑛 또는 石炭生産의 감축에 따라 地域經濟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地域을 말한다.

(法律 第5089號)

廢鑛地域開發支援에 관한 特別法

第1條 (目的) 이 法은 石炭産業의 斜陽化로 인하여 落後된 廢鑛地域의 經濟를 振興시켜 地域間的 均衡있는 發展과 住民의 生活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鑛地域”이라 함은 炭鑛이 所在하였거나 所在하고 있는 地域과 그 隣接地域으로서 廢鑛 또는 石炭生産의 減縮에 따라 地域經濟가 顯著히 萎縮되어 있는 地域을 말한다.
2. “施行者”라 함은 地域均衡開發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를 말한다.
3. “實施計劃의 承認”이라 함은 地域均衡開發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말한다.
4. “代替産業”이라 함은 石炭産業에 代替하여 廢鑛地域住民의 所得을 增大 시키거나 地域經濟를 活性化시킬 수 있는 産業을 말한다.
5. “民資誘致事業”이라 함은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에 의한 民資誘致事業을 말한다.

第3條 (廢鑛地域振興地區의 指定)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廢鑛地域中 다른 産業의 誘致가 困難한 地域의 經濟를 振興시키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道知事の 申請을 받아 廢鑛地域振興地區(이하 “振興地區”라 한다)를 指定할 수 있다.

② 振興地區의 指定은 地域均衡開發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區중 特別한 開發이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地域에

대하여 행한다.

③ 通商産業部長官은 振興地區를 指定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務會議의 審査를 거쳐야 한다. 指定된 振興地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以上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通商産業部長官은 振興地區를 指定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4條 (開發計劃) 道知事は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地區로 指定・고시된 地域이 있는 境遇에는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區의 開發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에 振興地區의 開發에 관한 事項을 포함시켜야 한다.

第5條 (廢鑛地域 環境保全計劃의 樹立)

① 道知事は 振興地區의 環境保全 및 廢鑛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解消하기 위한 計劃 (이하“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開發計劃에 이를 反映하여야 한다.

② 道知事が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을 樹立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意見を 들은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道知事が 第1項의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을 樹立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6條 (廢鑛地域에 대한 環境調査) 道知事は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을 樹立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振興地區 및 그 周邊地域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한 環境調査를 實施하고 그 調査結果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1. 山林・植生・生態系・水資源 등 自然 環境에 관한 事項

2. 廢鑛으로 인한 環境汚染에 관한 事項
3. 人口・産業・上下水道 등 社會環境에 관한 事項
4. 其他 環境保全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第7條 (施行者 指定의 特例)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振興地區안에서의 開發計劃의 施行을 위한 開發事業(이하“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위하여 地域均衡開發및 地域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の 指定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廢鑛地域의 住民 또는 石炭鑛業者를 優先적으로 指定할 수 있다.

第8條 (綠地保全地域 開發의 特例) 振興地區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自然環境保全法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綠地保全地域指定基準에 該當하는 地域을 開發計劃에 包含하여 開發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 (環境影響評價의 特例) ①環境影響評價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 對象이 되는 開發事業의 施行者は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作成된 評價書에 관하여 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와 協議를 하여야 하는 開發事業에 관하여 環境影響評價法 第16條 내지 第27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環境部長官은 이를 道知事로 본다.

③ 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評價書에 관한 協議를 하는 境遇에는 廢鑛地域環境影響評價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鑛地域環境影響評價審議委員會의 構成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委員會의 構成에 있어서는 環境部長官이 推薦하는 委員이 過半

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10條(山林法 適用의 特例) ①山林廳長은 振興地區안에서 地域住民이 直接 또는 共同으로 施行하는 開發事業 및 其他 大統領令이 정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山林法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에 관한 허가 또는 協議의 範圍 및 基準에 관한 特例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의하여 保全林地의 轉用許可를 받은자에 대하여 그 開發事業의 實施에 必要한 範圍안에서 山林法 第7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國有林을 貸付 또는 使用許可 할 수 있다.

第11條(觀光振興法 適用의 特例) ①文化體育部長官은 振興地區中 經濟事情이 특히 劣惡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의 1個所에 한하여 觀光振興法 第5條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법 第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觀光客을 위한 宿泊施設·體育施設·娛樂施設 및 休養施設등(그 施設의 開發推進計劃을 包含한다)과의 連繫性을 考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公共性 및 效率性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件에 適合한 자이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카지노 업자에 대하여는 觀光振興法 第10條의2 第1項第4號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文化體育部長官은 過度한 射倖行爲등의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入制限등 營業에 관한 制限을 할 수 있다.
④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許可期間을 정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發生되는

이익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 일정기간 동안 廢鑛地域과 關聯된 觀光振興 및 地域開發을 위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第12條 (認·許可등의 擬制) ①振興地區안의 開發計劃에 대하여 施行者가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境遇에는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許可·申告·認可·同意·承認·協議등 외에 다음 各號의 許可·申告·承認·貸付·指定·解除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의 解除, 同法第9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
2. 草地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의 許可, 同法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國·公有地의 貸付
3.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許可,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施設의 設置申告
4.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指定,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承認
5. 埋葬및 墓地등에 관한 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改葬의 許可
6. 汚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의 設置의 承認
7. 廢棄物管理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設置의 承認및 申告
8.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관한 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
9.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發의 許可
10. 自然公園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 및 使用許可

② 實施計劃의 승인권자가 第1項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承認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

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하는 境遇 實施計劃의 事業內容이 關係法令에 適合하고 公益을 顯著히 沮害할 만한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協議에 應하여야 하며 協議期間이 短縮되도록 協力하여야 한다.

第13條 (地域住民등에 대한 支援) ① 施行者는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生活의 根據를 喪失하게 되는자(以下“移住者”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移住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施行者 및 振興地區 안에 入住하는 企業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移住者, 地域住民 또는 炭鑛勤勞者를 優先적으로 雇傭하여야 한다.

③ 施行者 및 振興地區 안에 入住하는 企業은 當該 開發事業場 또는 隣接地域에서 生産되는 工產品, 農·水·畜産物 등을 優先적으로 購買하여야 한다.

第14條 (民資誘致事業의 支援)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振興地區 안에서 民資誘致事業을 施行하는 者 (이하“民間開發者”라 한다)에 대하여 地域 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 第31條의 規定에 따라 支援을 할 수 있다.

② 民間開發者는 外資導入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借款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③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開發法人에 出資한 國家·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또는 地方公社(以下 이 條에서 “公共部門出資者”라 한다)는 當該 法人의 利益을 配當함에 있어서 少額株主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公共部門出資者에 支給할 配當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商法 第464條의 規定에 不拘하

고 公共部門出資者 外の 少額株主에게 追加하여 配當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民資誘致事業의 圓滑한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間開發者에게 補助金を 交付하거나 長期貸付의 支援을 할 수 있다.

第16條 (廢鑛地域안의 農工團地에 대한 支援) ①通商産業部長官은 廢鑛地域에 있는 農工團地中 支援이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指定한 農工團地(以下“支援對象農工團地”라 한다)에 入住한 企業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② 通商産業部長官은 支援對象農工團地를 指定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17條 (代替産業의 支援) ①通商産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振興地區의 代替産業 育成을 위한 支援 및 支援對象 農工團地의 支援에 관한 計劃을 樹立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振興地區 또는 支援對象農工團地의 入住企業이 炭鑛離職勤勞者 또는 地域住民을 雇傭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待하여 支援할 수 있다.

第18條 (代替産業育成資金의 造成)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産業支援에 必要한 財源을 에너지및 資源事業特別會計의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第19條 (國庫補助金の 引上支援) 開發事業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대한 國家의 補助금은 補助金の 豫算및 管理에 관한 法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差等補助率과 다른 法律에 의한 補助率

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助率에 따라 이를 引上하여 支援할 수 있다.

第20條 (地域開發債權의 發行) ①道知事は 開發事業에 所要되는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地域開發債權을 發行할 수 있다.

② 地域開發債權의 利率・償還期間・發行의 方法・節次・買入者 및 發行條件 기타 事務取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地方公社에의 出資) ①道知事は 開發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道議會의 議決을 얻어 地方公企業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에 出資 할 수 있다.

②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하는 때에는 地方公企業法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地方自治團體외의 者로 하여금 資本金의 2분의 1以上을 出資하게 할 수 있으며, 그 出資의 上限線은 道の 條例로 정한다. 増資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第22條 (交付稅 支援의 擴大) 內務部長官은 振興地區 開發事業의 圓滑한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當該 振興地區가 所在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地方交付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交付稅를 擴大하여 支援할 수 있다.

第23條 (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振興地區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租稅關係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上の 支援을 할 수 있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經過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有効期間) 이 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有効期間 滿了에 따라 經過措置) 이 法の 適用時限 滿了當時 振興地區의 開發計劃에 따라 進行中인 開發事業 및 進行中인 支援措置에 관하여는 그 進行中인 開發事業 및 支援이 끝날때까지 繼續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廢鑛地域開發支援에 관한 特別法 施行令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등) ① 도지사는 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된 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 3. 대상지역안의 인구·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 4. 지정기간
- 5. 기타 진흥지구 지정에 관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위치도 및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의 1인당 산업생산중 광업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시·군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의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총생산량의 100분의 3이상 점유하는 시·군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의 석탄생산량이 1988년의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시·군안에 있는 지역

제4조 (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제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의 변경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가 기재된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지구의 지정고시) 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2. 지정기간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4. 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진흥지구의 변경에 한한다.)

제6조 (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폐광지역안에서 균형개발이 가능하도록하여야 한다.

제7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 보전계획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 계획
3. 지역환경기준 설정 및 유지달성계획
4. 자연상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2.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송부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해 및 산림피해 현황
2. 폐·공가 기타 폐시설물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실태
4. 지형 및 보존·보호가 필요한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5. 녹지자연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원 및 주요지점별 수질오염현황
7.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 (개발계획에서 제외되는 녹지보전지역) 법제8조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0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구성등) ① 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각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산림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중 과반수는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③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산림법적용의 특례) ① 법제10조제1항에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레저사업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등 지역특화사업
3. 폐광지역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산림법 시행령제24조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법 시행령제24조제5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용도에 이용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카지노업의 허가대상지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지역
2. 치안유지가 용이한 지역
3. 접근교통망이 용이하고 대규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988년의 전국 석탄총생산량중 당해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 1988년이후 당해지역의 인구감소율
 3. 당해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낙후성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카지노업의 허가등) ① 법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2.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 개발자로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부장관및통상산업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3. 당해지역지구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문화체육부장관및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개발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안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주민참여 기준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⑤ 문화체육부장관은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과 체류에 적합한 관광호텔부속형이어야 한다.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휴양시설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현금 및 칩의 흐름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
3.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4조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등)

-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제한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의 제한

4. 과도한 사행심방지를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 가. 크레딧제공의 제한
 - 나. 베팅액 범위의 제한
 - 다. 베팅액 한도별 영업소구분 운영
 5. 기타 카지노영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사회적물의를 야기시킬 우려등 기타 공익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내부 및 외부의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2. 제1항제1호에 해당되거나 제1호의 요구에 불응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요구를 한 때

제15조 (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 (카지노업의 이익금 처리)

- ① 법제11조제5항에서 “이익금”이라 함은 단기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역의 도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익금의 100분의 75
 2. 영업개시일 6차년부터 10년 이내 : 이익금의 100분의 50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진흥지구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의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기타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 도지사는 매년 제26조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이익금의 징수방법·절차·운영·관리등 기타 사항은 당해 지역의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통상산업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역주민등의 고용지원)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 할 경우에는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주자동이 우선 고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액주주의 범위) 법제14조제3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전체주식의 1/100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제19조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정)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농공단지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대상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의 명칭
2. 농공단지의 소재지
3.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4.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통상산업부장관이 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2.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소재지

제21조 (대체산업 육성계획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3. 자금의 지원조건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5. 기타 대체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제26조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의 추천)

-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 또는 지원 대상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탄광이직근로자를 100분의 50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다른 입주기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하되 기존 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동법 제9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25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 ① 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종류·발행방법·발행절차 기타 사무취급에 관

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소화, 상환, 이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①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 소속하에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원 차관보
2. 내무부 차관보
3. 문화체육부 기획관리실장
4.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장
5.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6.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7. 건설교통부 차관부
8. 산림청 차장
9. 도의 행정부지사
10.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된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의 허가지역 선정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법적용의 특례 대상사업의 결정
6.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자료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용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용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용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태백의 상징 동·식물

김 강 산

(태백향토사 연구소장)

태백을 상징하는 동·식물로써 현재 시목(市木)인 주목(朱木)과 시화(市花)인 산목련, 시조(市鳥)로 산까치가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목을 제외한 산목련과 산까치는 본래의 이름이 아닌 속칭인 것이며 바른 이름은 함박꽃과 어치로 불러야 바른 것이다.

목련과 비슷하고 산에 자생한다고 속칭으로 산목련이라 부르는데 학명으로는 함박꽃이고 실지 옛날부터 우리네 조상님들은 함박꽃으로 불렀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

산까치도 까치와 비슷한데 산에 산다고 산까치라고 하면서, 실지 태백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화보에 등장하는 산까치라고 하는 새의 사진은 산까치가 아니고 어치 혹은 언치라고 부르는 새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태백시의 상징 동·식물의 바른 이름 찾기와 그 상징 동·식물의 생태학적 이해와 품고 있는 내력을 알아봄으로써 향토애를 북돋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는 호랑이를 태백시의 상징 동물로 삼을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예로부터 태백산 일대는 수목이 우거져 호랑이가 많았다.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 하면 유명하였다. 호랑이는 백수의 왕으로 먹이사슬의 제일 위쪽에 자리한다. 사람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태백

산 일대에는 호랑이에게 잡아 먹혀 죽은 사람의 무덤인 호식총도 많다.

하지만 호랑이는 四神의 하나로 서방(西方)의 신(神)으로 모셔지기도 하는 신수(神獸)로 효자(孝子)를 보호하고 영물(靈物)로 여기는 우리에게는 친근한 짐승이다.

우리 한반도를 호랑이 처럼 생겼다 하고 우리 민족의 기상을 호랑이에게 비유하기도 한다.

최근 태백산 일대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여 각종 보도 기관에서 다투어 취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우리민족이 호랑이를 좋아하고 마음속 깊이 호랑이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기에 그러한 것이다. 서울 올림픽때 상징 표시로 호돌이를 선정한 것도 한 민족의 호랑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강원도를 상징하는 동물은 반달곰이고 인근 삼척시는 사자가 시 상징 동물이다. 그런데 태백시에는 시 상징 동물이 없으니 이 기회에 호랑이를 태백시 상징 동물로 삼는다면 대외 이미지 홍보에 좋고 시민의 진취적 기상을 대변해 줄 것이다.

다음은 태백시의 상징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함박꽃

태백시의 시화(市花)는 산목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산목련은 속명(俗名)이고 본래의 이름은 함박꽃이다. 목련과 비슷하여 산에 있다고 산목련이라 해서는 안된다. 산에 있다고 산까치 이고 산에 있다고 산해당화라 해서는 안된다.

물론 함박꽃은 목련과의 낙엽 활엽교목이다. 그러나 산목련은 아니고 본래의 이름은 함박꽃 또는 한박꽃으로 불린다. 그러기에 우리 시민들은 산목련이라 부르지 말고 본래의 이름인 함박꽃으로 불러야 한다.

왜 그러나 하면 본래의 이름이 함박꽃이니 바르게 부르자는 것

이고 또 태백(太白)의 이름이 한밤이니 한밤시에 함박꽃이라면 이름도 부합되기에 그러하다. 태백산(太白山)이 우리말로 한배달 또는 한밤되이고 그곳에서 이름은 땀 태백시는 한배시 또는 한밤시가 될것이니 함박꽃과 이름이 같은 것이다.

태백산(太白山)이 한밤되인데 이웃에 있는 함백산(咸白山)도 태백산의 우리말인 한밤되, 한밤산을 이두표기한것에 불과 하다. 그러니 태백산은 한밤되를 이두표기한 것이다. 그래서 태백산과 함백산은 그뜻이 같은 산이다. 이러하기에 산목련이라 부르지 말고 우리 고유 이름인 함박꽃으로 불러야 태백의 한밤과 어울리는 것이다.



「市花 - 함박꽃」

산림청 임업연구소 임업연구관이던 조무연(趙武衍)씨가 지은 「원색 한국 수목 도감」에 보면 함박꽃나무로 되어 있지 산목련이란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함박꽃나무는 학명이 *Magnolia Sieboldii* Koch

로서 함경북도의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계곡에 자생하고 있는 수고 약7m의 낙엽 활엽교목으로 표고 50~1,450m에서 자라며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 원줄기와 함께 옆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군생하고 생장이 빠르다. 내한성이 강하나 전정과 이식을 싫어 하며 습기가 적당하고 비옥한 반음지에 잘 자란다.

대기오염과 해풍이 심한 곳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다. 잎은 얇은 가죽질이고 넓은 타원형으로 도란형이고 길이 6~15cm, 넓이 5~10cm이며 어긋난다. 잎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뒷면은 회록색이며 맥을 따라 털이 나있다. 꽃은 지름 7~10cm인 양성화로서 5~6월경 새로난 가지 끝에서 백색으로 피고 꽃잎속에 들어 있는 적자색 수술이 새하얀 꽃잎과 조화를 이룬다.

꽃은 향기가 짙고 꽃잎은 9장이다. 9월이면 길이 3~4cm의 둥근

열매가 익는데, 다 익으면 타원형의 붉은색 종자가 터져나와 실 같은 하얀줄에 매달린다. 무궁화처럼 매일 몇송이씩 피는 꽃이 향기가 좋아 정원수나 공원수로 적합한 관상수이다.

함박꽃나무는 야생화치고 매우 큰 꽃을 피우는데 큰 꽃은 주먹만큼이나 크다. 눈부실 정도로 하얀 색깔의 꽃 잎속에는 노란씨방이 솟아있고 그 씨방 주위로 붉은 자주빛의 꽃수술이 감싸고 있어서 기이한 색깔의 조화와 함께 우주의 오묘한 이치와 우리민족의 사상과 심성에 부합되는 신비한 꽃이다.

함박꽃은 꽃잎이 3개씩 3겹으로 되어 있어 꽃잎이 모두 9장이다. 3은 天人地の 三才思想을 내포하고 있고 三神思想과 三合思想에 부합되는 숫자로서 꽃잎 3장이 3겹으로 있으니 $3 \times 3 = 9$ 가 된다. 9는 최고의 숫자이니 지고지순의 하늘인 九天을 뜻하고 우리겨레의 9갈레인 九桓族을 의미하며 우리 땅덩어리 九州를 의미하니 9는 우리겨레와 깊은 연관이 있는 숫자이다.

함박꽃의 꽃잎은 이러하거니와 꽃중심에 솟아 있는 황금빛 씨방은 五行의 中心인 土와 같은 색깔로 임금을 뜻하는 색이며 천지만물의 생명의 색이며 씨방의 씨눈이 21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3 \times 7 = 21$ 이라 단군신화에 나오는 웅녀가 동굴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은지 21일만에 사람으로 화신한 숫자요 아이 낳았을때 외부인의 접촉을 금하는 날짜가 삼칠일($3 \times 7 = 21$) 즉 21일이니 그 숫자와 부합하며 삼태(三台) 삼재(三才) 삼신(三神)을 뜻하는 3이란 숫자와 북두칠성을 뜻하는 칠성(七星)의 7을 서로 곱한 $3 \times 7 = 21$ 의 숫자이니 이 또한 범상한 일이 아니다. 씨방을 감싸고 있는 꽃수술은 붉은 자주색으로 丹心을 나타내는 색깔로 충효의 상징색이며 태양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꽃수술은 대략 81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9 \times 9 = 81$ 의 숫자이다.

우리 겨레의 思想의 정수(精髓)라 할 天符經이 $9 \times 9 = 81$ 字로 되어 있어 이 꽃수술과 숫자가 같으니 함박꽃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심성과 닮은 밝은 꽃인 것이다. 꽃의 한가운데 황금빛 씨방이 21마디로 솟아 있어 황금빛 태양의 속심을 나타내고 그 씨방 둘레로

붉다 못해 자주빛이 나는 꽃수술이 81개의 빛살 처럼 솟아 황금빛 씨방을 받쳐주며 빛나니 바야흐로 황금빛 태양의 속심에서 붉은 햇빛이 빛나는 형상이다.

황금빛 씨방과 붉은 빛 꽃술 밖에 희디흰 꽃잎 9개가 활짝 펴 있으니 햇빛이 우주로 밝은 빛을 펼치는 형상이다. 이렇듯 오묘한 이치와 신비한 뜻을 간직한 함박꽃이야 말로 진정 꽃중의 꽃으로 한밤산 아래 사는 한밤의 꽃으로 손색이 없으며 우리겨레를 상징하는 꽃으로 모자람이 없는 밝고도 큰 꽃이다.

우리겨레의 은근과 끈기를 대변하듯 은근하고 특소는 깊은 향기와 매일 몇송이씩 1달여에 걸쳐 끈기있게 피어서 함박웃음을 선사하는 함박꽃, 그것은 산목련이 아니라 한밤시의 함박꽃이다.

◆ 어치

태백시의 시조(市鳥)로 선정되어 있는 새는 산까치로 되어 있는데 실지 태백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화보에 실려 있는 새는 산까치가 아니라 어치라고 불리는 새이다.

흔히 산까치는 떼까치라고도 불리우는 새로 떼지어 날아 다니는데 배 쪽은 회고 등쪽은 회색에 가까운 연푸른색을 띠고 있어 어치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렇다면 화보에 실는 새의 사진을 지금과 같이 어치 사진을 실을것이 아니라 떼까치 사진을 실어야 한다. 태백은 고원도시라 떼까치들이 서식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곳이다. 떼까치는 해발 300~400m 정도의 야산에 떼지어 사는데 반해 어치는 해발 1500m이상에서도 사는 새로 태백산 꼭대기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태백산 근처에서는 떼까치를 보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산까치의 실체를 몰랐고 그러다 보니 어치를 산까치로 오인, 수년간 산까치로 명명되어 각종 화보에 실리게 된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태백시의 시조(市鳥)

로 눈에 익혀져 온 새그림(어치)을 버리고 떼까치 그림을 신는다면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것이니 그림은 예전대로 하되 이름만 정정하여 게재하면 될것이다.

왜냐하면 어치라는 새는 그 빛갈도 아름다우려니와 또 고산지대에 사는 새로 태백을 상징하는 새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어치는 까마귀과의 새로 몸길이 34cm 정도로 비둘기보다 조금 작으며 몸 빛갈은 오색이다. 몸은 포도색이고 머리는 적갈색이며 날개에



「市鳥 - 어치」

하늘색과 검은색 흰색이 있다. 아마 색깔로 따지면 어치 만큼 빛갈좋은 새도 드물것이다.

어치는 목소리가 고우며 다른 새들의 소리를 잘 흉내 내며 가끔 어린 아이 목소리도 흉내낸다. 옛날에는 어치를 붙잡아 앵

무새 처럼 말을 가르치면 아주 잘따라 했다고 하며 말을 잘하고 다른새의 소리를 잘 흉내낸다고 언치새 또는 언치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어치라고 불렀다.

언치의 언은 말씀言이고 어치의 어도 말씀語인 것이다.

어치는 4월에서 6월하순에 걸쳐 4~8개의 알을 낳아 번식한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곤충과 나무열매 그밖에 먹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다. 서식은 주로 북위 35~60° 사이의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분포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높은산에 서식하는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번식하는 텃새이다.

어치야말로 오색이 겸비하니 천지오행의 색깔을 가졌으며 모든 새의 소리를 흉내 내고 사람의 음성도 흉내내니 궁상각치우 오음(五音)을 득음(得音)하여 인조동화(人鳥同和)하며 잡식성으로 아무 것이나 잘먹으며 고산에 사니 태백시의 상징 새로서 손색이 없다.

◆ 주목(朱木)

태백시의 시목(市木)으로 선정된 것이 주목(朱木)이다.

주목은 주목과의 상록침엽교목(常綠針葉喬木)으로 학명은 *Taxus cuspidata*이며 해발 1천미터 이상의 고산지에 자생하며 음지에 군락을 이룬다. 높이 약 22m, 지름 2m까지 자라며 최고 수명은 1~2천년 정도라 한다.

가지는 사방으로 퍼지고 나무의 색깔은 적갈색으로 붉은 빛을 많이 띤다. 잎은 검푸른 빛이고 전나무 잎 비슷하나 끝이 뾰족하



「市木 - 朱木」

지는 않고 부드럽다. 주목의 잎이 검푸른 것은 음지에서 자라기에 약한 햇빛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이다.

나무의 껍질이 두껍지 않고 얇은데도 껍질이 두꺼운 소나무나 전나무, 잣나무 보다 더 높고 추운

곳에서 자란다. 4월경에 잎겨드랑이에 꽃이 달리는데 수꽃은 잔꽃이삭이고 암꽃은 1~2개씩 달린다.

9월경에 붉게 익은 핵과(核果)가 달리는데 그 속에 하나의 씨가 들어 있다. 붉은 핵과는 가종피(假種皮)라는 것인데 씨로 발달될 배주(胚珠)가 배병(胚柄)이라는 자루에 달려 있는데 씨가 익어감에 따라 배병이 발달하여 씨의 아랫부분을 감싸며 술잔이나 종지 같이 자라서 씨를 그 안에 담는 형상이 된다.

그래서 주목 열매는 빨간 종지처럼 생긴 가종피 안에 한개의 씨가 담겨 있는것 처럼 보인다. 주목씨의 가종피가 발달한 것은 이 열매가 새들의 눈에 띄어 새가 따 먹은 뒤 멀리 날아가 배설할때 그곳에 떨어져 발아되기 위한 주목 스스로의 생존 법칙인 것이다.

주목(朱木)은 붉은 나무라는 뜻이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적목

(赤木)이라 부르기도 한다.

주목의 속심은 유난히 붉은 편인데 이 부분에서 붉은빛 염료를 추출하기도 하며 가지와 잎은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

주목은 다른 나무와는 달리 자웅이주(雌雄異株)로 되어 있어 암 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다. 나무는 건축 또는 가구재로 쓰이며 유럽지방에서는 예전에 활을 만드는 재료였다고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주목으로 활을 만들었다고 한다.

흔히 주목은 生千年 死千年이란 말로 대변되기도 하는데 그뜻은 천년을 살고 죽어서도 천년동안 썩지 않고 남아 있다는 뜻이다.

그 만큼 주목은 생명력이 강한 나무이며 나무자체에 살균효과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에 잘 썩지도 않는 것이다.

옛날에 나라에서 임금이 죽으면 그 관(棺)나무로 주목을 이용했는데 그 나무를 재궁목(梓宮木)이라 하였다. 일본 사람들도 주목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주목을 이찌이(一位)라고 하는데 그 말은 가장 으뜸이 되는 나무라는 뜻이다.

주목은 참 신기한 나무다.

자웅이주(雌雄異株)로 고등식물이며 씨가 하나씩 열리니 제1의 나무요 나무 중의 왕목(王木)이다. 가장 높은곳에서 못 나무들을 굽어보며 자라니 나무의 왕이다.

붉은 열매는 一片丹心을 뜻하고 붉은 나무빛은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서 향나무는 귀신을 불러모으고 주목은 귀신을 물리친다는 민담이 전해온다.

태백산 정상부의 주목군락들, 몇아름이나 되는 붉은 빛을 띤 주목이야말로 태양의 나무며 신단수(神壇樹)인 것이다.

음지에 있으되 밝음을 지향하고 추운곳에 살되 누더기를 걸치지 않는 고고한 기품의 소유자가 주목이다. 죽은듯 살아있고 죽었으되 살아있는듯 천년을 그 자리에 그렇게 서있는 나무, 그래서 태백산을 더욱 신령스럽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다.

◆ 호랑이

호랑이는 포유류 고양이과의 한 종으로 몸길이 약 2m, 꼬리길이 약 80cm~1m 정도로 등은 황갈색이고 배쪽은 흰색이며 검은 줄무늬가 있다.

사슴, 멧돼지 등을 즐겨 잡아 먹으며, 산림속에 혼자 사는데 발정기 때 쌍을 이룬다. 시베리아 남부에서 우리나라, 중국, 인도지방과 자바 등지에 걸쳐 분포하는 아시아 특산종이다. 호랑이의 학명은 *Panthera tigris altaica*이며 전세계적으로 8개 아종(亞種)이 존



「市獸 - 호랑이」

재 하는데 그 가운데 시베리아 호랑이가 가장 커서 큰것은 머리에서 꼬리까지 총 390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의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 즉 아무르 호랑이의 아종으로 비교적 큰 편이다.

호랑이는 백수(百獸)의 왕으로 사자 보다도 크고 이빨, 발톱의 길이, 무는힘, 앞발의 힘이 사자 보다 월등하여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실질적 백수의 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호랑이를 영물로 여겨 사신(四神)의 하나로 서방(西方)을 맡은 신(神)으로 여겼으며 산신(山神)으로 숭배되기도 했다.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보면 「호랑이를 신으로 섬겨 제사한다.」(祭虎以爲神)

라고 했으니 우리겨레는 예로부터 호랑이를 두려운 존재로 여겨 신격화(神格化)하였던 것이다.

호랑이는 맹수이다. 만약 사람에게 무기가 없다면 호랑이에게 이길수 있는 확률은 100만분의1도 안될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겨레는 호랑이에게 많은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호랑이의 용맹함을 찬양하며 무장(武將)을 상징하는 동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신수(神獸)로 산신(山神)으로 또는 사신(四神) 가운데 하나로 본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호랑이가 멸종되었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북한의 백두산 부근에 10여마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겨레에게 호랑이는 특별한 동물이다. 호랑이에게 많은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다. 효자와 호랑이 이야기,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 산신령과 호랑이 등등 호랑이에 대한 설화는 너무나 많다. 오죽하면 중국의 노신은 한국은 호랑이의 나라라고 까지 하였을까.

이러한 호랑이가 멸종 되었다는 공식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겨레의 가슴속에는 우리 국토 어딘가에 아직도 호랑이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얼마전 태백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전국민이 흥분했던 적이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겨레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호랑이에 대한 향수가 살아 났고 어딘가에 살아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한 사건이었다.

옛날부터 호랑이 하면 태백산 호랑이가 유명했다. 강원도 포수는 태백산 호랑이를 이기질 못한다. 태백산 호랑이는 권위의 상징이자 용맹의 대명사였다.

태백시(太白市)에 시(市)를 상징하는 길짐승이 없다. 태백시를 상징하는 시수(市獸)를 호랑이로 삼을것을 공식 제기 하는 바이다.

백수의 왕이요 권위와 용맹의 상징이며 웅용장맹한 위풍은 가히 천하무적이요 태백산맥 만큼이나 굳건한 기상과 천둥소리 같은 포효는 만유의 으뜸이니 하늘아래 가장 성스런 동네 태백의 상징 동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탄광폐수 오염에 따른 맑은 하천가꾸기와 환경대책



이 명 진

(태백시청 종합경기장관리소장)

첫째 마당

자연철학의 시조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여 우주의 근원과 자연의 이치를 〈물〉로서 설명하려고 하였고 중국의 관자는 “물이란 무엇인가 모든 물건의 근본이며 모든 생명의 바탕이다”라고 하였다. 물은 고대 인류문명의 발생지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문명의 원천임에 틀림없다. 예부터 중국에서는 治水平天下 즉 물을 다스리는 일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지역이 수자원의 오염과 고갈로 인하여 심각한 위

기사태를 맞고 있으며 물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해미시맥레이(Hamish Mcrae)는 2020년 당면할 가장 심각한 자원문제로 물 부족을 들고 있으며 21세기 수자원보고서(국제인구행동연구소 : PA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물사정이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 1백49개국의 수자원 현황조사에서 한국의 연간 활용가능한 수자원양이 세계 78위로 1인당 수자원이 1,470㎥로 2025년에는 1인당 활용가능한 수자원은 1,158㎥, 2050년에는 1,116㎥로 분석된 산출기준을 볼때 물관리의 효율개선등 적극적인 정책개발의 집행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관리 문제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50년대 이후 국가기간산업의 중점육성정책과 맥락을 함께 해온 석탄산업의 도시 태백은 지금 매우 심각한 환경위기에 처해 있다. 한세대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풍족한 삶의 사회를 이룬 뒤안길에 남겨진 태백시는 광해, 폐수에 젖으며 시들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때 환경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층은 한정되어 있다.

문제인즉,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개발을 전제로 환경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예외규정만 두고 환경보전을 위한 어떠한 지원사업과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태백시의 하천오염 문제와 같은 현상은 개발과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시대상황과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경제적 이득만을 고집해온 경제 제일주의가 복원 불가능한 현재의 환경위기를 가져왔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의 세계화라는 캐치프레이즈보다 태백시의 당면한 환경문제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자연환경을 새롭게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기위한 첫단계가 광산폐수에 의한 광해방지사업과 이와 관련한 친수성 하천환경의 조성이 도시발전 프로젝트보다 제일 먼저 실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맑은 하천을 만들고 가꾸는 일이 완료된 뒤 개발을 위한 시행에 나서야 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태백시의 최우선 과제는 당연 물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먹는 물, 음용수등 수질문제보다는 근원적으로 발원지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발원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탄광폐수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강물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일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가에 두었다.

오늘날 지역적으로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필사적인 반대와 금지를 외치면서도 자기가 마시는 물에 대한 오염행위 등에 대한 의식은 깨어있지 못한 것이 작금의 실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고원관광휴양도시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과 자연환경이라는 보전관리 측면을 살펴볼때 일반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오염되는 영역은 기술의 발전과 관리의 개선으로 충분히 극복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와 같이 발원지 도시전체를 산업활동의 결과에 의해 오염된 환경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책을 세워 직접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탄전지역이 지난날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세계적인 청정화 기류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정책집행에 도시전체가 막대한 손상을 입었고 폐광후에도 독버섯처럼 용출되고 있는 폐광폐출수에 대한 근본적인 오염방지대책은 제시된 바 없다. 하루가 다르게 가중되고 지하를, 계곡을, 토양을, 맑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탄광폐수는 표면적으로는 하천을 오염시키지만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자연생태계를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환경오염에 중독된 토양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계획 방치의 행정에 의한 환경 파괴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탄광폐수에 의한 중요한 환경문제는 지역적 오염과 서식지의 주된 생태계의 손실에 이은 환경악화의 심각성에 있으며 오염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생물서식지 피해지역에 사는 국민은 아무리 소득이 높고 문화생활을 영위한다해도 행복한 국민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방지에 더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며 과거의 잘못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정책의 몫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정책력이 강한 중앙정부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처방은 개발의 주체였던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푸른 산, 맑은 물, 고원도시 태백을 오염시켜 “태백의 산을 푸르게 태백의 강을 맑게”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도록 자치행정의 정책결정과 집행 시민사회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둘째 마당

유기성 오염물질의 발생원은 농경지에 사용하는 비료와 농약, 비가오면 산림에서 유출되는 유기물질등 오염물질의 발생원이 산재되어 있는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과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및 분뇨,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등 유기성 오염물질의 주발생원인 점오염원(point sourc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하수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생활하수가 55.5%, 산업폐수 44.0%, 축산폐수가 0.5%, 유기성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 39%, 44% 및 17%의 구성비로 나타나고 있다. 낙동강 최상류 수계인 태백시는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등 3개 하천에 90년이전까지는 하천상류의 40여개 탄광이 가동되어 하천마다 광산폐수와 무연탄가루로 하천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폐광되기 시

작한 석탄광산이 현재는 동신탄광, 한보탄광이 하천의 상류에 위치해 있고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도심의 하류지역에서 가행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하천이 맑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폐광된 갱구로부터 흘러드는 광산폐수에 의해 또다른 제2차적인 하천오염이 시작되고 있다. 폐광된 동해탄광에서는 하루 8천톤의 폐수가 흘러나와 소도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폐갱도에 갇힌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광산폐수는 철과 황산을 비롯 알루미늄, 망간 등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함께 섞여 있으며 또한 철분이 섞인 탄광 폐수는 황갈색의 침전물을 발생시켜 하천바닥에 황색슬러지를 쌓이게 하고 있다. 결국 하천바닥은 산화된 유황, 철분 등 유해성분이 정화되지 않은채 하천으로 유입되어 옐로우현상이 계속되고 산비탈마다 방치된 폐석은 각종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빗물에 섞여 흘러내릴때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천과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한 각하천의 상류는 가축이나 생활하수가 광산폐수와 합쳐져 하천유수가 가지는 자정능력을 상실하므로써 수질오염과 하천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지역과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태백지역은 이지역 석탄광이 황철광의 함량이 높아 강산성수를 생성시켜 많은 양의 중금속과 황화물을 함유하는 광산배수가 배출되어 오염이 더욱 심화되었고 광산주변에 있는 경제성 없는 맥석광물, 폐석더미가 산기슭과 계곡을 막아 퇴적시키므로 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기에 이르렀고 도시미관을 어둡게 하여 도시발전에 많은 문제와 악영향을 유발시켜 왔다. 더 나아가 맥석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유화물 광물들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산소나 물과 반응하여 중금속이 녹아나와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황지천, 소도천, 상류지역의 경우 광산배수에 의해 낮은 pH와 높은 중금속 함량을 나타내면서 흐르다가 일정한 거리에 도달하여 pH가 회복되면 퇴적물속에 안정된 상태로 있던 중금속들이 침전되는 자연현상의 단계에 있으나 하류지역에서는 석회암지대의 영향을 받아 pH가 회복되는 상태에 있기도 한다.

이에 광업폐수의 오염성분을 보면 아연, 알킬수은, 알루미늄, 안티몬, 카드뮴, 헥사물, 신안, 수은, 오니, 철, 구리, 납, 니켈, 비소, 망간, 황산, pH, 페놀등이며 92년도에 관찰된 pH와 용존 중금속의 농도(mg/L)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시 료 채 취 지 점	pH	Al	Cd	Mn	Zn	Fe
광산지대 상류	6.7	0.08	0.02	0.48	0.10	0.70
석탄광 갱내수	6.9	0.42	0.15	0.25	0.65	6.59
석탄광산과 인접한 지점	4.6	1.70	0.15	3.22	1.40	5.76
석탄광산과 인접한 지점	4.4	1.06	0.22	3.52	1.02	3.70
석탄광산과 인접한 지점	4.5	0.42	0.25	3.27	1.11	5.35
석탄광산과 인접한 지점	3.3	2.98	0.18	5.30	2.04	6.59
석탄광산과 인접한 지점	5.1	2.34	0.15	2.23	0.83	4.53
석탄광산과 인접한 지점	6.3	2.34	0.11	1.88	0.77	4.94
석탄광산과 인접한 지점	3.4	2.98	0.04	3.82	1.61	13.59
석탄광산과 인접한 지점	5.5	1.70	0.01	2.13	0.68	4.53
석탄광산과 인접한 지점	6.1	1.06	0.01	1.83	0.70	4.53
석탄광산과 인접한 지점	7.6	1.06	0.01	0.60	0.33	2.47

[자료 : 전상호, 김진범 1992, 경기도 맑은 강 가꾸기]

현재와 같이 폐석더미와 폐갱에서 나온 중금속 섞인 침출수가 흘러드는 폐광지역의 하천은 붉은 색 일색에다 가끔씩 특정지점에서 나타나는 흰색 물빛이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서 이로 인해 낙동강의 원류가 오염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국 탄광지역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하루 14만톤이나 된다는

보고를 보더라도 폐광으로 인한 자연의 환경적 손실은 엄청나고 경제발전 도움만큼이나 비싼대가를 치르고 있는 현상을 정부는 어린아이의 홍역쯤으로 치부해버릴 우려가 높다.

통상산업부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폐광 오폐수처리 시스템의 설치와 폐석으로 인한 훼손지 산림복구사업, 빈집철거등 폐광지역 환경복구비로 총 1천8백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지만 근원적인 환경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린크로스는 국제환경단체를 창설하여 총재직을 맡고 있는 고르바초프는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산업개발이 취해졌다면 그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해결과 대비책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당위성이 있으며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로 협상의 전제가 될 수 없다.

어찌되었든 현재 광산지대의 오염주범으로 남아있는 광산폐수의 오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선(共同善)을 향한 중앙의 지원과 지방의 관리라는 이상적인 파트너십으로서의 역할분담을 해 나갈 때만이 하천오염원의 실태가 풀릴수 있다. 이제는 환경문제도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 셈이다. 여기서 탄광폐수의 하천오염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얻고자 하되 환경오염방지 사업에서는 요령과 지름길이 없다는 점,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검증하여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만이 필요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하천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탄광폐수정화 및 개선대책은 지역개발과 고용증진이라는 가치보다 우선해야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및 세대후 미래는 오늘과 똑같은 훼손의 이방지대에 서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환경문제는 명확한 비방(秘方)이 없다는 점을 명심한다면 요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와 같이 지역개발이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인가 아니면 지역개발이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는 본질인가에 대한 판단은 "환경에 친화적이다(environmentally friendly)"라는 답으로 귀결짓고자 한다.

셋째 마당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수질환경은 생활환경보호와 건강보호등 두 가지 분야로 구분돼 있으며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질검사항목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수소이온농도(pH), 부유물질(SS), 용존산소(Do), 대장균수등 5가지를 건강보호항목으로 카드뮴, 납, 비소등 9가지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천과 호소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일반화된 것이 BOD로 이는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데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그러나 산업폐수 및 광산폐수에 포함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및 하천오염 상태에서는 한가지 항목만으로는 종합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데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기물질을 망간이나 칼륨등 산화제를 이용 분해하는데 소요되는 산소의 양으로 산업폐수등을 측정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동시에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에서 사용중인 수질평가 지수법인 NSF WQI법을 사용토록 하여 정확한 수질지수를 국민들이 알기쉽게 해야한다. 우리는 수질오염에 대한 정의에서 자연상태의 물에 과다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자정작용(自淨作用)만으로는 정화되지 못하고 수질이 크게 변하여 생물이나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현상을 수질오염이라고 한다.

수질이 오염되는 원인은 자연적인 부문과 인공적인 부문이 있으며 인공적인 부문은 전체적으로 공업화, 도시화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수질오염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등에 의하여 발생하나 우리시의 경우 하천의 주요오염원이 광산폐수에 의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공업화는 인간생활의 풍요화를 가져다준 반면 1차적으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2차적으로 물(하천)을 오염시키는 이중의 손실을 가져와 총계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지역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본 고에서의 주안점은 수질오염 및

각종 물문제등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더 나은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수질오염도 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탁도(濁度), 부유물등이 있다.

항 목	내 용	기 준
p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압, 25℃ 인 물 1ℓ 에 10⁻⁷mol인 수소이온이 포함되어 있고 pH는 7 	7이상이면 알칼리 7이하이면 산성
B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D는 박테리아가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여 정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으로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 ◦ 검수(檢水)를 호기성 미생물이 충분히 생육하도록 둔다음 그동안에 소비된 산소량을 측정하여 ppm등의 단위로 표시 	<p>ppm 수치가 많아 질수록 오염도가 심하다.</p> <p>※ 많은 시간 소요</p>
C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에 포함된 무기 또는 유기물이 산화제에 의해 산화될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나타내는 것 	※위 방법 보완사용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에 포함된 산소량을 측정하여 표시 ◦ 수온상승, 염소이온양의 증가등에 따라 용존산소량은 감소 	<p>맑은 물 : 7~14ppm 산소용존 수온20℃, 염소이온 5,000ppm의 경우 DO는 8.7ppm정도</p>
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혼탁정도로 오염정도를 표시 	<p>물 1ℓ 중 청백규토 1mg이 함유된 경우 를 탁도 1ppm</p>

수질오염의 형태로는 1)유기물 오염 2)무기물 오염 3)물리적 오염 4) 생리, 생물학적 오염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오염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물 오염

- 페놀, 타르, DDT등과 같은 유독성 화합물은 하천의 미생물을 말살시켜 하천의 자정작용을 저해하고 각종 물고기등 각종 수생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줌

- 유류는 하천수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공기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용해되는 것을 방해하고 물고기들은 질식사하게 된다.

- 유기오염물질의 양이 적고 하천의 산소용존도가 클경우 호기성 세균에 의한 분해가 활발하여 자연적으로 오염상태에서 회복되며 자정작용에 의해 원래상태로 돌아가게 되나 유기오염물질이 많을 경우 유기물이 부패되어 각종 악취를 풍긴다.

2) 무기질 오염

- 산 또는 알칼리성 산업폐수는 금속이나 콘크리트등을 침식하고 각종 세균과 미생물을 말살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킨다.

-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망간등의 염화물, 황산염, 중탄산염, 인산염 등의 용해염은 금속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침식하는 것은 물론 하천수의 염분량을 증대시켜 각종 수생생물에게 큰 피해를 준다.

- 수은, 카드뮴 그리고 DDT, BHC등과 같은 살충제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며 이들 물질에 의해 수질이 오염될 경우에는 거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 사례 : 1910년 일본도야마현의카드뮴에 의한 “이따이 이따이” 공해병

1953년 일본미나마타현의 유기수는 중독증에 의한 “미나마타병”

- 점토, 석탄, 석고등과 같은 비활성무기물이 하천수에 유입될 경우 하천수의 탁도가 증대되는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3) 물리적 오염

- 하천유역이나 하상 및 제방등에서 공급되는 모래, 점토등과 같은 광물성 현탁물, 각종 산업폐수나 도시하수에서 나오는 유기물질의 현탁물은 탁도를 증가시킨다.

- 기타 고온의 공장폐수, 화력·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의 하천 오염,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등이 있다.

4) 생리, 생물학적 오염

- 산업폐수에는 특이하고 불쾌한 맛을 내는 철, 망간, 페놀, 불포화탄화수소, 유리염소(游離鹽素)등의 각종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 제1철은 0.1ppm, 제2철은 0.2ppm, 유리염소는 0.1ppm, 석유는 0.000001ppm정도만으로도 불쾌한 맛을 느낀다.

- 병원성세균, 바이러스, 병원성원생동물, 기생충, 조류(藻類), 진균류등은 하천을 생물학적으로 오염시키며 인간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준다. 바이러스에 의해 하천이 오염될 경우 인간에게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 하천에 질소, 인산등의 영양염류가 적당히 함유되어 있으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적당히 발생하나 산업폐수, 도시하수의 유입으로 영양염류가 과다해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조류는 이상번식되어 수색이 변하거나 투명도가 낮아지는 등의 오염이 발생한다. 또한 이들의 잔해가 하천바닥에 침전되어 부패성이 높은 이토(泥土)를 형성 2차적인 수질오염인 부영양화로 적조(赤潮)의 이상발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5) 기타

산성비에 의한 수질오염은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다음으로 하천수질 환경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수소이온 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부유물질 량(SS) (mg/L)	용존산소 량(DO) (mg/L)	대장균군 수(MPN/ 100ml)
생 활 환 경	1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 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2	상수원수2급 수산업수1급 수영용수	6.5~8.5	3 이하	25 이하	5 이상	1,000 이하
	3	상수원수3급 수산업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 이하	25이하	5이상	5,000 이하
	4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5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 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 등 이 떠있지 아니할것	2이상	—
사 람 의 건 강 보 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mg/L이하 비소(As) : 0.05mg/L 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포리크로리네이티드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mg/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mg/L 이하 6가크롬(Cr ⁺⁶) : 0.05mg/L이하					

- 주)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 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수질오염의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pH(수소이온농도 : 산성도지수)는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pH7은 중성, 그 이하는 산성, 그 이상은 알칼리성을 표시한다. 보통의 자연수는 pH4.5~pH8.5의 범위내에 있고 물의 산성도를 강화시키는 인위적 요인은 산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각종 폐수등의 유입에 따른 영향이 크고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황화광의 산화작용에 의한 황산의 유입과 고산습원지대의 육수에서 볼 수 있는 고사된 식물체의 불완전 분해에 의해 발생된 부식산이 유입되는 경우이다. 물의 알칼리성화의 인위적요인은 알칼리성 폐수의 유입과 자연적 요인으로는 석회암지대를 통과하여 흐르는 하천등에 영향이 있다.

둘째,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표시해주는 지표로 수중의 유기물이 호기성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산소량을 말하며 물이 유기물질에 의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므로 유기오염의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험실에서 20℃의 어두운 곳에서 5일간 시료를 배양하였을 때 소모되는 산소량을 표준으로 하여 그

수치를 5일 BOD(BOD5)라고 하며 이 경우가 보통 BOD라고 함]

BOD는 수질오염에 대한 지표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 BOD가 5ppm을 넘으면 하천의 자정능력은 상실되고 10ppm을 넘으면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 악취가 나는 하수도 수준이 된다. 따라서 수중생물의 서식을 위해서는 5ppm이하여야 하고 산업장에서 방류되는 폐수도 3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BOD(ppm)	BOD수치에 따른 수중생태계와 상수원수 수준
10	[상수원수5급수 : 공업용수 3급수준]하급공업용수사용
9	
8	[상수원수4급수 : 공업용수 2급수준]농업용수사용
7	
6	피라미, 붕어, 잉어, 뱀장어, 메기등 서식[상수원3급수 : 공업용수1급수준]수산용수사용
5	
4	은어, 돌고기등서식[상수원수2급수]약품처리후식수사용가능(수영장, 수산물양식장사용)
3이하	
2	열목어, 버들치, 금강모치등서식[상수원수1급수]간이정수처리시설로도 식수사용
1	

셋째,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산소요구량)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나타내는 용어로 BOD가 측정에 긴시간을 요하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측정방법이며,

[BOD 측정기간소요 : 5일, COD측정시간소요 : 2시간정도] COD

는 수중의 총 산화성 물질의 양을 측정한 것으로 모든 유기물이 COD실험에서 산화되고 단지 소량만이 BOD실험에서 산화된다. [실제로 COD수치가 BOD수치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COD는 주로 바다나 호수등의 수질오염 지표가 되고 COD수치가 높으면 수중에 무기성 오염물질이나 비분해성 유기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질이 불량한 것을 뜻한다.

넷째, DO(Dissolved Oxygen : 용존산소량)는 용존산소량으로 수중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의미하며 대기중에 존재하고 있던 산소가 수중에 용해되거나 수중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DO는 일반적으로 수온이 낮을수록 기압(산소분압)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순수한 물의 성격을 가졌을 때 DO는 최대치를 보인다. 통상 DO농도가 5mg/l 이하가 되면 어류가 생존할 수 없는 상태여서 수질환경보존법에서는 수산용수는 5mg/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수의 경우는 6.5mg/l 이상)

다섯째, 탁도(Turbidity)는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혼탁한 상태 정도를 말하는 지표로서 물의 투명도를 저하시키는 즉 탁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현탁부유물질등이 있다. 이것은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로 구분되며 입자크기는 보통 0.1 μ m~2mm정도이다.

여섯째, 색과 냄새는 탁도와 더불어 수질의 상태를 파악하는 주요한 물리적 지표로서 평가된다. 물에서 색깔이 나타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는 조류나 부식토등과 같은 유기물에 의해서 야기되며 색은 표준수와 비교해서 측정하고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을 때까지 물과 시료와의 희석에 의해서 측정한다.

일곱째, 세균(호기성균을 의미)은 수중에서 세균수의 측정결과치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이 농도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지표가 되고 대장균은 그 자체로서 병원성이 없지만 마시는 물이 이러한 균으로 오염되어 버리면 소화기계 전염병균에 의한 오

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주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 음용수 수질기준에는 세균학적 지표로서 일반세균과 대장균 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일반세균은 100/ml 이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은 50ml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질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자가 '95. 3. 8일과 3. 28일, 4. 3일 세차례에 걸쳐 광산폐수에 의한 하천의 오염도에 대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된 결과를 보면 다음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 갯내수와 폐갱수의 수질검사결과]

* 채수 '95. 3. 28

검사항목	검사결과 (단위 : mg/L)		비 고
	어룡탄광갯내수	황지광업소폐갱수	
Pb	불 검 출	불 검 출	
F	〃	〃	
As	〃	〃	
Hg	〃	〃	
CN	〃	〃	
Cr ⁺⁶	〃	〃	
cd	〃	〃	
phenol	〃	〃	
Cu	〃	0.02	
Zn	0.17	0.09	
Cl ⁻	1	1	
Fe	4.76	10.97	
Mn	2.15	2.15	
SO ₄ ⁻²	474	166	
Al	0.05	3.40	

[표2 : 하천수 수질검사결과]

* 채수 '95. 3. 8

하천명	채 수 지 점	검사결과 (단위 : mg/L)					판 정
		pH	DO	BOD	SS	대장균군	
황지	청소년회관교밑	6.6	8.6	5.4	8.3	3.0×10^4	4등급
〃	풍 물 시 장 뒤	6.7	9.3	3.8	22.7	2.4×10^4	〃
〃	태서국민학교앞	6.9	10.5	2.3	26.0	5.0×10^3	〃
〃	화전수원지입구	7.0	10.8	2.3	64.0	1.1×10^3	〃
소도	상장삼거1교밑	7.0	10.7	1.2	29.3	3.0×10^4	〃
〃	소 도 교 밑	7.3	11.1	1.6	0.3	8.0×10^2	2등급
〃	동 해 교 밑	6.0	11.2	0.5	43.0	2.4×10^2	4등급
황지	하 장 입 구 (화전1동사무소)	Pb:불검출 F:0.326 As:불검출 Se:불검출 Hg:불검출 CN:불검출 Cr ⁺⁶ :불검출 cd:불검출 Cu:0.084 페놀:불검출 Zn:0.317 Cl ⁻ :7.380 Fe:2.658 Mn:2.443 SO ₄ ⁻² :251,900 Al:13.420 카바릴 : 불검출 111-트리클로로에탄:불검출 트리클로로에틸렌 : 불검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불검출					

[표3 : 하천수 수질검사결과]

* 채수 '95. 4. 3

검 사 항 목 (mg/L)	채수지점별검사결과			비 고
	사내골	용 소 골	소 롯 골	
○ 수소이온농도	4.7	6.2	4.1	MpN/100ml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0.5	0.5	0.4	
○ 부유물질량	0.4	55.2	20.6	
○ 용존산소량	10.2	9.3	10.1	
○ 대장균군	2미만	2미만	2미만	
○ 질산성질소	0.3	1.8	2.1	
○ 불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암모니아성질소	〃	〃	〃	
○ 수은	〃	〃	〃	
○ 납	〃	〃	〃	
○ 6가크롬	〃	〃	〃	
○ 음이온계면활성제	〃	〃	〃	
○ 유기인	〃	〃	〃	
○ 카드뮴	〃	〃	〃	
○ 세레늄	〃	〃	〃	
○ 비소	〃	〃	〃	
○ 시안	〃	〃	〃	
○ 카바릴	〃	〃	〃	
○ 트리클로로에탄	〃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	〃	
○ 페놀	〃	〃	〃	
등 급	등 급 외 수소이온농도 환경기준미달	4등급	등 급 외 수소이온농도 환경기준미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갱수로 인하여 하천의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정화하고 방지하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마당

1.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려면

수자원 확보와 질적관리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수질관리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상황을 파악하고 수질의 변화를 예측하여 필요로 하는 목표수질(환경기준)을 정하여 실제수질을 이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투입이 있어야 하고, 민관합동의 하천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구체화하여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등 오염원별로 정확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수계별 목표수질 설정에 따른 오염원별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진단, 환경기초시설 확충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오염이 심한 소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간단한 시설과 적은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쉬운 자갈층 접촉산화법, 토양트렌치법등 정화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아무리 시책이 훌륭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한다해도 인간활동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한 환경시설만으로 완벽한 처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보전해야겠다는 시민의식의 개혁과 실천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실개천이나 마을앞을 흐르는 하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공장, 가정등 모든 구성체가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생활화할때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하천을 맑게 할 수 있다.

2. 수질환경에의 영향과 하천의 자정작용

물에 오염된 유기물질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으나 유기물질이 자연수역에 유입되면 이를 영양원으로 섭취하는 수중미생물이 증식하여 물의 탁도(濁度)가 높아지게 되고 이들

미생물이 산소를 소비하여 수중의 용존산소가 감소하게 되며 산소의 소비량의 공기중의 산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양보다 많으면 물속에 산소가 없는 상태 즉, 혐기성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물속이 혐기성상태로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황산염, 질산염등이 환원되어 황화수소, 암모니아가스, 메탄가스등이 생성되어 악취를 발생하게 되고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질은 밑바닥에 침전되어 저질(층)까지 오염시키게 된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유기성 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연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하천의 자정작용이라 한다. 자정작용은 수중의 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분해시키고 이들 미생물을 수서생물을 비롯한 수생생물들이 잡아먹는 과정에서 수질이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것인데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BOD가 4~5mg/l 이하여야 하나 유기성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다량 유입되거나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그 이상이 되면 자연정화능력을 잃게 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이러한 오염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자연수역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3. 하천수로의 정비

수질이 악화된 지역의 하천준설과 정비작업은 그 하천을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지역의 준설공사에서 입증된 바 있다. 하천을 직선화하고 하천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둔치의 식생을 파괴하고 하천 생태계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 되므로 하천의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하천의 정비계획수립 추진시 둔치에 대한 이용도에서 그 효율성이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시행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지금까지 하천의 정비개념이 수로를 정비하고 하천변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처리하여 말끔하게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하천 스스로의 기능을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실행에 유의해야 하며 인간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인 하천생물 구성의 다양성과 비생물 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삼가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30여 년전부터 「하천의 제모습찾기」에 전력하고 있고 인간중심적이고 공학적 발상에 근거하여 설치하였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고 자연상태의 모습으로 환원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천의 가장자리에는 자연스런 경사면을 만들고 모양은 적선행이 아닌 자연상태의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바꾸며 바닥도 물이 흘러가면서 만든 요철부분을 그대로 두는 등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하천은 생명의 젖줄인 동시에 오염물질의 집하장역할도 하고 생동하는 자연생태계로서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이 배출한 오염원을 정화하는 책임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강공사는 하천주변의 생태계파괴와 하류의 홍수범람, 갈수기때 필요한 저류와 지하수보충에 부정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사행하천은 도로개설 확장등으로 인하여 직선행 하천으로 변형시켜 놓아 홍수때는 종전보다 빠른 유속이 하상을 침식하고 범람하여 많은 피해를 내고 있다. 또한 도로개설로 하천변을 콘크리트옹벽 석축으로 시설하여 생태계파괴와 건천화가 나타나는 등 환경파괴와 지형상 도심하류의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하천정비시 직강공사를 중단하고 사행하천으로 복원유지시켜 강물의 유속을 느리게 하고 홍수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생태계 환원에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해야 한다. 또한 강변에서 사라진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하고 고수부지를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식의 무지한 하천개방과 관리는 개선되어야 한다.

4. 하천계획과 환경조성

직면한 환경개선에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분석에서 계획으로의 적절한 이행점(移行點)을 분명하게 하여 어느시점까지 현실 분석을 매듭짓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계획제안 실행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환경의 공간적 질서(spatial structure)의 기술과 환경의 대사적 질서(metabolic structure)을 만드는 기술로 후자의 경우 그 예로 하천정비시 홍수제어와 저유라고 하는 목적에서 수문확률(水文確率)로 부터 산정한 설계강우 강도에 대해 하천의 통수(通水)능력을 확보하고 상류지역에서의 홍수제어댐을 건설하였던 기술로서 안전성을 높일수록 제방은 더욱 높아지고 직선화되었으며 소하천의 경우 도시하수기능으로서의 단조로운 콘크리트 구조물하천이 탄생되어 역학적 하천공학이 지속되었다. 나아가 하천정비기술에 대한 다양화를 이루어야 하며 하천관리의 목적이 홍수제어나 이수(利水)측면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생물의 서식장소, 놀이장소로서 친수(親水)를 주목적으로 하는 다목적화와 자연유수에 의한 하천수뿐만 아니라 도시전체의 구조와 어울리는 수환경체제의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우수저유기술, 우수지하침투기술등 하천자체이외의 공간처리기술로 다양화 시켜야 한다.

또한 하천정비 및 정화사업 투자시 모든 분야에 토목, 건축, 도시계획과 공존화를 이루도록 토지이용과 합치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체화시켜 시행해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수질오염에 대한 연구와 지역환경대책을 수립하면서 수질오염의 인간관계, 오염도지표, 수질오염의 형태, 오염도측정, 문제점, 개선대책, 시민실천운동등 세부적으로 알기쉬운 공개된 환경행정의 수행이 꼭 필요한 시대임은 부인할 수 없으리라 본다. 이와 아울러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제요소를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천환경조성들에 대한 계획기준(생물과 공생하는 하천)

목 적	목 표	자연요소	계획요소	계 획 기 준
자연과의 공 생	새, 곤충 등의 번식가능	물	· 네트워 크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공간정비(VFS:Vegetative Filtering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산란장설치 · 수변식물식재를 통한 서식처제공 ○ 다양한 수종, 구조물 제공 ○ 습지조성(Biotope:소생활권)
	사계 절의 공간감조성		· 수변공간 의서식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의 다양화 ○ 작은 시냇물, 하천, 연못등 다양한 형태 연출
적정히 물 질 순환의 확보유지	물순환구 조를 적절 히 보존하 여 생활과 물의 결합 가 능 권		· 하천의 다목적 활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개수, 투수, 저류등 종합적인 치수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복개금지 ○ 수변으로의 접근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변 자연관찰로 설치 ○ 수생식물, 수생곤충, 새의 서식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변은 수변식물 식재 · 바닥을 모래, 자갈, 진흙으로 다양하게 구성 · 물의 흐름이 정지하는 웅덩이 설치
			· 수질의 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도 정비 ○ 태양에너지 이용형물 정화
			· 수변공 간의네 트워크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에 있는 공원정비 ○ 수로의 복단면화 ○ 생물서식처로의 기능추가, 전환
			· 어류가사 는하천형성	○ 수 정화시스템 형성

환경행정에 의한 도시·지역환경조성에 의한 계획

(’93 일본환경과학회지)

구 분	과 제	도시·지역계획	중 점 포 인 트
제1기	[공해방지]	———— 공해방지계획	생산의국소대규모집중
제2기	[자연의 보호] [자연의 복원] — 제1차환경관리계획 [시가지의 형성] 쾌적한 도시조성 ————— 어미니타운계획		쾌적한 지역,도시조성
제3기	[도시권환경자원보전] —	광역환경관리계획	광역도시조성의 실행
제4기	[지역과지구환경보전] —	에코폴리스계획 제2차환경관리계획	지구환경조성
제5기	[환경조화형사회시스템] —	에코토피아계획	환경조화형사회의개념

위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적인 삶과 활동이 넘치는 도시에 대한 단계별 성장계획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5. 친 환경적 개발개념의 도입 : 발상의 전환

지방화시대의 개발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생태적 한계와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은 국토의 환경용량속에서 생태적측면을 수용하여 과거의 물적, 양적 위주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계층간 시대적형평성을 추구하면서 자연과 환경을 유한재라는 인식을 갖고 절약, 순환형 국토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환경부하를 낮추고 지역환경용량을 수용한 개발계획의 수립추진이다.

둘째, 토지이용구조를 자원절약형으로 전환하여 집약적인 이용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환경오염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오염을 최적 처리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 투자율을 제고하고 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환경과 지역경제를 합한 의사결정제도의 정착과 개발계획수립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이다.

다섯째, 친자연 환경적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중요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앞으로의 지역개발은 환경의 질이라는 문제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나아가 단기추진계획에서 가능한 시책으로는 하천유역별로 오염지도를 작성하여 주요 지점별로 수질검사제를 운영하고 폐광시설물(광구)을 정리함과 동시에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수질정화식물(미나리, 부레옥잠)의 재배와 수변경관(水邊景觀) 수림대(樹林帶)조성 소규모 수중보를 설치하여 기포발생증대로 물 정화기능을 제고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수 있었으며, 장기추진대책으로는 탄광폐수의 직접유입을 차단한 집수로공사 및 정화시설설치로 폐수정화법을 확대하고 정화시설로 연결처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며 하천유지 용수의 상시 유량을 보장하므로서 자연성 하천환경으로 조성해 가야 한다.

6. 우리 지역에서 시행가능한 자연정화기능

가. 삼림에 의한 패러다임

삼림은 대기나 강우의 정화기능을 하고 있으며 삼림으로부터 유출되는 계류가 맑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증거이다. 그러나 평상시 안정되어 있는 계류의 수질, 수량도 단기적으로는 강

우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벌채, 산림화재등에 의한 삼림생태계의 변화에 의한 변동율이 크다. 산림은 우리나라 면적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지가 점하는 토지이용 면적율은 일반적으로 높다. 따라서 삼림으로부터 유출되는 오탁물질의 양은 그평가 정도(精度)가 집수역의 총 오탁 부하량의 평가 정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나. 수로에 의한 패러다임

수로(Open channel, creek)는 예부터 각종 인간생활과 함께 그 목적이나 형태가 변화해 왔다. 지역에 따라서는 과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일지라도 장기간 동안 우리와 친밀한 존재로서 정착, 친수(親水)기능을 갖는 수변(水邊)으로서 인식되어 있는 수로가 많다. 또한 물의 이용형태가 변하므로써 이용목적이 상실되어 매립된 수로도 있으나 복합적 기능을 갖는 수로는 생활양식이나 수질서(水秩序)의 변천에 따라 질적으로 계속 변화하여 원형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수로는 자연정화기능적 측면에서 하천이나 댐, 지하수등과 같은 특정한 수원(水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수로의 저면이나 측면이 돌이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수질정화에 필요한 미생물이나 수생식물등의 존재량이 하천에 비해 적다는 점등이 특징이다. 또한 도시수로는 우수등을 빨리 배출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흐름의 정체로 악취를 풍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로에 의한 자연정화 기능은 각 수원으로부터의 자연수 혹은 청류가 흘러들어 그 수질이나 자연정화능력을 유지하든가 혹은 필요에 따라 바람직한 수질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이용해야 한다.

다. 하천에 의한 패러다임

태백지역 하천의 오탁은 하천수의 변색, 가스의 발생, 냄새의 발생으로 인지되고 있다. 한편 영양염료도 유입되며 영양염 농도는 호소등에서의 부영양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천물이 일정시간 이상 체유하면 영양염은 조류의 증식에 의해 소비되고 하상이나 물에 접하는 제방에 부착된 조류나 수초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 한편 광합성작용의 결과로서의 유기물

도 때로는 하천을 오탁시키게 되는데 이를 자탁작용이라고 한다. 또한 하천내에서 암모니아태 질소($\text{NH}_4^+ -\text{N}$)는 초화세균(硝化細菌; nitrifer)에 의해 초화(nitrification)되며 결과적으로 DO를 소비한다. 하천에서 자정작용이라고 불리는 정화과정은 오탁물이 뚜렷하게 변질되는 상태와 미생물이 관여하는 과정과 화학흡착에 의한 과정이 있다. 하천 자정작용의 중심반응은 유기물 저감이고 오탁물 농도의 1차반응으로서 표기된다.

라. 소규모 정화시설의 패러다임

수질개선에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생활잡배수나 미규제 소규모 사업장의 배수이다. 따라서 하천, 호소, 폐쇄성 수역등의 수질을 개선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하수도 보급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제조건에서 적합하도록 생활잡배수나 생활배수를 대상으로 하여 자연정화기능을 강화한 처리방식과 소규모 분산형 처리시설에 대한 정화법을 세 종류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로정화법(bio-filter process using small channel)은 수로에 플라스틱제로 된 접촉재등의 담체(擔體)를 넣어 부착미생물에 의해 정화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둘째, 토양정화법(soil infiltration trench prcess)은 배수를 토양중에 불포화침투시켜 토양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오탁물을 제거하는 본 처리법은 자연정화기능을 이용하므로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유지관리가 쉽고 무동력으로 유기물과 인 제거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장점으로 인하여 개별처리에 가장 적합한 정화법이다.

셋째, 산화지법(oxidation pond)은 배수를 못에 체유시켜 조류의 광합성에 의해 발생한 산소와 공기중으로부터 용해된 산소에 의해 호기성 상태를 유지하여 배수중의 유기물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처리방법으로 장점은, 동력비가 적게 들고 유지관리가 쉽다는 데 있다. 그 외에도 농지에 의한 자연정화기능과 저수지에 의한 자연정화기능등이 있다.

7. 하천 어메니티 유니트(Amenity Unit) 추진

친수성 하천환경조성의 계획근간으로 어메니티플랜의 기본사고에 의한 어메니티 유니트를 자연환경요소인 하천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변 어메니티 유니트에서 살펴볼때 태백의 도시 이미지는 발원지로서 하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산업의 중심센터로서 하천은 검은 천으로 변하여 시민의 접근을 제한시키고 시민과의 격리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할때 자연과의 접촉기회가 증대되고 쇠퇴되어 있는 태백의 이미지를 활성화시켜 생동감있는 공간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장소에 따라 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환경으로 토목공학적 시설을 한다. 즉 입지조건 및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 선, 면등의 다양하고 변화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다음으로 데크등을 활용하여 하천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휴게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하천과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주변과 조화되는 녹음을 제공하며 쾌적한 이미지를 고양시킨다.

끝으로 수변공간에는 자연적인 생태군락지를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여가장소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휴게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이를 집단화시켜 생태환경 보전을 극대화 시킨다.

둘째, 하천제방(뚝) 어메니티 유니트에서 하천제방은 범람시 방재기능을 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평상시에는 고수부지나 도로 기능과 교통수단 제공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이용되는 유용한 친수공간이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도시경관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제방길이가 긴 경우에는 시각적 단조로움을 감소시키면서 변화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경관의 질을 제고시키고 시가지에 접해 있는 제방사면은 교목, 관목 초화류를 조화있게 녹색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및 변화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변과 연계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면 주변시설과 제방을 연계하여 녹지축을 형성하고 제방상단부는 산책이나 조깅등을 위한 소로 및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간활용을 도모하며 제방의 휴식시설과 범람시 우수지 역할을 하는 고수부지를 연계하여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공간을 조성할 때 고수부지의 자연적인 생태군락을 자연교육, 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개성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수로 어메니티 유니트에서는 수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수생생물의 서식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생활오수와 우수의 배수는 분류식으로 하며 생활오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계통도를 직관화하고 하천 주변의 충분한 공간확보가 가능할 때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수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조성해 간다.

다음으로 직강하천의 수로는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인공시설물의 재료는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소재로 하여 수생생물의 안식처로서 물의 자정작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와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며 대기중의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위적인 시설은 자연석, 호박돌 및 단차를 이용한 낙차등으로 시각적인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높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다섯째 마당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자에 부여된 의지의 소산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지역발전 계획에 환경적 실천과제와 대책을 포함하여 계획의 실천을 통한 제2의 창조적 도시발전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는 지방의제 21의 구체적 실천과제로서 태백시가 발전하는 데 챙겨가야할 중대한 자치행정의지이자 주민참여 과제이다.

태백시의 지방의제 21을 위한 성공적인 출발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결론을 가장 기초적인 요목으로 제시한다면 첫째 도시의 개발과 발전을 단순한 환경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으로 높혀 도시기본계획, 정비계획, 환경계획등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화 추세를 확대 수용한다는 기초위에 구체적인 지표설정과 달성목표, 수단을 제시한 틀을 일구어 내야 하며 셋째 주민의 의식과 노력도 친환경쪽으로 돌려 환경생태도시 건설이라는 제2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있다. 자연환경 자원이 풍부하고 쾌적지수가 높은 태백시라는 도시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제가 아닌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부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는 멀지 않은 시대에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된다. 특히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에 따른 의제등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에 관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흥망이라는 개념에서의 무수한 개발이 될 수 없으며 지역경제 개발이 단순 논리적인 토지의 이용개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 태백이라는 도시는 관광개발로 인한 스산한 환경보다 더 어두운 오염의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개발중심의 사고와 정책만으로는 피폐해진 지역경제의 지수를 높일 수는 있을지언정 환경의 측면에서의 개발논리와는 상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개발

이 아니면 도시가 지탱할 수 없다는 논리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의 개발이 근원적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에 있었음을 볼때 지역민의 희망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생길수 밖에 없다. 그러면 개발과 보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자연성 논리가 일치할 때만이 가능하다.

자연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지역단위의 주민개발이 앞장서 가는 길이야말로 개발의 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 하므로써 자연친화적인 휴양지대로서의 도시발전 전략에 이를 수 있다. 즉 자연을 인간삶의 터전으로 삼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발전을 향해 지역자본과 지역민의 힘으로 자연파괴적 개발이 아닌 자연친화적 생태관광개발로 인본운동 투자운동, 복원운동을 삼위일체화 할때 제2의 도시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시대, 개발의 논리가 앞서가야 한다고 아우성일때 도시의 환경문제는 유기적인 복합관계에 있고 물질대사나 물순환을 통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등의 여러가지 형태의 환경문제가 상호간 연관되어 있다.

복잡해져 가는 도시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쾌적하고 여유와 윤택함을 주며 조화있는 도시환경을 창조하려면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인 체제로 보고 도시에 있어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그리고 순환성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입안하는 환경정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태백시는 광해방지시설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아울러 자연과의 조화로운 도시의 개발과 이상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이상적인 도시상을 「에코폴리스(ecopolis)」라고 정의한다면 미래의 태백시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로 가꾸는 노력을 다할 때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의 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에코폴리스 계획의 추진이 다양화 될 추세에 있음을 볼 때 오염된 하천을 맑게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계획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환경학자들은 이미 전 세계가 수질오염과 물 부족현상의 재난(災難)을 겪고 있다고 전망한다. '96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제4회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로 수자원의 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 시행등 물관리 프로젝트의 실행이 요구된다. 발원지의 도시 태백이 물과 산하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물의 보호가 자신과 가족, 사회, 국가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명의식과 책임감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진 태백시는 도시의 이미지를 발원지답게 유지관리하는 일이 앞으로 관광자원화하는 노력의 지름길임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방자치, 재정자립도, 지역경제회생 등의 당면과제를 불모로 개발의 명제를 환경보전보다 우선할 때 자연의 생태계는 파괴될 수 밖에 없으며 명제보다 전제가 우선하는 사회는 훼손과 발전이라는 등식의 사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웃 일본에서는 1990년 “다자연공법”이라는 토목기술을 발전시켜 시멘트로 개수한 하천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다자연 강 만들기”로 시도하여 자연에 근접한 강으로 되돌려 놓는 일에 적극적인 반면 우리의 주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생공법을 판단하거나 시행하는 곳은 눈뜨고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자연을 보전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지혜조차 찾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정책과 개발논리에 밀린 과도기가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상이다.

대형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하천과 산림을 헐어 훼손시키는 데는 앞장서도 지형에 따른 자연과의 조화노력은 할 수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유한한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자연상태로 되돌려 지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 한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한 세기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지금 개발이 주는 부정적인 문제를 살펴야 할 때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개발은 누가 해야 하는가 인간의 고향인 자연을 누가 살려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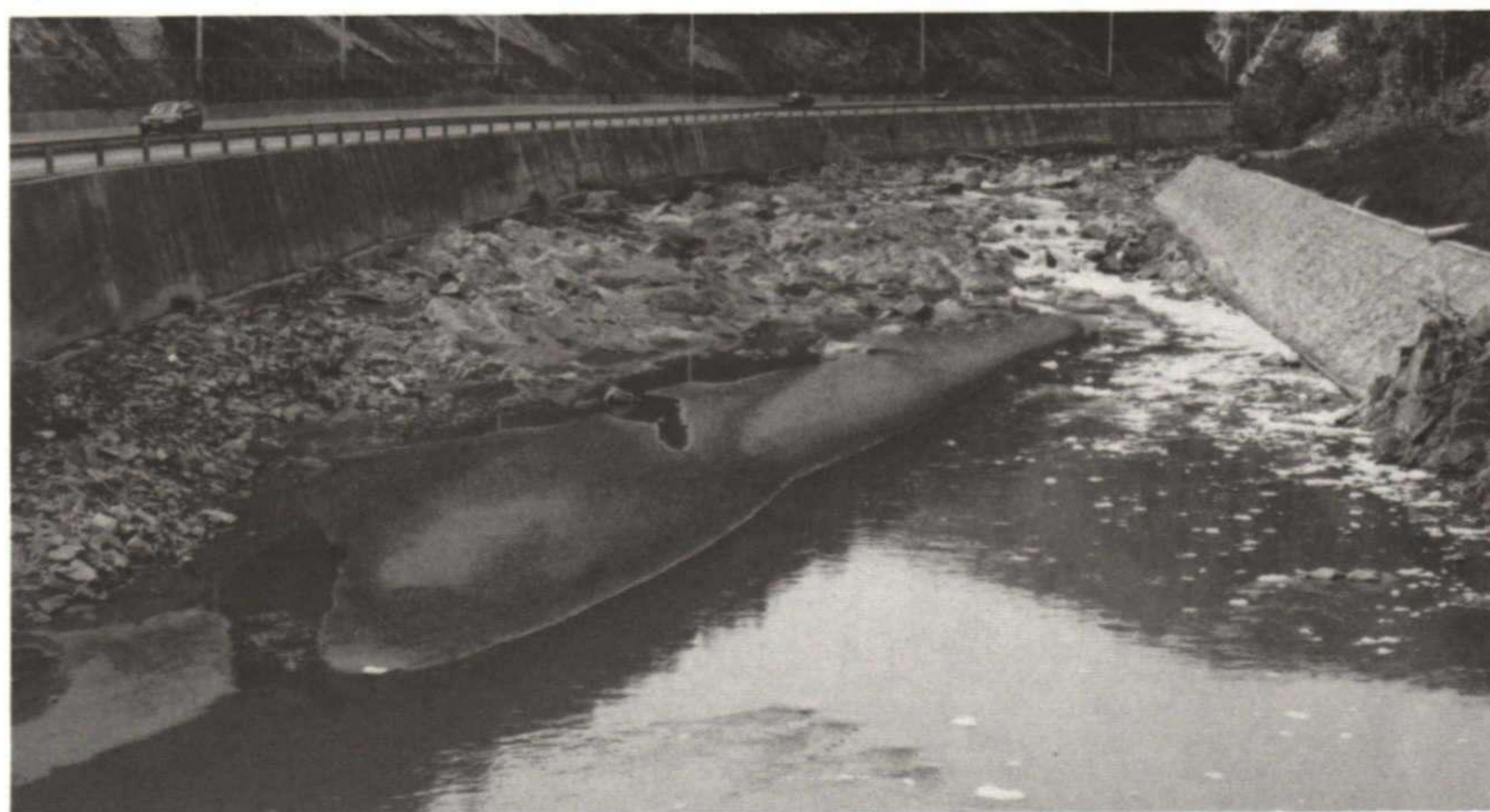
“탄광폐수오염에 따른 맑은 하천 가꾸기와 환경대책” 관련사진



폐광된 갱구로 부터 유출되는 폐수 (사내골 폐갱구현장)



하천정화시설 보막기사업(강원도산림환경연구소시행)



각종생활하수와 탄광폐수유입으로 오염된 하천현장(문백교부근)



탄광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옐로우현상)현상 (소룻골 입구)

햇 대 (日 竿) 考



김 강 산
(太白郷土史研究所長)

1. 서 론

우리나라 곳곳에는 '숫대' 또는 '짐대'라고 불리 우는 민간신앙의 구조물이 분포되어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수살대,¹⁾ 당산, 오릿대, 살대, 잔또배기, 화죽대 등으로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숫대와 짐대로 부르는 곳이 많다.

이 구조물은 나무나 돌로 된 기둥 위에 기러기나 오리 모양의 새를 깎아서 얹어 놓은 것인데 지역에 따라서 새의 숫자가 1마리에서 5마리로 되어 있다.

이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곳은 대개 서낭당이나 장승 옆이고 혹

은 별도로 세워져 있기도 하지만 모두가 마을의 평안과 풍년과 풍어를 가져다 주고 삼재를 막아준다고 하는 민간 신앙의 대상물이다. 이와 비슷한 구조물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만주 몽고 등 동북아시아 일대와²⁾ 에스키모, 아메리카 인디언 지역에서도 발견되고³⁾ 있으며 다같이 신성한 장소에 세우거나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숫대 또는 셋대 등으로 불리우는 이 구조물의 어원에 대해 삼한시대 천신을 제사하던 성역인 소도에서 유래 하였다는 설과⁴⁾ 숫아 있어서 숫대(聳木), 서 있다고 해서 설대(立木),⁵⁾ 긴 장대라고 진대(짐대),⁶⁾ 새가 있다고 셋대⁷⁾ 등으로 해석하고 살을 막아준다고 살대, 수살대로도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숫아 있다고 숫대(聳木)이요, 새가 있다고 셋대(鳥竿)이며, 서 있다고 설대(立木)요, 살을 막아 준다고 살대라고 하기엔 뭔가 아쉬운 점이 있고, 그것만으로는 몇 천년 우리겨레에게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되어 오기에는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 구조물의 구조적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원래의 기능과 명칭에 대한 어원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를 쓰는데 편의상 본고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햇대'라는 명칭을 처음부터 쓰게 됨도 미리 밝혀둔다.

2. 햇대의 유형과 구조

1) 햇대의 유형

햇대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지방마다 각기 그 이름은 다르지만 긴 기둥 위에 새가 얹혀 있는 형태이다. 그 기둥은 대개는 나무지만 때에 따라서는 돌이나 쇠로 된 것도 있고, 기둥 위에 얹혀 있는 새도 1마리 또는 3마리로 되어 있는데 드물게 2마리 또는 5마리도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햇대가 분포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살펴본다.

① 강릉시 진포배기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진포배기는 햇대 가운데 비교적 정교한 구조물이다. 지름 약10cm 높이 약 5m정도 되는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새를 올려놓기 위한 Y자형의 나무를 가로 놓힌 다음 그 위에 새 세 마리를 나무로 깎아 얹혀 놓은 형태이다. 특히 새를 깎을 때 웅이가 박힌 나무를 찾아 새의 눈이 되게 머리를 깎는 정교함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것이 월호평동에도 있다. 새는 한 방향으로 향해 있다. (圖 1)

② 삼척시 고천리 솟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에 있는 햇대는 강릉시에 있는 햇대와 그 모양이 같으나 다만 세마리의 새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圖 2)

③ 태백시 솟대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에 있는 햇대는 자연적으로 3가닥으로 갈라진 나무 위에 나무로 만든 새 세마리가 꽂혀 있다. 주위에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된 돌장승과 함께 있다. (圖 3)

④ 명주군 옥계면 오릿대

강원도 명주군 (강릉시)옥계면 낙풍리 바닷가에 있는 햇대는 여러차례 교체하면서 아예 쇠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쇠로 만든 오리 형태의 새 세마리를 용접하여 놓았다. (圖 4)

⑤ 속초시 외용치 솟대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외용치 마을에 있는 햇대는 긴 나무장대 위에 나무로 된 새 한마리가 못 박혀 있다.

강릉이나 삼척지방의 햇대와는 달리 Y자형 받침대가 생략되었다. 옛날에는 다른 곳 처럼 세마리의 새가 얹혀 있었는데 여러번 교체하고 또 중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세우면서 새가 한마리로 생략되었다고 한다. (圖 5)

⑥ 파주군 용미리 진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진지동에 있는 햇대는 지름 약15cm에 높이 약 4m 정도되는 나무기둥위에 나무로 된 기러기가 1마리 얹혀있다. (圖 6)₈₎

⑦ 광주군 퇴촌면 관음2리 솟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관음2리 마을 입구 제방 뚝 위에 있는 햇대는 나무장승과 함께 세워져 있다. 가는 나무 위에 Y자형 나무에 7 자형 나무를 깎아 끼운 단순한 형태의 새를 한마리 꽂아 놓았다. (圖 7)₉₎

⑧ 강화군 외포리 수살목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 있는 햇대는 수살목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특이한 것을 다른 지방에서 보기 힘든 5마리의 새가 다섯 갈래로 갈라진 나무가지에 꽂혀 있는 것이다. 오방에서 오는 살을 막아주기에 새가 5마리라 한다. (圖 8)₁₀₎

⑨ 부안군 서문안 당산

전북 부안읍 서외리에 서문안 당산은 돌기둥 위에 돌로 깎은 새 1마리가 얹혀 있는 햇대이다.

중요 민속자료 제18호인 이 구조물은 인근의 동종리에 있는 중요민속자료 제19호인 동문안 당산과 쌍을 이루는 것이다. (圖 9)₁₁₎

⑩ 부안군 대벌리 솟대당산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벌리에 있는 솟대 당산은 지방민속자

료로 지정된 것으로 돌기둥 위에 돌로 만든 새2마리가 얹혀 있는 특이한 햇대이다. (圖 10)

⑪ 남원군 주천면 솟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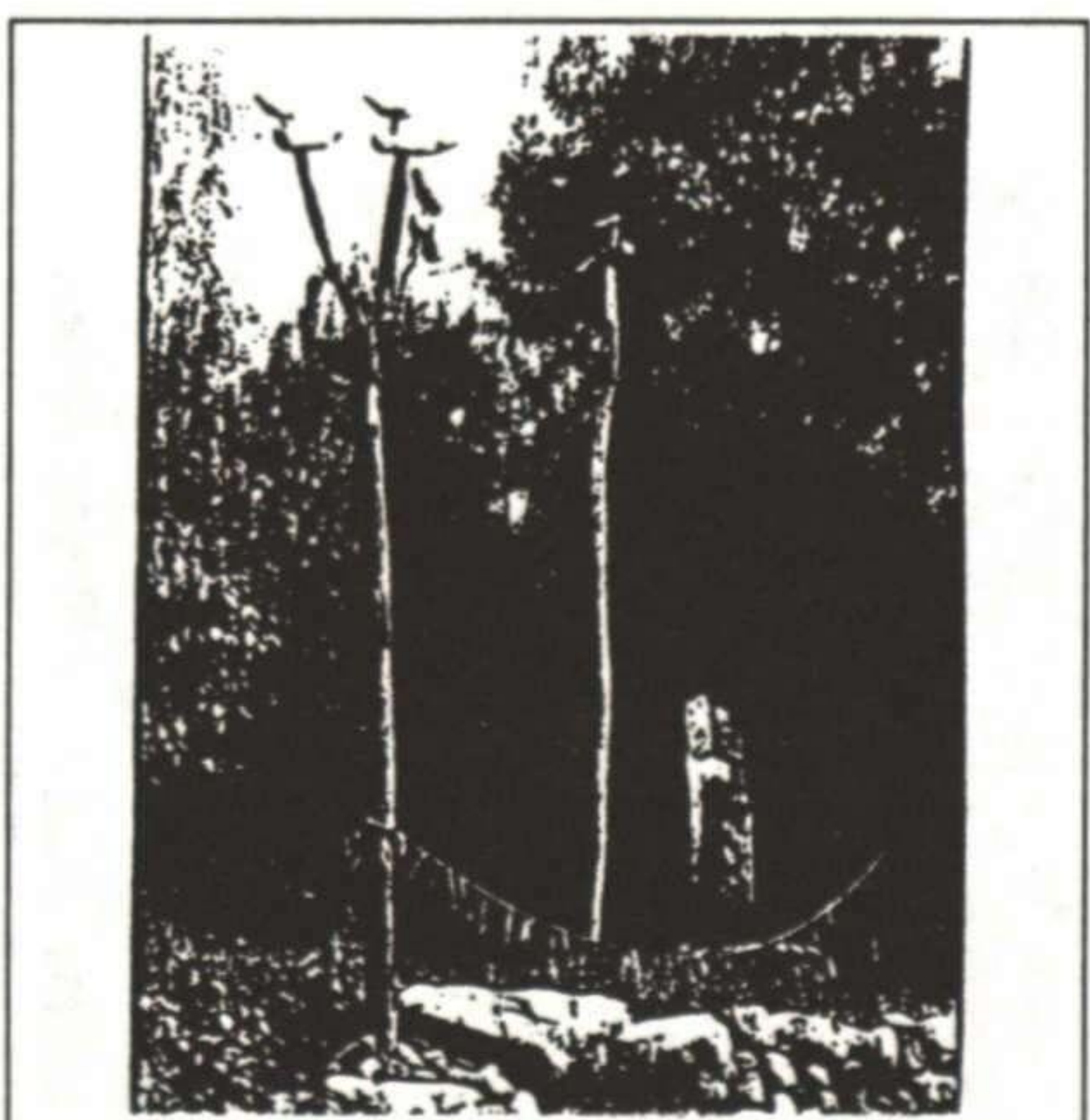
전북 남원군 주천면에서 있는 솟대는 나무기둥위에 기러기로 보이는 새 세마리가 얹혀 있는데 강릉의 진또배기와 흡사한 햇대이다. (圖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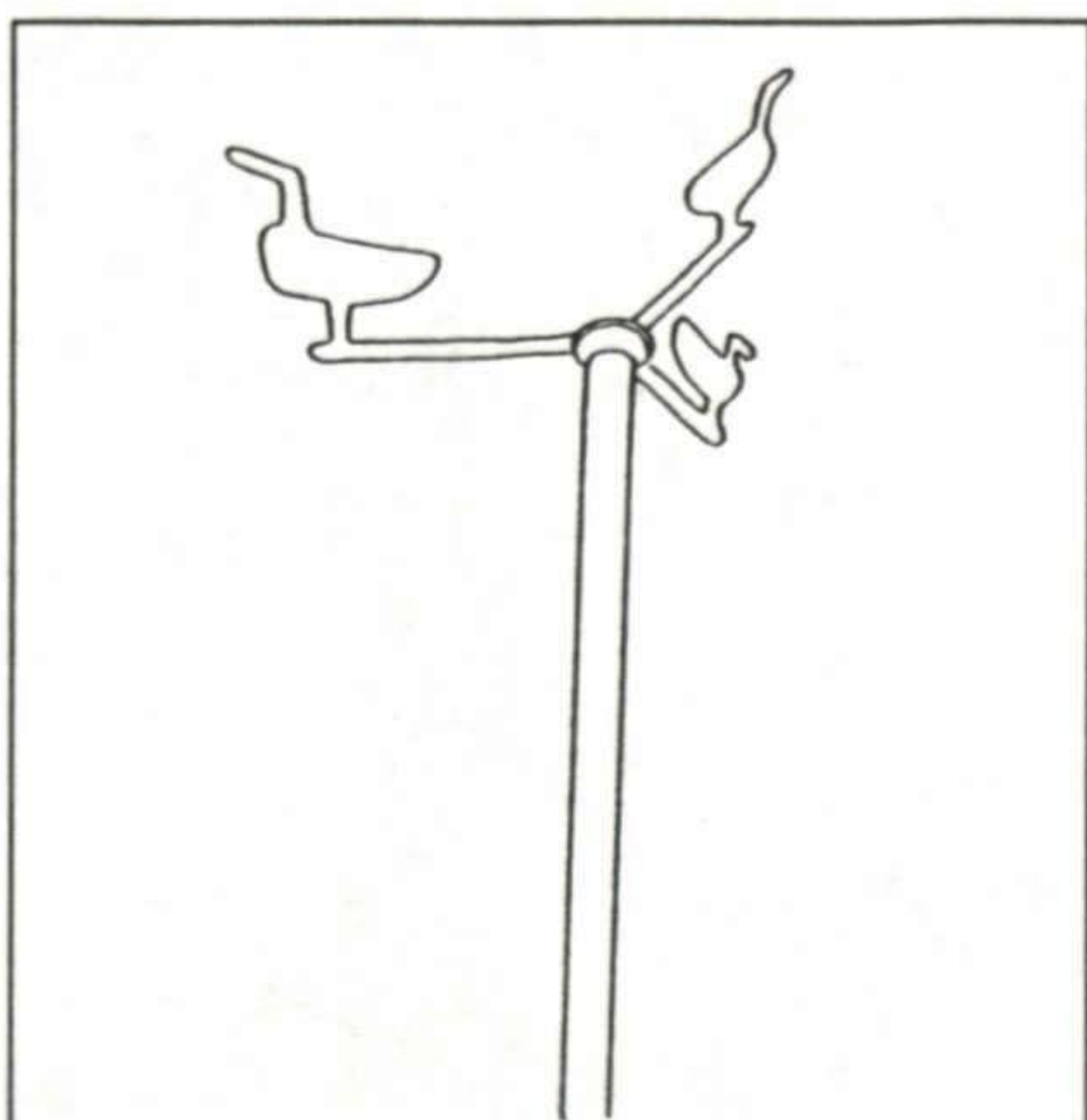
(圖 1) 강릉시 강문동 진또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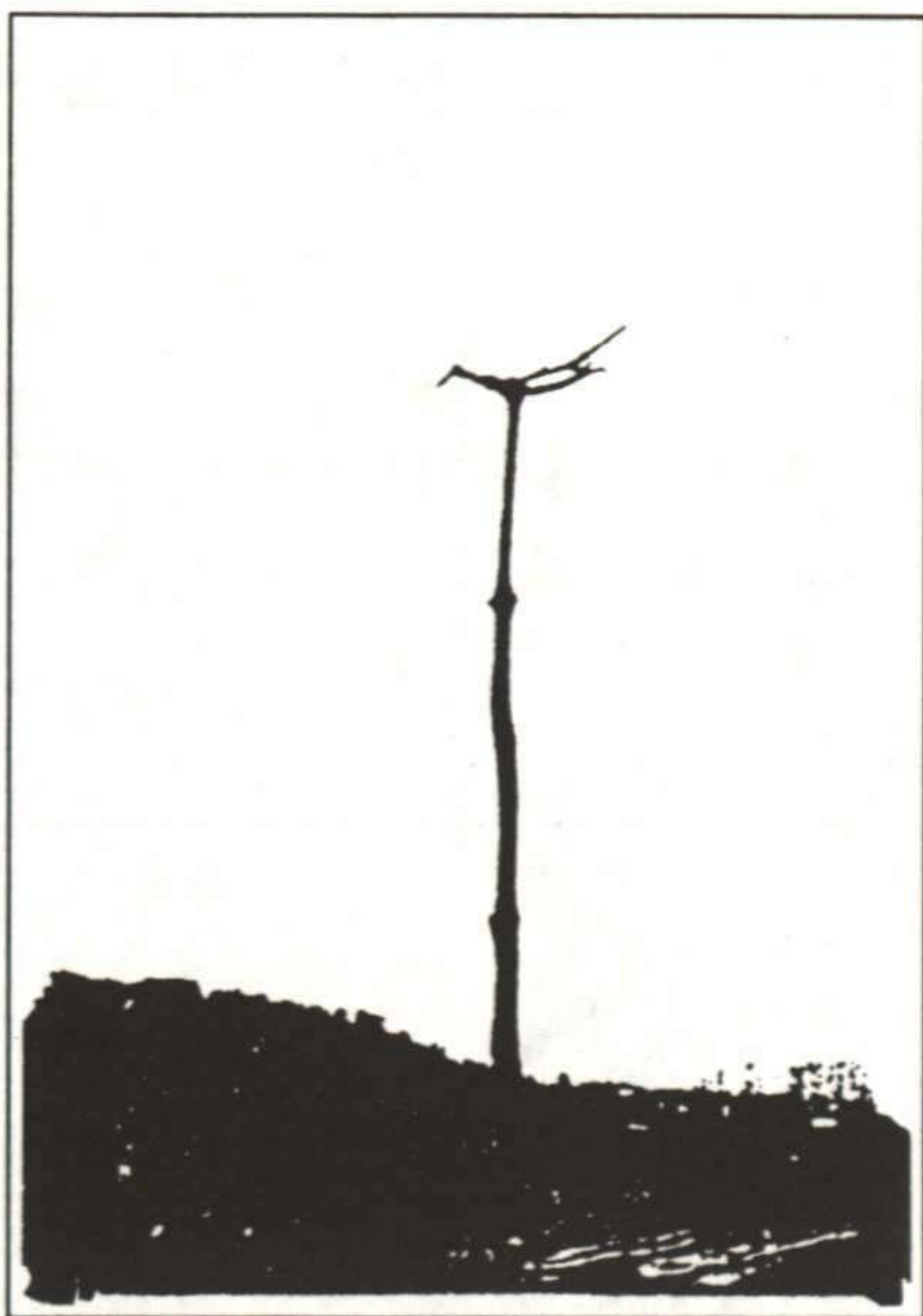
(圖 2) 삼척시 미로면 솟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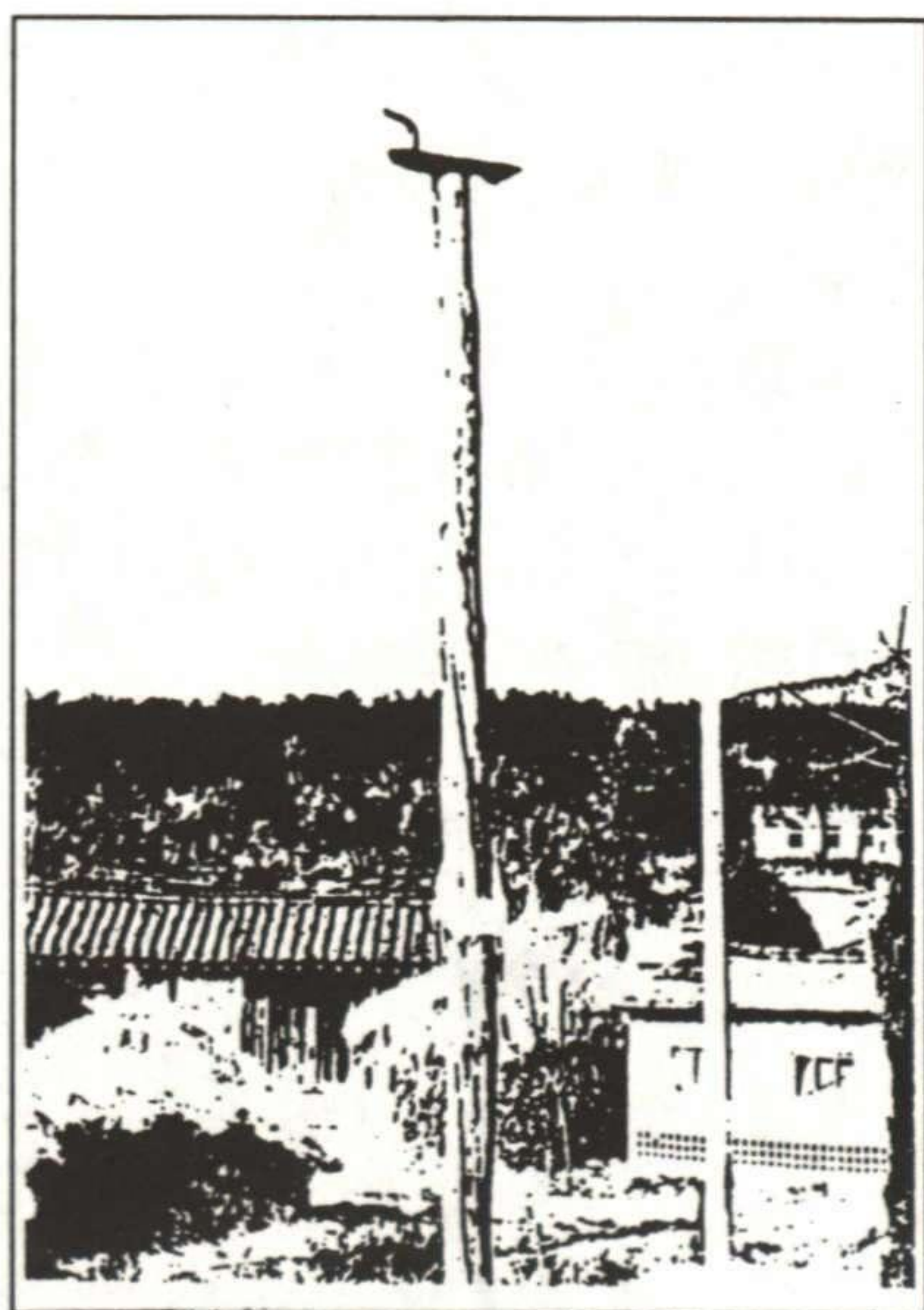
(圖 3) 태백시 소도동 솟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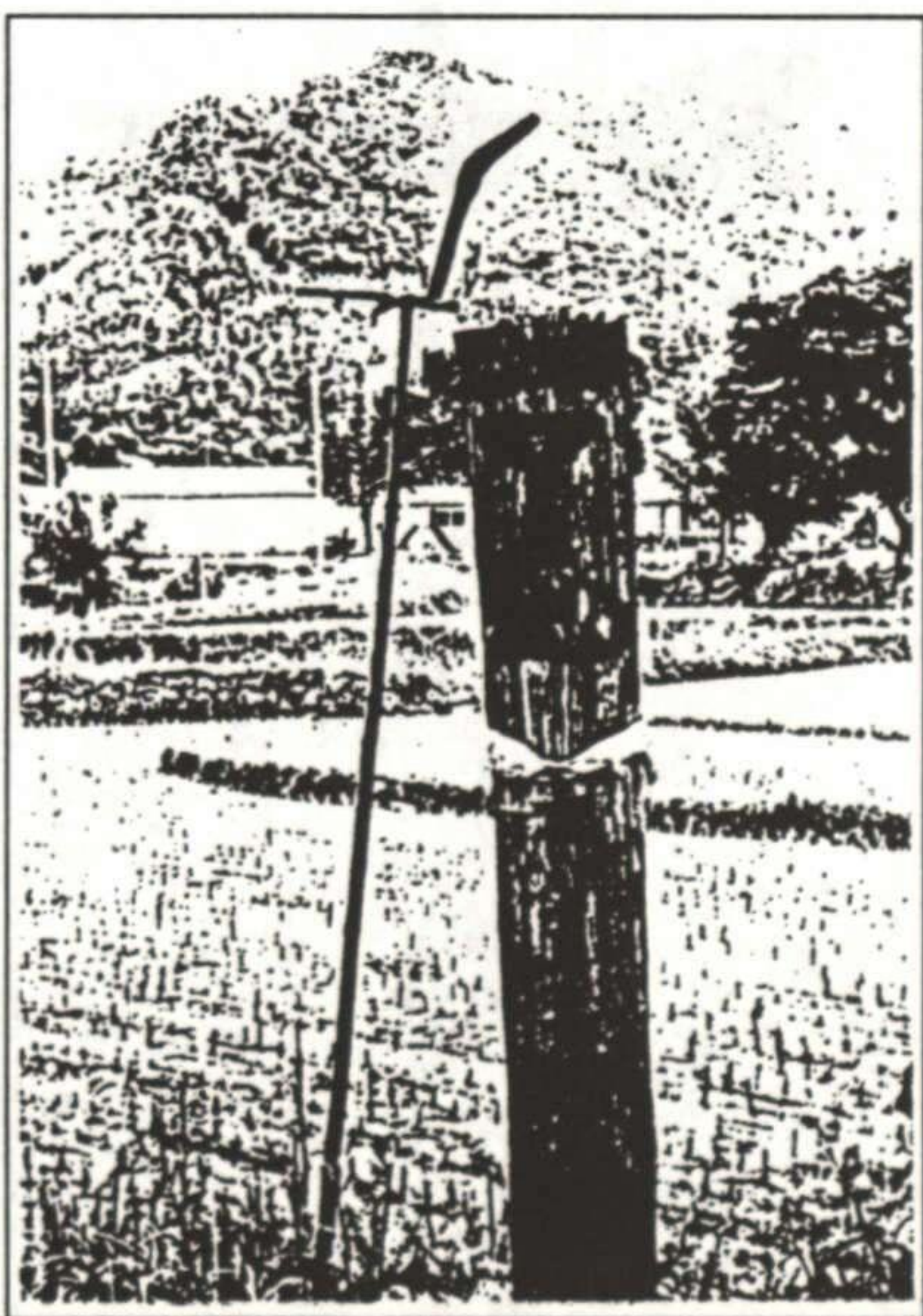
(圖 4) 명주군 옥계면 오릿대



(圖 5) 속초시 대포동 솟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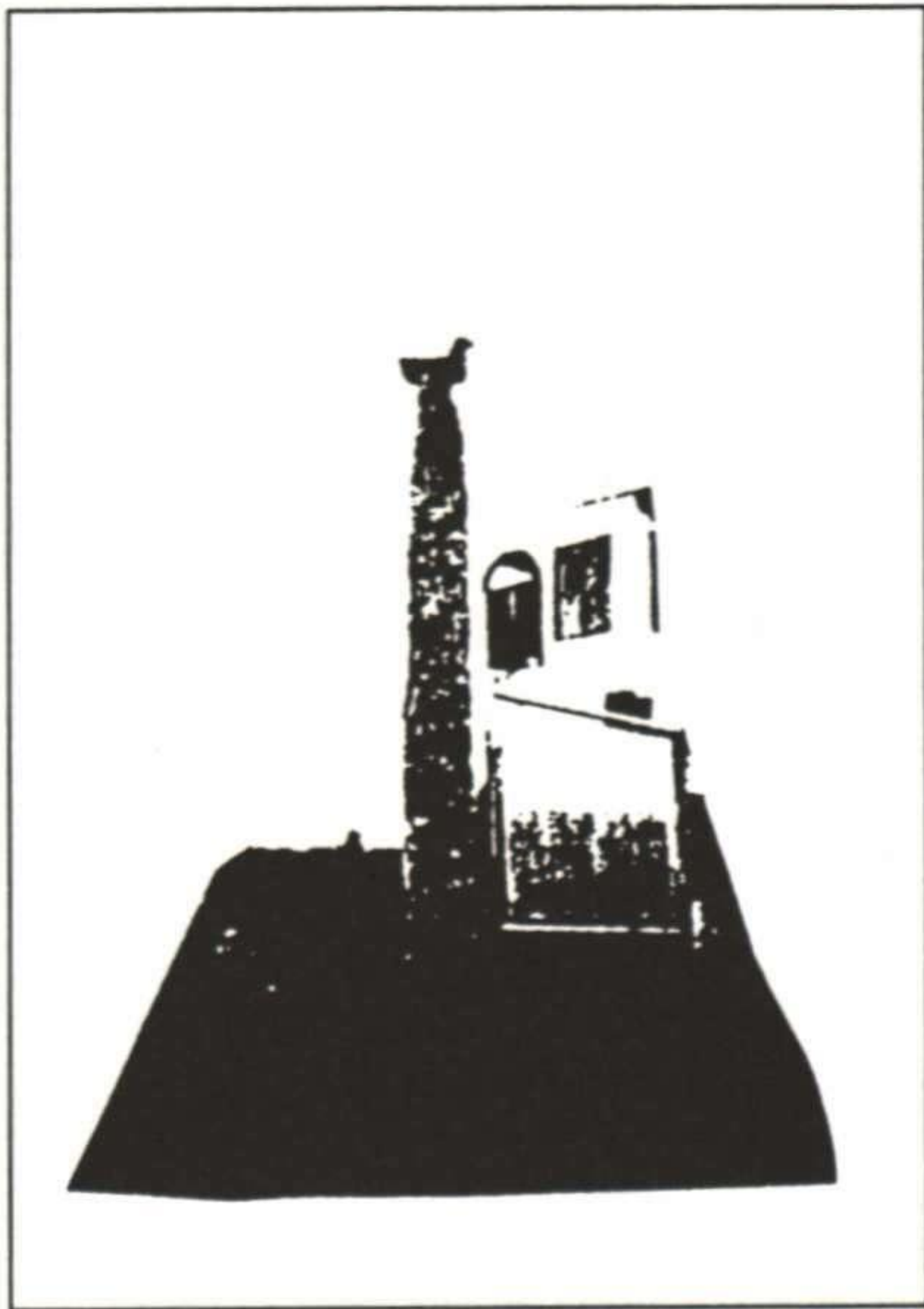
(圖 6) 파주군 광탄면 진대



(圖 7) 광주군 퇴촌면 솟대



(圖 8) 강화군 내가면 수살목



(圖 9) 부안군 서외리 당산



(圖 10) 부안군 행안면 솟대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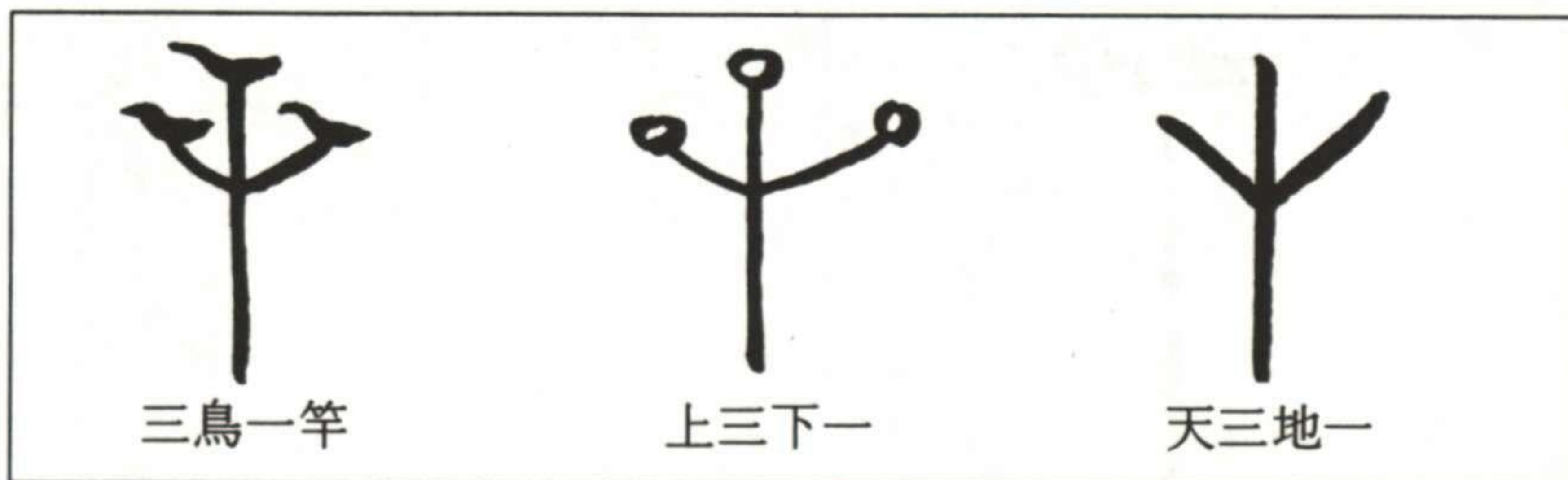
(圖 11) 남원군 주천면 솟대

2) 햇대의 구조

햇대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어서 一鳥一竿, 二鳥一竿, 五鳥一竿 등이 있으나 대표적인것이 三鳥一竿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강원도 속초시 외용치 마을에 있는 햇대의 경우는 예전엔 세마리의 새가 기둥 위에 있었으나 몇번 교체 하면서 요즘엔 한마리의 새로 변했다고 한다.

햇대의 기본 구조는 긴 장대 위에 새가 얹혀 있는 모양인데 대개는 그 새가 세마리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햇대의 기능이 삼재를 막아주고 마을의 안녕과 풍농과 풍어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삼재의 3과 새 세마리의 3이 짝이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햇대의 기본구조를 三鳥一竿으로 보면 위가 셋이고 아래가 하나인 上三下一 또는 하늘은 셋이고 땅은 하나인 天三地一로 써 그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圖 12)

3. 삼두일족응(三頭一足鷹)과 헛대의 구조적 형태의 비교

1) 삼두일족응(三頭一足鷹)

삼두일족응은 한국의 전통 삼재 부적(三災符籙)에 나타나는 머리 셋에 다리가 하나인 새이다.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괴로운 것이 三災八難이며 관재구설 등은 만나기 싫어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이겨 내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지라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거룩한 존재나 신비한 靈力에 의지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다. 부적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다. 부적은 붉은 글씨로 그려지는데 사악한 것이 붉은 색 곧 밝은 해의 색깔을 싫어한다는 뜻에서 그리한다.

부적은 대개 사악한 귀신이 두려워하는 문자를 도식화 하여 그려지는데 가끔 그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든다면 호랑이나 닭, 매 등의 그림이 이에 속하는데, 그림으로써 삼재를 쫓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삼두일족응이 그려져 있는 부적이다.

三頭一足鷹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머리 셋에 다리가 하나인 기묘하게 생긴 상상의 매로써 머리 셋이 세가지 재앙(三災)을 하나씩 잡아 쪼아 죽인다는 발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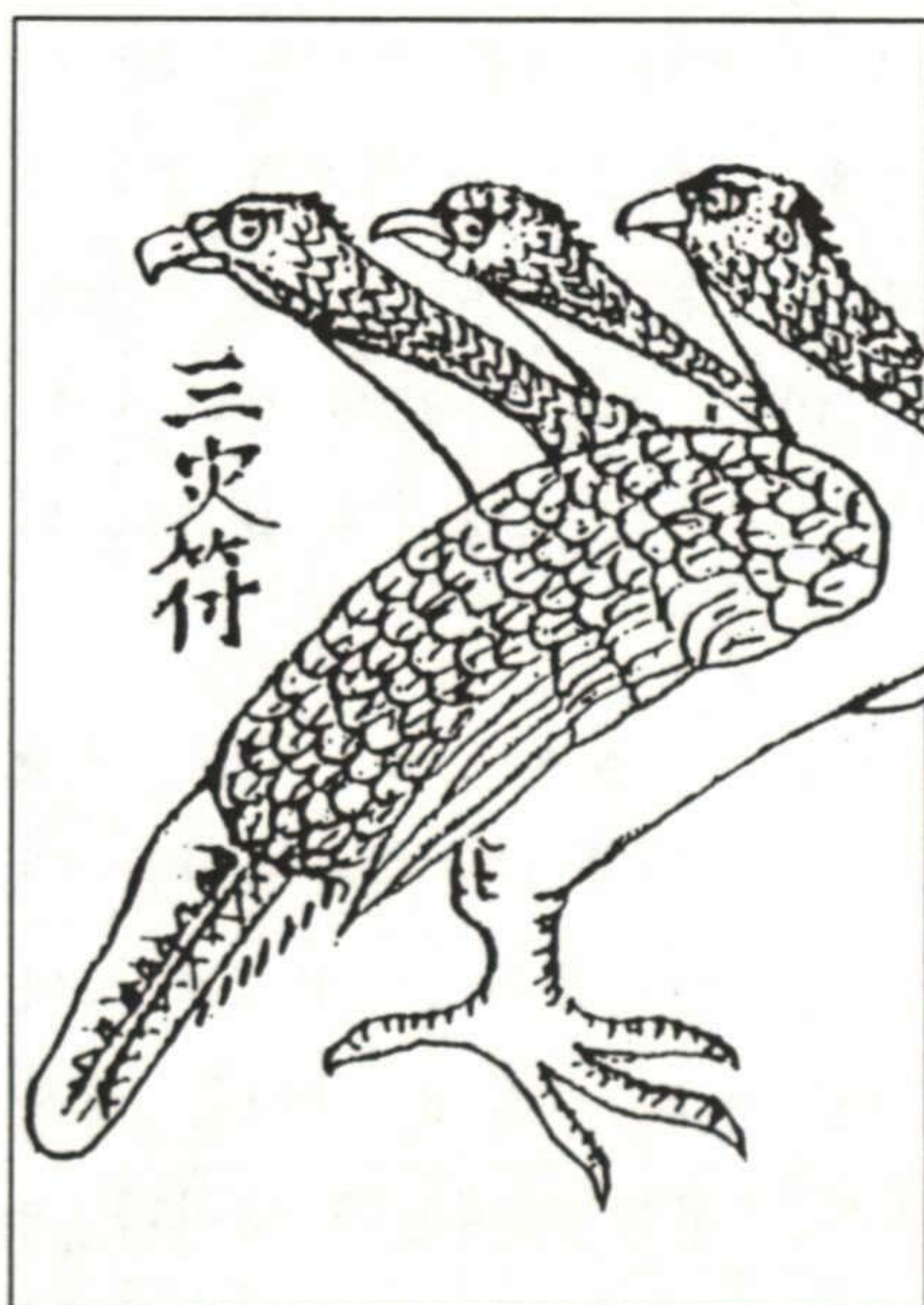
그래서 삼두일족응이 그려진 부적에는 매 옆에「三頭一足鷹, 啄盡三災鬼」란 글이 추가로 써져 있다. 어떤 부적에는 삼재귀신을 귀신으로 보지 않고 벌레 쫄음으로 봐서 삼두일족응이 그 벌레를 쪼아 죽이라는 뜻으로「三頭一足鷹啄盡三災虫」이라 써놓고 삼재를 뜻하는 벌레까지 그려 놓고 있다. 그 부적을 몸에 지니든가 문이나 벽에 붙여 놓으면 삼재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며 혹시 삼재귀신이 들어오면 머리셋인 매가 그 귀신을 쪼아 없애 버린다는 것이다.



(圖 13) 三頭一足鷹 (三災符籙)



(圖 14) 三頭一足鷹 (三災符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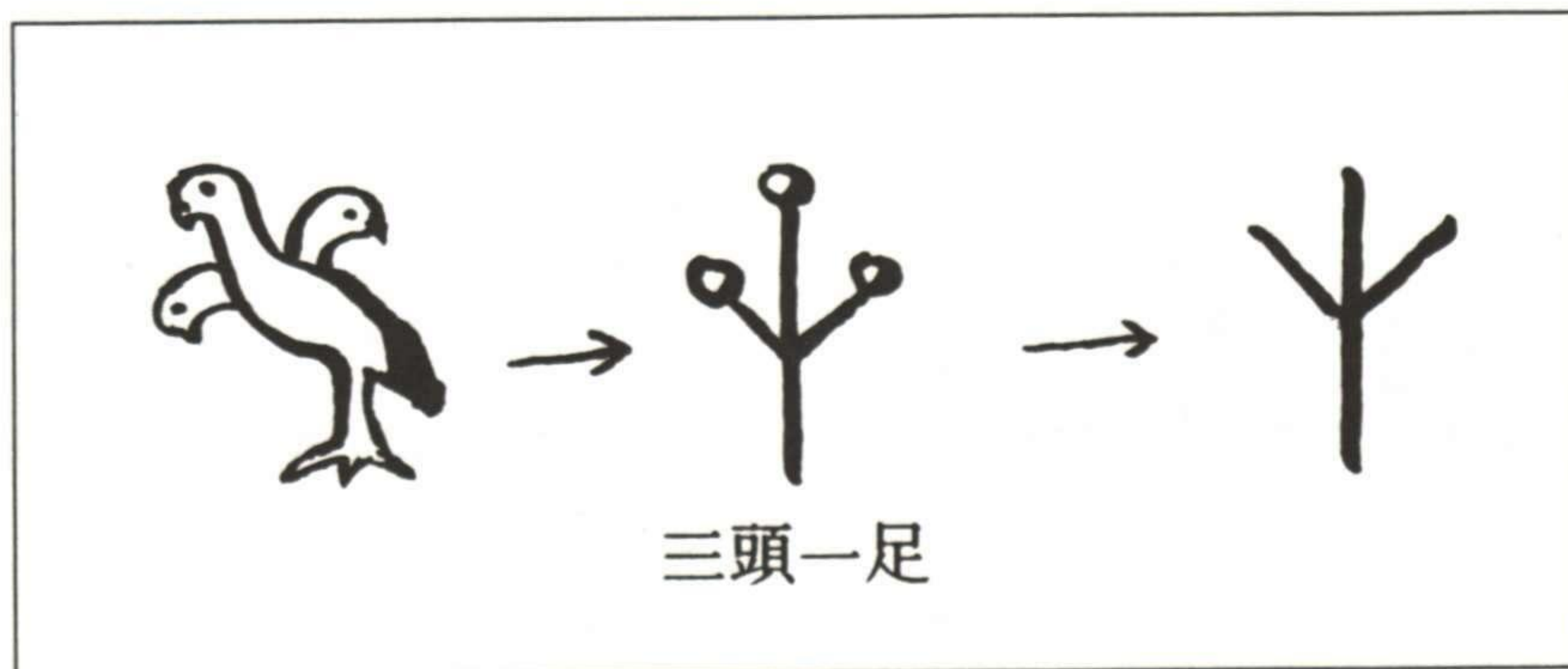
(圖 15) 三頭一足鷹 (三災符籙)₁₂

2) 삼두일족응 (三頭一足鷹)의 구조

삼두일족응은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머리셋에 다리가 하나인 三頭一足の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상의 새인지는 모르지만 옛 사람들은 삼두일족응을 그려서 삼재를 물리치고자 했다.

삼재(三災)는 세가지 재앙이나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새가 있다면 머리 셋인 삼두일족응이 제격일 것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간직하여 삼재를 물리치고자 했던 것이다.

삼두일족응의 구조는 삼두(머리 셋)와 일족 (다리 하나)이라는 형태인데 그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圖 16)

3) 三頭一足鷹과 햇대의 구조적 동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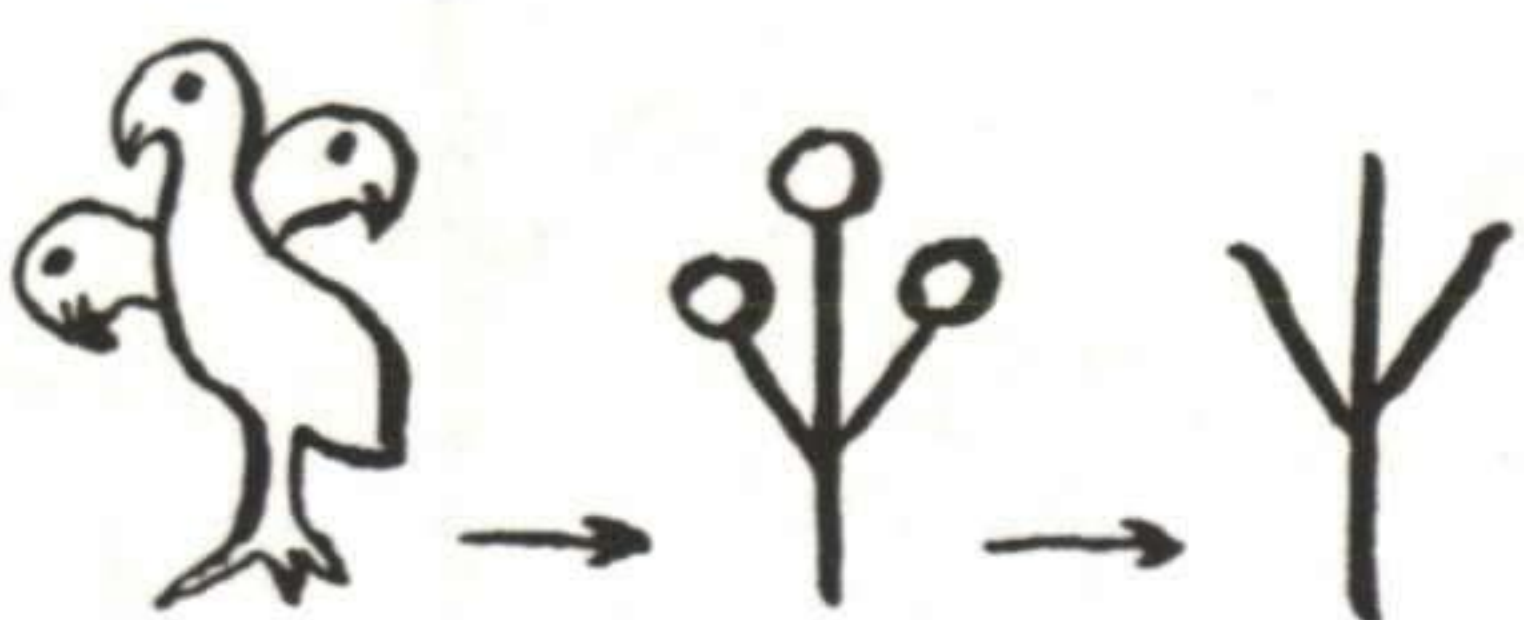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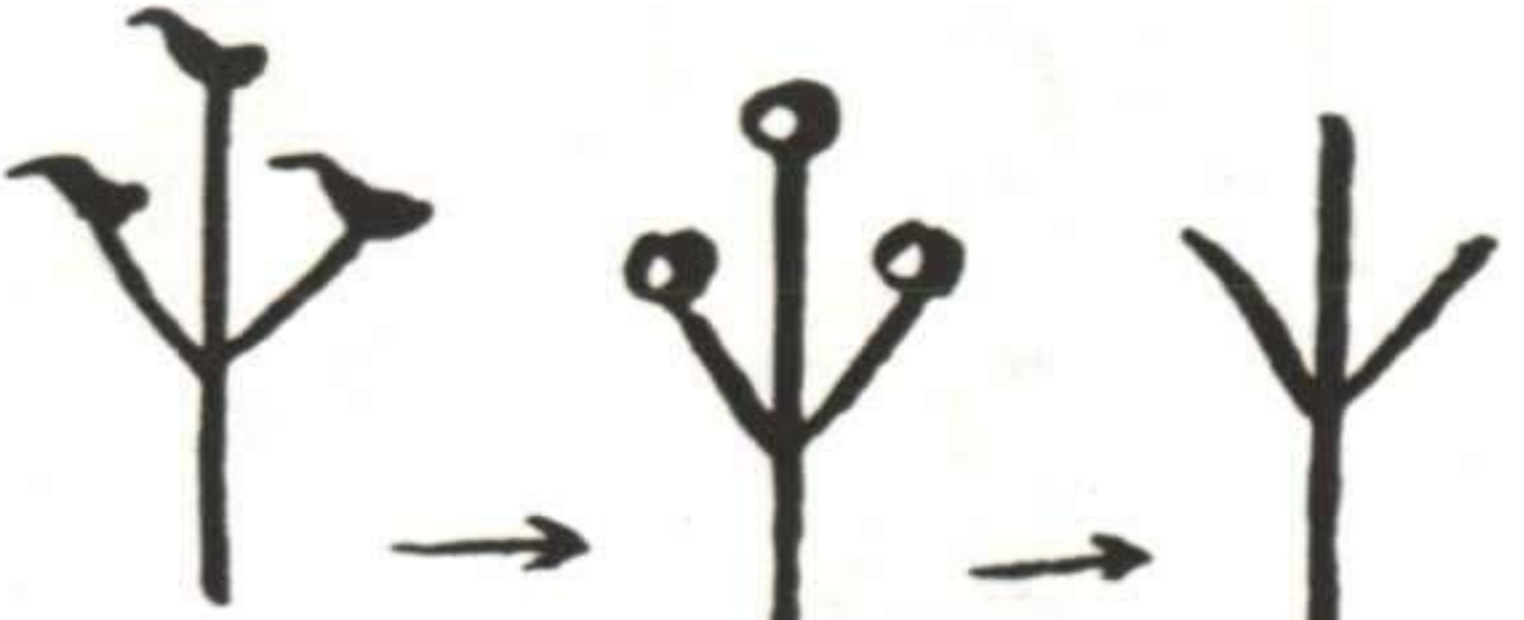
앞 글에서 보듯이 햇대는 하나의 기둥 위에 세마리의 새가 있는 구조이고 삼재부적에 나오는 삼두일족응은 머리 셋에 다리가 하나인 구조로 그려져 있다.

햇대는 삼재를 막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삼재부적의 삼두일족응과는 기능과 구조면에서 동일하다고 하겠다.

햇대의 기둥하나와 삼두일족응의 다리 하나나 햇대의 새 세마리와 삼두일족응의 머리 셋과는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삼재를 막아주고 마을의 안녕과 풍농, 풍어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 마을 어귀나 신성한 장소에 세웠던 햇대의 기능이 삼재를 막아주는 부적으로 그 기능이 변형된 것이라 본다. 동구 밖이나 마을의 신성한 곳에 붙박이로 서 있던 햇대의 새가 더욱 현실적으로 인간의 몸에 지니거나 집안의 벽에 붙여지게 되는데 햇대의 기러기나 오리에서 매서운 매로 변형되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햇대와 삼재부적의 삼두일족응은 구조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햇대의 구조가 $\Psi \rightarrow \text{☯} \rightarrow \text{☯}$ 인데 비해 삼두일족응도 $\text{☯} \rightarrow \Psi$ 로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삼두일족응	햇 대
	
三頭一足	三鳥一竿

(圖 17)

4. 三足鳥와 三頭一足鷹과 햇대의 구조적 동일성

1) 삼족오(三足鳥)

淮南子, 卷七 精神訓에 보면

「해 속에는 준오가 있다.」(日中有踰鳥)라고 하며, 그 註에 이르기를 「준(踰)은 준(蹲)과 같다. 삼족오(三足鳥)를 준이라 이르고 읽

기는 준이라 한다. 웅크려 우뚝 선 것이 준이다」(踞猶蹲也謂三足鳥讀踞巍之踞)

라고 하였다.¹³⁾

준오(踞鳥 : 존오)는 곧 삼족오로써 세발 까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해 속에 산다는 것이다.

山海經의 大荒東經에 보면

「양곡¹⁴⁾ 위에 부목이 있는데 한 개의 해가 바야흐로 이르자 한 개의 해가 바야흐로 떠오르는데 모두가 까마귀가 실려있다.」(湯谷上有扶木一日方至一日方出皆載于鳥)

라고 했다.¹⁵⁾

淮南子에는 해속에 준오 즉 세발까마귀(三足鳥)가 있다고 했고 산해경에는 해속에 까마귀가 있다고 한것이다. 한국 중국이나 일본 등은 모두 해속에 세발 까마귀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松南雜識의 日月 雌雄에 보면

「해는 태양의 정으로 까마귀가 살고 있다.」(日者太陽之精積而成鳥)라고 하였다.¹⁶⁾

해 속에는 까마귀가 살고 달 속에는 토끼 또는 두꺼비가 산다는 것인데, 특히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삼족오가 그려진 예가 많다. 이 밖에도 해를 금오(金鳥)라 하고 달을 옥토(玉兔)라고 부르며 해를 금아(金雅)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는 까마귀를 불길한 새로 여기지만 적어도 신라시대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까마귀는 길조요 상서로운 새로 등장한다. 까마귀는 고대신화에서 태양 속에 살며 불사조이자 태양자체로 표현되고 신의 사자로 상징되는 새이다.



(圖 18) 天王地神塚 三足鳥



(圖 19) 遇賢里中墓 三足鳥



(圖 20) 舞踊塚 三足鳥



(圖 21) 雙楹塚 三足鳥



(圖 22) 角抵塚 三足鳥



(圖 23) 비조문 취호의 三足鳥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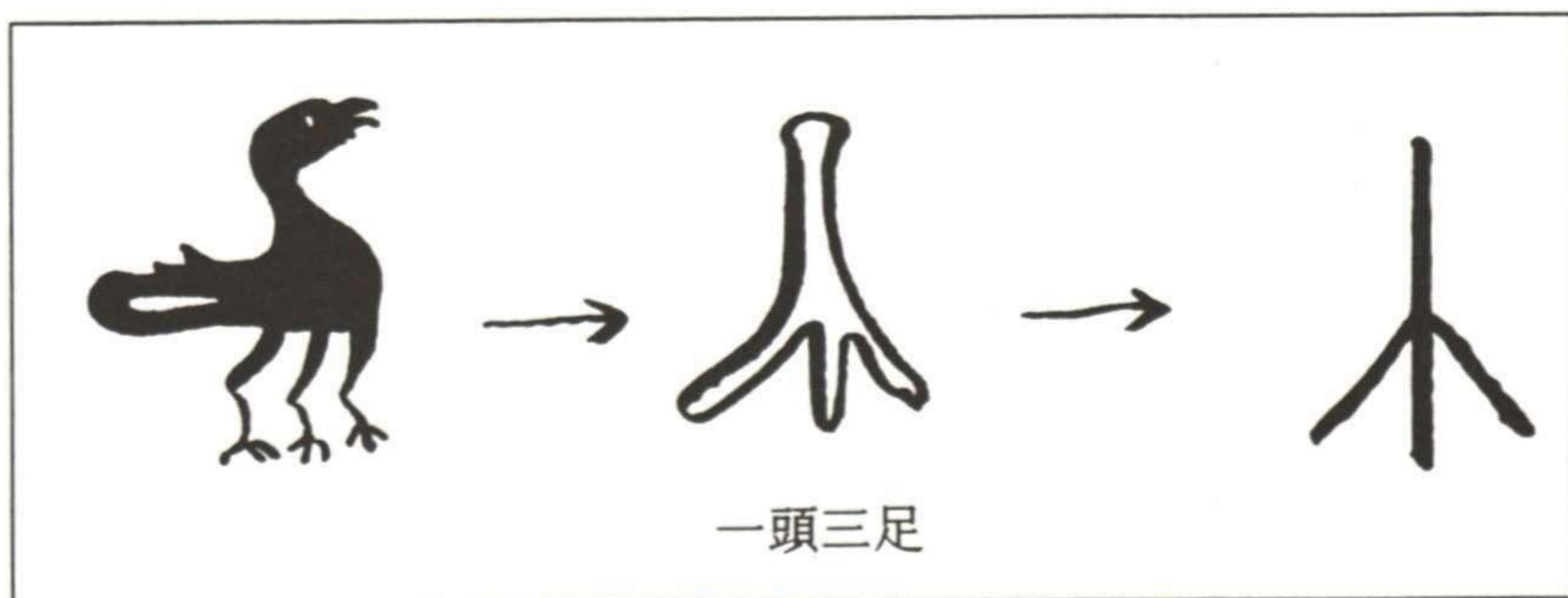
(圖 24) 국립박물관에서의 연
아! 고구려.. 전의 심볼마크 三足鳥

2) 삼족오(三足鳥)의 구조

삼족오는 세발 가진 까마귀로 검은 몸체에 머리는 하나에 발이 셋인 새이다. 고구려 무용총 벽화와 쌍영총 벽화 등에 삼족오가 나타나는데 모두 검은 몸체에 머리는 하나 발은 셋으로 그려져 있다.

삼재도회(三才圖會)의 의복(衣服) 일권(一卷)에 보면 우서십이장 복지도(虞書十二章服之圖)라 하여 천자의 의복에 들어가는 문장에도 해의 그림 속에는 삼족오가 그려져 있다.¹⁸⁾

이러한 그림들에서 삼족오의 모양은 하나의 머리에 세 개의 발을 가진 일두삼족오(一頭三足鳥)의 구조로 나타난다.



(圖 25)

3) 삼족오(三足鳥)와 삼두일족응(三頭一足鷹)과 햇대의 구조적 동일성

삼족오(三足鳥)는 머리하나에 발이 셋인 새로 일두삼족(一頭三足)의 구조이며 이것을 도식화 하면 人의 형태이다.

앞 글에서 보듯이 三頭一足鷹과 햇대는 각기 三頭一足과 三鳥一竿의 구조로 이것을 도식화하면 Y의 형태이다. 여기에서 삼족오의 구조인 일두삼족의 형태인 人가 반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삼족오(三足鳥)는 머리가 하나인 대신에 다리가 셋이고 삼두일족응(三頭一足鷹)과 햇대(日臺)는 각기 머리 셋과 새 세마리이며 하나의 다리에 하나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 구조는 머리와 다리 곧 상하, 천지가 서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머리와 다리, 상하, 천지는 서로 통할 수 있음도 보여준다. 하늘은 땅을 주재하니 땅 쪽으로 영향을 주는 人의 구조이고 땅은 하늘의 정기를 받는 입장이니 Y의 구조가 되는 것이

다. 그러니 상하가 바뀌긴 해도 人 와 丫 는 같은 구조로 볼 수 밖에 없다.



(圖 26)

5. 부상 (扶桑)과 햇대

1) 부상 (扶桑)

부상은 동해바다 한 가운데 있는 신령한 뽕나무로 해가 뜨는 나무라고 한다.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는 그냥 뜨는 것이 아니라 부상나무 밑에서 올라와 부상나무 꼭대기에 이르러서는 하늘을 굴러서 서쪽의 咸池¹⁹⁾라는 곳으로 들어 간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전설이다.

부상나무는 동해바다 한가운데에 있기에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중국사람들은 부상국(扶桑國)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상나무에 관한 전설은 그 뿌리가 오래 되었기에 여러 문헌과 문자, 그리고 문양과 그림 등으로 기록되고 표현되었다. 이것을 문헌과 문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문헌에 나타나는 부상(扶桑)

山海經의 海外東經에 보면

「양곡(해 뜨는 곳)의 위에는 부상나무가 있는데 열개의 해가 목욕하는 곳이다. 흑치국의 북쪽에 있는데 물 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어 아홉개의 해는 아랫가지에 있고 한 개의 해는 윗 가지에 있다.」(湯谷上有扶桑十日所浴在黑齒北居水中有大木九日居下枝一日居上枝)

라고 하여 해 뜨는 양곡에 부상나무가 있고 부상나무에는 열개의 해가 달려 있다고 했다.²⁰⁾

淮南子 卷四 지형훈에 보아도

「부상나무는 양주(해 뜨는 곳)에 있는데 해가 비치는 곳이다.」(扶木在陽州日之所曠)

라고 하면서 註에 이르기를

「부목은 부상나무다. 양곡(해뜨는 곳)의 남쪽에 있다. 쥘다는 것은 햇빛이 비치는 것이다. 양주는 동쪽이다.」(扶木扶桑也在陽谷之南曠猶照也陽州東方也)

라고 하였다.²¹⁾

扶桑을 搏桑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說文解字에 보면 搏자에 대해 「부(搏)는 부상(搏桑)이며 신목(神木)이다. 해가 뜨는 곳이다.」(搏搏桑神木日所出也)

라고 하면서 註에 이르기를²²⁾

「해가 처음 뜨는 곳은 동쪽인데 양곡의 부상나무에서 솟는다. 부상은 약목이다. 그런 즉 부상이 곧 약목이다.」(日初出東方湯谷所登搏桑桑木也然則搏桑卽桑木也)

라고 하였으니 扶桑이나 搏桑은 같은 뜻으로 해가 뜨는 나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상을 약목(桑木)이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강희사전(康熙字典)에 보면,²³⁾

「부상은 약목이다. 누에가 신성한 잎을 먹는 바 그러므로 약(桑)자 아래 목(木)을 더하므로써 달라진 것이다.」(搏桑桑木也蠶所食神葉故加木桑以下別之)

라고 하면서 註에 이르기를

「약(藥)또한 나무 이름이니 동쪽에 있는 자연의 신목이다。」(藥亦木名東方自然之神木)라고 하였다.

淮南子の覽冥訓에도

「아침은 부상나무에서 출발하고 해는 낙당으로 들어간다。」(朝發搏桑日入落棠)

그리고 그 註에 이르기를

「부상은 해가 뜨는 곳이고 낙당은 산 이름으로 해가 들어가는 곳이다。」(搏桑日所出也落棠山名日所入也)

라고 하였으니 부상나무는 해가 솟는 나무임을 알겠다.

이러한 문헌과 전설에 의하여 해는 부상이라는 동해 한 가운데에 있는 신비한 뿔나무에서 떠오른다고 믿게 되고 그것이 민화 등에 나타난다. (圖 27)



(圖 27) 부상나무를 그린 민화

② 문자(文字)속에 나타나는 부상(扶桑)

앞 글에서는 전설이나 문헌상에 나타나는 부상나무에 대해 알아 보았으나 여기에서는 그 해가 뜨는 부상나무가 문자화 된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수천년 전부터 해는 부상나무에서 뜬다는 전설이 있었기에 상형 문자인 漢字에서는 당연히 그 전설을 바탕으로 한 글자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說文解字를 보면 東자에 대해 이르기를

「동은 해가 나무가운데 있음을 좇은 것。」(東從日在木中)

이라고 하며 註에 이르기를²⁴⁾

「나무(木)는 부상나무다. 해가 나무 가운데 있으면 동(東)이라 하

고 나무 꼭대기에 있으면 고(杲)라 하고 나무 아래에 있으며 묘(杳)라 한다.」(木樽木也日在木中曰東在木上曰杲在木下曰杳)

라고 하였다. 같은 책의 묘자에 대해 찾아 보면

「고(杲)는 밝음이다. 나무 위에 해가 있음을 좇은 것이니 읽기는 고와 같다.」(杲明也從日在木上讀若藁)

라고 하며 그 註에 이르기를


「해가 나무 가운데 있는 것을 홀(昃:새벽)이라 하고 해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단(旦:아침)이라 한다.」(日在木中홀也 日在木上旦也)

라고 하였다.

위 글을 살펴보면 부상나무(木)와 해(日)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가 東자이며 杲자이며 杳자인 것을 알 수 있다. 東은 해가 부상나무의 가운데에서 막 떠오르려 하는 형상이고, 杲는 해가 부상나무 꼭대기로 올라온 것이다. 杳자는 해가 저서 서쪽에 있다고 하는 약목(若木) 아래로 내려온 모양이니 적어도 東字와 杲자는 부상나무를 문자로 상형한 예이다. 東자와 杲자와 杳자를 아래의 도표대로 구성하면,



(圖 28)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솟았다가 해가 지는 과정 모두가 나무로 부터 이루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星字의 古文을 보면  으로 되어 있으니 부상나무에 해가 여럿달려 있는 형상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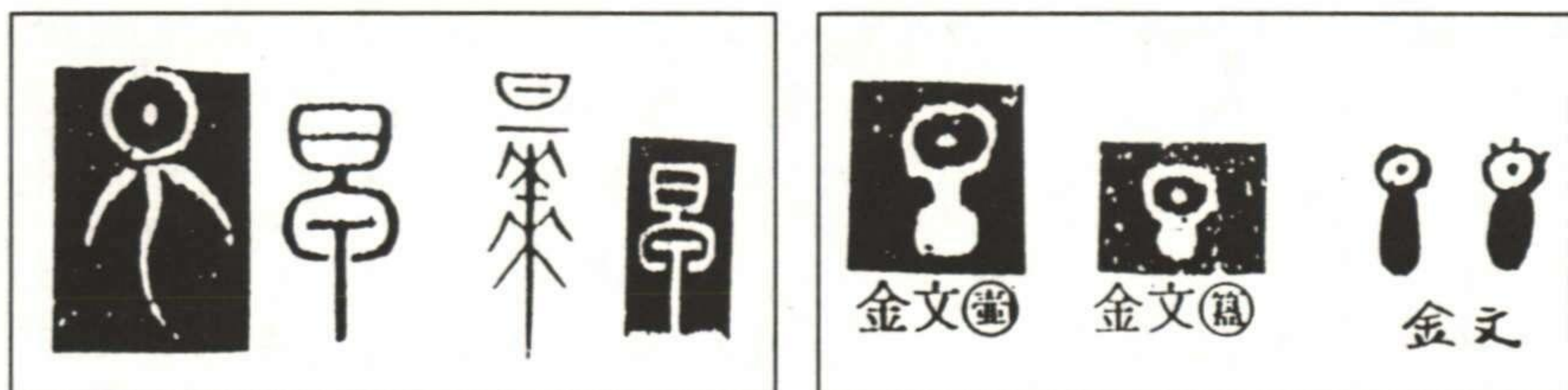
실지 說文解字에 보면 星字는 해(日)와 生자가 합쳐진 글자라 하며 생자는 나무와 같은 뜻을 지닌 글자이다. 星字의 고문을 보면

星. 星. 星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부상나무에 해가 뜬 것으로 이해되는 글자이다.

桑字도 古文에 桑 으로 되어 있으니 桑→桑→桑 형으로 부상나무 위에 해가 세개 달려 있는 형상이다.

說文에 보면 早字도 햇대와 같이 생겼고 (圖 29) 金文에 보면 旦字도 나무 위에 해가 올라가 있는 형상이다. (圖 30)

이 모든 글자가 부상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상형화한 글자들이다.



(圖 29) 아침 조(早)자의 글자체²⁵⁾ (圖 30) 아침 단(旦)자의 글자체²⁶⁾

2) 부상의 구조

앞에서 살펴 본대로 부상나무는 해가 사는 곳이며 해가 태어나는 곳이자 해가 쏘는 곳으로 해 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상의 구조는 해(日)와 나무(木)로 되어 있다. 만약 부상나무를 그린다면 어떤 나무든 해가 들어 가야되고, 부상나무를 조각하거나 만든다면 그것이 다른 나무와 달리 부상나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선 해가 들어 가야 할 것이다.

(圖 27)의 민화에서도 나무 위에 해와 달을 그려 놓았기에 부상나무임을 알 수 있다.

문자로는 杗자가 부상나무를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字이다. 杗은 나무 위에 해가 있으니 부상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星자도 𠂔 또는 𠂔으로 나무 위에 해가 있으니 부상으로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桑자도 𣎵의 형태로 해와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문자에 나타나는 부상과 각종 문헌에 나타나는 내용과 민화에 나타나는 그림을 토대로 부상나무의 구조를 재구성 한다면, 나무 위에 해가 있는 형태로 다음의 도표와 같은 구조가 될 것이다.



(圖 31)

3) 부상과 햇대의 구조적 동일성

부상의 구조는 해와 나무로 되어 있고 햇대의 구조는 새와 기둥으로 되어 있다. 부상은 나무 위에 해가 있는 형태이고 햇대는 기둥 위에 새가 있는 형태이다. 부상이 해와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나무를 기둥으로 바꾸면 기둥 위에 해가 있는 형태가 된다. 햇대도 나무기둥 또는 돌기둥 때에 따라 쇠기둥도 있지만 원시적 햇대는 나무기둥이었을 것이고 나무기둥을 햇대의 원조라 했을 때 나무 위에 새가 있는 형태가 바로 햇대라 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부상과 햇대는 구조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해와 새가 다를 뿐인데 그 부분도 다음 글에서 동일성을 찾도록 하겠다.

부 상		햇 대	
			

(圖 32)

6. 해(日)와 새의 관계

1) 해의 信仰性

해는 지구가 존재하게 하는 핵이며 지구상의 생명체를 살아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원시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해는 거룩하고 신비한 존재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햇빛이 비쳐 광명천지가 되어야 어둠이 사라지고 사악한 기운이 없어 진다. 불교도 부처의 광배(光背)로 해를 이용하고 있고 배화교라던가 힌두교에서도 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 단오를 天中節이라 하여 하늘에 제사하고 단오 빔으로 붉은 비녀를 꽂는 것과 天中赤符²⁷⁾를 붙이는 것도 해를 숭배하던 유풀인 것이다. 우리 겨레가 흰옷을 즐겨 입고 일본이 태양신의 후예로 자처하며 국기를 日章旗로 한다던가 중국 사람들이 붉은 색을 좋아하고 중화민국 국기가 青天白日旗인 것은 모두 해를 숭배 하였기에 그러한 것이다.

원시 사회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해는 신격화되고 해를 왕권의 상징으로 삼거나 천신의 자손으로 자처 하는데 이용되었다. 우리 민족사에 나타나는 해모수, 혁거세, 해부루, 탈해 등의 인물이 이미 해를 상징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늘에 눈이 있다면 그것은 해(日)이며 하늘을 대신 할 수 있는 강한 상징은 해 밖에 없다. 만물을 생육시키며 온 누리에 광명을 비추는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는 해 밖에 없으며 해는 태초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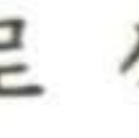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으니 해가 곧 天神이요 造化神이었던 것이다.

특히 농경사회나 漁獵사회에서 해는 절대적이다. 해가 나야 바다가 조용하니 어부들도 고기잡이에 좋고 햇빛이 오래도록 비치지 않으면 농사에 타격을 주니 농·어업에서 해는 절대적 존재이니 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2) 해의 상징으로서의 새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늘을 상징하는 강력한 존재가 해이지만 해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 오지는 않고 높이 솟아 광명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하여 해도 하늘에 있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이전에는 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해를 신앙의 대상으로 설정했을 때 해를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鳥)인 것이다. 새는 곧 해일수도 있고 해의 사자(使者)나 해의 정령(精靈)일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속에는 세 발 까마귀가 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달 속에는 두꺼비나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왜 해 속에는 까마귀가 살고 있는가 밤에 나는 새는 드물다 대개 새는 낮에 날아 다닌다. 새가 날 때 나는 힘은 햇빛을 받는 날개 곧 깃털에 신비한 靈力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해는 곧 새이며 새는 곧 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해를 표시 하고자 글자로 쓸 때 日자에 새가 들어 가게 써야 해인 줄을 알았으니 古文에 보면 日자를 로 써서 속에 새(乙)를 집어 넣었다. 해를 뜻하는 둥근 ○속에 새를 뜻하는 乙자를 넣어 비로소 해를 뜻하는 글자가 되었던 것이다.

아침을 뜻하는 旦자도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뜻하는 一자에 해를 뜻하는 ○, 새를 뜻하는 乙자가 합쳐져 이루어진 글자이다.



(圖 33) 日의 古文²⁸⁾

旦

그림으로 해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둥근 ○속에 새 그림을 넣었다. 그냥 둥근 ○만 있으면 그것이 달인지 해인지 모르지만 ○속에 새 그림이 들어 있으면 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세발 까마귀든 두발 달린 닭이든 세발 달린 닭이든 새면 되는 것이다.

(圖 34)에 보면 해속에 닭처럼 생긴 새가 그려져 있고 (圖 35)에 세발달린 새가 그려져 있으나 그것을 까마귀로 보기는 어렵고 닭이나 종달새 같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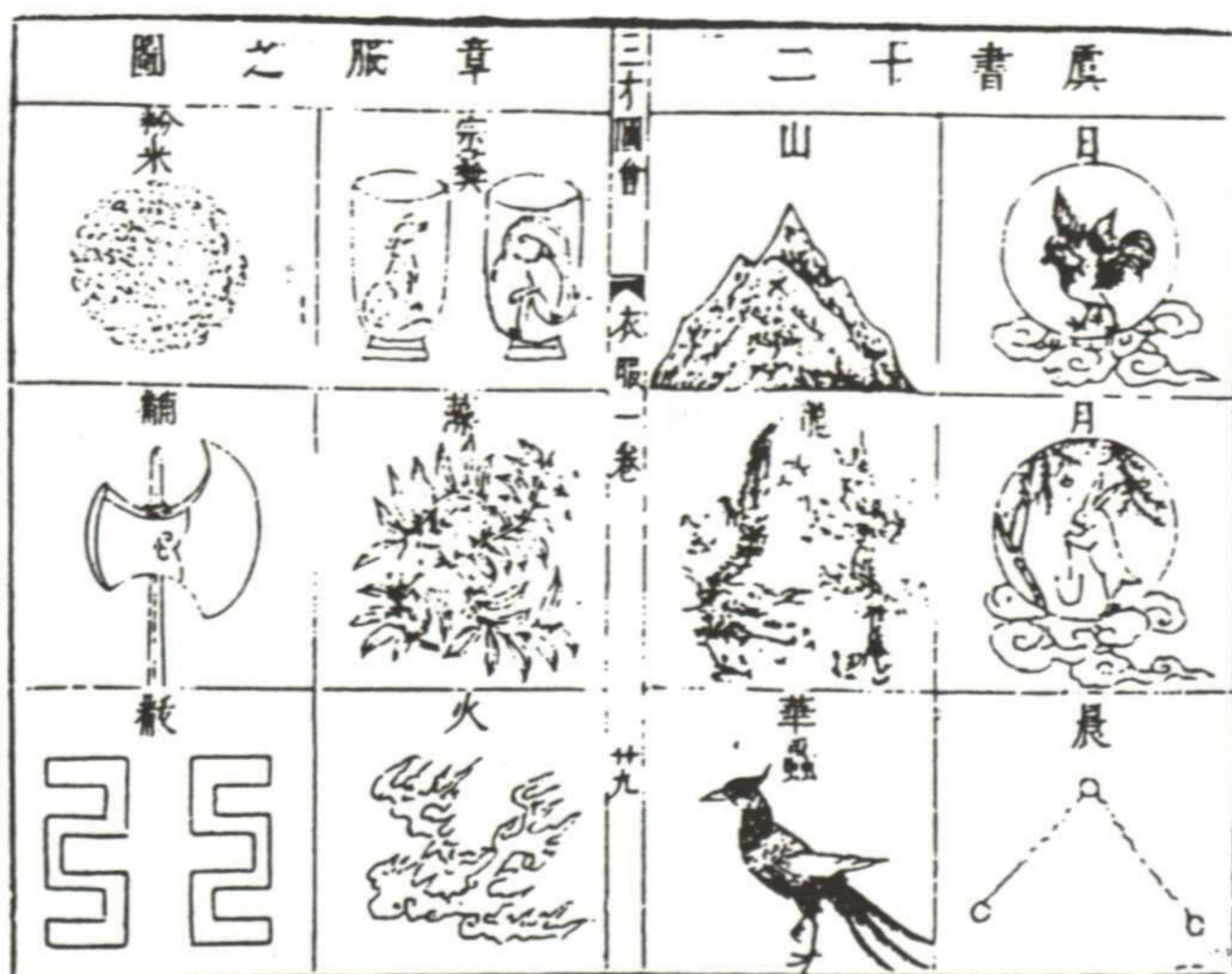
(圖 35)의 虞書十二章服之圖에 있는 해의 문양 속에 들어 있는 세발가진 새도 까마귀라기 보다는 장닭이나 봉황새에 가까운 새 그림이다.



(圖 34) 山海經 속에
오는 해를 상징하는 새²⁹⁾



(圖 35) 또다른 虞書十二章服之圖
의 해를 상징하는 새 그림³⁰⁾



(圖 36) 三才圖會 속의 虞書十二章服之圖³¹⁾

결국 해를 상징하는 데는 해속에 어떤 형태이던 새가 들어가 있으면 해가 되는 것이다. 그 새가 까마귀냐 닭이냐 봉황이냐 하는 것은 후대사람들의 분별이지 굳이 까마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 글에서 살펴본 대로 해속에 踰鳥가 살고 있다고 하고 踰鳥는 三足鳥라는 것이어서 해를 상징하는 새 (鳥)는 까마귀(鳥)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까마귀를 뜻하는 鳥자와 새를 뜻하는 鳥자는 같을 글자 였으나 후대에 와서 달라지게 된다.

송나라 사람 陸佃이 지은 埤雅 보면 까마귀에 대해 이르기를 「까마귀는 그 생김새가 새와 똑같으나 다만 그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까마귀는 몸이 완전히 검다. 멀리서는 그 눈동자를 분별할 수 없다」(埤雅林罕以爲全象鳥形但不注其睛鳥體全黑遠而不分別其睛也)

라고 하였다.³²⁾

그러니 새鳥자에서 눈동자인 一을 뺀 글자가 까마귀鳥자인 것이다. 후대에 와서 표현이 번잡해 지고 어쩌다 태양의 흑점이 보이

므로 까마귀가 해를 상징하는 새가 되었을 것이다. 새는 흰 새, 노랑새, 파랑새, 검은 새, 알록달록한 새 등등 그 색깔은 무궁무진하다. 옛날엔 그 모든 새를 그냥 새라고 통칭하였을 것이나. 후대에 와서 표현이 번잡해 지고 어쩌다 태양의 흑점이 관찰됨에 따라 여러 새들 가운데 검은 새인 까마귀가 해를 상징하는 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圖 34)에 나오는 새는 닭과 유사하고 (圖 35)에 나오는 새는 종달새나 비둘기 비슷하고 (圖 36)에 나오는 새는 장닭이나 봉황과 흡사하다. (圖 23)의 새도 세발로 가진 새이지만 그 꼬리를 봐서는 봉황과 비슷하고 머리부분은 기러기나 오리와 비슷하여 까마귀와는 모양을 달리하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해를 상징하는 새가 꼭 까마귀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때에 따라서 해를 상징하는 새는 까마귀 말고도 봉황이나 닭이나, 솔개, 매, 기러기, 오리, 따오기, 종달새 등도 해를 상징하는 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햇대 위에 있는 새를 기러기 또는 오리라 하고 지방에 따라 따오기, 까마귀라고 부르기도 하니, 어느 한 종류의 새가 해를 상징하지는 않는다.

옛날엔 까마귀가 길조요 상서로운 새로 여겼으나 오늘날에는 재수없는 새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보면 그 옛날에도 해를 상징하는 새는 시대에 따라 변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처음엔 까마귀로 시작되었으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솔개가 해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기러기나 오리가 해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三災符籙의 三頭一足鷹이 三災를 막아주는 새로 인식되고 햇대 위의 기러기나 오리 세마리가 삼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하니, 새의 종류는 달라도 그 기능은 같고 그 구조도 같은 것을 보면 해를 상징하는 것은 모든 날 수 있는 새라고 본다.

3) 語源으로 본 해와 새

해를 상징하는 것이 까마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날

수 있는 새는 해를 상징한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어원적으로 해와 새가 같음을 밝혀 보고자 한다.

해가 뜨는 동쪽을 「새쪽」이라고 뱃사람들이 말한다. 東은 해가 부상나무에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니 동쪽은 곧 해가 뜨는 쪽이란 말이며 「새쪽」이란 말의 「새」는 곧 해가 되는 것이다.

東風을 「새바람」이라 하니 「새」는 「새」의 센말로 역시 「해」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른 아침을 「새벽」이라 하고, 한숨도 자지 않고 온 밤을 밝힐 때 밤을 「새우다」라고 하니 「새」는 해를 뜻하고, 날이 「새다」의 「새」도 해를 뜻한다.

햇빛 처럼 밝은 빛깔을 나타낼 때 「새하얗다」 「새노랗다」 「새빨갳다」 「새파랗다」하는데 여기서도 「새」 「새」는 해를 뜻하는 말이다.

머슴이 한해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을 「새경」이라 하니 여기서도 새경의 「새」는 「해」를 뜻하고, 흰머리를 「새치」라하고 새벽에 뜨는 밝은 별을 「새별」이라 하니 여기에서도 「새」와 「새」는 해를 뜻하는 말이다.

보통 「ㅎ」은 「ㅅ」이 원어이다.

방언에 「헛바닥」을 「새바닥」이라 하고 「혀가 빠지다」를 「새가 빠지다」라고 한다. 그래서 「새쪽새쪽」이 「해쪽해쪽」으로 「새죽새죽」이 「해죽해죽」으로 변한다.

5일과 6일을 의미하는 「닷새」 「엿새」의 「새」가 바로 해(日)를 의미하니 「새」는 곧 日(해)인 것이다. 팔죽 속의 「새알」도 새(鳥)의 알(卵)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새알」은 해(日)의 알(卵)인 것이다. 왜냐하면 팔죽을 먹을 때 새알을 나이 수대로 먹는 풍습이 있으니 「새」는 「해」로 곧 「한해」다시 말해 「한살」을 의미하는 해(歲)의 알(卵)인 것이다. 둥글게 생겨서 새알(鳥卵)이라 한다지만 「새알」은 해(日)의 알(卵)로 둥근 「해」그 자체이고 붉은 팔죽 또한 햇빛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지는 가장 해가 짧은 때이자 다시 해가 길어지는 시발점이다. 이때 해가 다시 밝아 길어 지기를 비는 뜻에서 붉은팔(햇빛을 상징)으로 죽을 쑤고 해(日)의 형상인 새알

(해알)을 넣어 끓이는 것이다.

해는 발도 없이 새쪽(동쪽)에서 떠올라 하늘을 날아 서쪽의 함지로 들어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는 날개가 있어 하늘로 날아 다니니 해의 신(日神) 또는 해의 使者로 표현되기에 족한 것이다.

해 속에는 새가 산다고 믿었으니 해는 새의 둥지이며 새의 母胎인 것이다. 하늘을 나는 해를 상징하는 짐승이 있다면 해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밖에 없을 것이다. 새는 해의 精이며 해 그 자체가 되기에 새와 해를 같이 보고 해와 새를 합쳐 보게되니 해 속에 새가 살게 되는 것이고 아예 해와 새는 같이 불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오늘과 오늘날의 「늘」과 「날(日)」이 해(日)이고 닛새, 옛새의 「새」가 해(日)이고 새(鳥)는 하늘을 날(飛)고 그래서 「날」 수 있는 것은 「새」이며 해(日)속에는 새(鳥)가 살고 「날」수 있는 모든 「새」는 해의 化身으로 「해」 그 자체로 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해」와 「새」는 그 어원이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솿대나 섯대 등의 말은 「해」를 뜻하는 「새」에서 그 말이 주어져 섯대에서 섯대, 솿대 등으로 말이 변했을 것이니 섯대, 솿대 등으로 불리우는 神竿은 결과적으로 해를 상징하는 「햇대」임을 알겠다.

7. 해의 상징물 햇대

해는 萬物을 生育시키는 위대한 존재로 人類가 農耕社會로 접어들면서 해를 信仰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농사와 漁獵이 잘 되기를 비는 성스런 장소를 만들고 그 곳에 해의 신이 내려 오도록 길다란 나무기둥을 세운다. 그 기둥은 곧 扶桑나무이며 해가 오르내리는 신목(神木)인 것이다.

해속에는 새가 산다고 믿었으니 해는 곧 새요, 새는 곧 해인지

라 나무기둥 끝에 해의 화신이자 해의 사자(使者)이며 해의 상징인 새를 깎아 세우게 된다. 처음엔 분별없이 나무기둥 끝에 1마리의 새를 깎아 세웠으나 三才思想과 더불어 해속에 세발 달린 까마귀가 산다고 믿어 나무기둥 끝에 3마리의 새를 깎아 세우게 된다. 하지만 새가 1마리이든 2마리이든 3마리이든 5마리이든 그것은 후세사람들의 분별(分別)로 이루어진 것이고, 새의 종류도 까마귀니 오리니 기러기니 하는 것도 후세 사람들의 분별(分別)이다.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솟대, 살대, 오릿대, 짐대, 수살목, 진대, 진또배기 등으로 불리는 모든 神竿은 해를 상징하는 햇대로서 그 나무기둥은 해가 떠오르는 扶桑나무를 상징하고 기둥위의 새는 三足鳥 곧 해속에 산다는 새를 의미하는 것이다.

(圖 27)에서 보듯이 부상나무 위에 해가 올려져 있다. 이 그림에서 해 대신 해를 상징하는 새를 올려 놓은 것이 햇대이다. 새의 숫자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새 자체가 해를 의미하며 햇대를 타고 해의 신이 강림하여 豐農과 豐漁를 점지해 주고 三災가 들어오지 못하게 祈願하게 된 것이 햇대이다.

8. 햇대의 變移

햇대는 扶桑과 해의 상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햇대는 사회의 변천 혹은 신앙적 필요에 의해 여러가지 유형으로 變移 되어 나감을 볼 수 있다.

풍농과 풍어를 빌던 햇대는 특정한 지역에 세워져 고정된 상태의 신앙적 대상이 되었지만 후세 사람들은 햇대를 삼재부적으로 응용 변형시켜 액을 막아주는 상징신표로 삼으면서 집안으로 끌어 들여 벽에 붙이게 되었고 아예 몸에 지니게 되었다.

三災符籙의 三頭一足鷹은 전술한 바와 같이 햇대와 구조적으로 같은 유형인 것이다. 다시 삼재부적은 액막이 연(鵞)으로 분화되어

연을 띄우는 사람의 액(厄)을 싣고 하늘 높이 띄워 지게 된다.

연은 鳶으로 솔개 鳶자이니 솔개나 매(鷹)나 강한 집조(鷲鳥)로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한편으로 햇대는 농악기(農樂旗)로 변형되어 이동식 햇대가 된다. 농민들이 풍년과 재액을 빌기 위해 굿을 할때 농악기를 앞세워 온 동네를 돌며 연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악기 끝의 평 깃털은 해의 상징인 새의 깃털을 의미하고 농악기자체는 긴장대의 신간(神竿)위에 새가 있는 햇대와 구조 및 상징성이 같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햇대가 고정식이라면 농악기는 간략화 된 이동식 햇대인 것이다.

농악기는 나중에 무격(巫覡)인들이 쓰는 신대로 분화되어 가고 그것은 또 삼지창으로 분화되어 돼지머리나 시루를 세우는데 사용하기도 하니 그 행위도 하늘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형태인 것이다.

농악기 끝의 평 깃털이 새를 상징하는 간략화된 형태라면, 돼지머리를 세우는 무격인들의 삼지창의 세가닥 창날은 새 세마리의 변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9. 결 론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솟대, 살대, 수살목, 수살대, 짐대, 진대, 오릿대, 기러기대, 진또배기, 당산 등등으로 불리는 神竿들은 해를 상징하는 햇대(日竿)임을 밝히기 위해 노력 하였다.

그 결과

1) 해는 三足鳥로 묘사되고 三足鳥가 실린 해(日)는 扶桑이라는 나무에서 뜨는데 扶桑나무는 햇대(日竿)로 상징되어 나타나고 三足鳥는 오리나 기러기로 변형되어 햇대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해(三

註

- 1) 경기지방 장승, 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88) p.34
- 2) 朝鮮民俗誌(秋葉陸著. 民俗苑. 1983)第六圖~第九圖
- 3) 韓國文化상징사전(東亞出版社. 1992)p.521
- 4) 韓國民族文化의 研究 一蘇塗攷(乙酉문화사. 1948)
- 5) 韓國文化 상징사전 앞의 책. p.439
- 6) 진또배기와 짐대배기의 語源的 考察(太白文化誌. 太白文化院. 1987)
- 7) 日本神話(探求堂. 1980 朴時仁) p.167
- 8)~10) 경기지방 장승솟대신앙 圖참조
- 11) 전통문화 ((주)대왕. 1986 3월호)
- 12) 韓國文化 상징사전. 앞의 책 p.364
- 13) 淮南子(臺灣中華書局印行. 中華民國七十六年)卷七 精神訓 p.2
- 14) 양곡(湯谷, 暘谷) : 해 뜨는 곳
- 15) 山海經 : 大荒東經(民音社. 1985). p. 291
- 16) 松南雜識 :
- 17) 韓國文化상징사전. 앞의 책 p.411
- 18) 三災圖會, 衣服一卷 虞書十二章服之圖(王圻著, 王思義 編集. 上海古籍出版社. 1985)p.1507
- 19) 咸池 : 해가 빠지는 곳. 서쪽
- 20) 山海經 : 앞의 책. p.254
- 21) 淮南子. 卷四 地形訓. p.3
- 22) 說文解字注, 六篇上 木部(天工書局印行. 中華民國七十六年)p.252
- 23) 康熙字典(啓業書局. 中華民國 79年) 木部
- 24) 說文解字注. 앞의 책. 木部
- 25) 綜合篆書 大字典(美術文化院. 1986)
- 26) 新編 甲骨文字典(劉興隆著 國際文化出版公社. 1993)
- 27) 東國歲時記. 五月端午(乙酉文庫. 李錫浩譯. 1980)p.263

- 28) 七體大字典(教育出版公社. 1988)
- 29) 韓國文化상징사전. 앞의 책. p.197
- 30) 東亞漢韓大字典(東亞出版社. 1991) p.792
- 31) 三災圖會. 앞의 책. p.1507
- 32) 明文漢韓大字典(明文堂. 1987)火部 烏字註 轉載

태백산 12거리 굿 놀이



김 강 산
(태백문화원 사무국장)

1. 유 래

태백산은 삼한시대부터 남태백산으로 숭배되던 성산으로 신라때는 북악으로 정하여 중사의 제를 올린 국토의 뿌리산이자 옛부터 전통 무속 신앙의 본산이었다.

신라 일성왕이 친히 북순하여 태백산에서 하늘에 제사 하였으며, 기림왕은 춘천까지 올라가서 남쪽에 있는 태백산을 향해 망제를 지내자 낙랑과 대방 두나라가 항복하여 왔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온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태백산 꼭대기에는 천왕당이 있어 삼도(강원, 경상, 충청)의 백성들이 다투어 천제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사를 지낼때는 반드시 소를 바쳤으며 바친소를 천왕당 아래에 메어두고 뒤돌아보기 않고 내려온다고 한다. 3일 후에 관부에서 그 소를 거두어 가는데 이를 퇴우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허백당집, 미수기언, 척주지등에 자세히 기록 되어 있다.

특히 척주지와 진주지에는 태백산의 무속행위는 신라와 고려때 부터 전하여져 온것으로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팔도에서 무격들이 모여와 다투어 제사하고 굿을 하였다고 하며 그 유향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 전국에서 무당들이 모여와 굿을 하고 기도하며 제사지내는 산은 이곳 태백산이 가장 극심하여 당골 계곡은 특히 무속인들이 메카와 같은 곳으로 하루에도 수백명씩 몰려와 굿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이들 무속인들의 굿판과 제천의식을 고찰하여 역사성이 있음을 인식 태백산 천제단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하게 된것이다.

2. 내 용

태백지역은 태백산의 영향을 받아 옛부터 무속인들이 많았으며 「세습무」보다는 솜은 무당이라는 「강신무」가 많은 곳으로 가끔 무병(巫病)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대개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되는데 이때 무당을 불러다가 신굿(내림굿)을 하게 되며 「신굿」이 끝나면 새로운 「강신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신굿과정은 12마당으로 되어 있으며 각 마당마다 독특한 춤사위와 노래로 이루어진다.

* 제1과장

- 기수, 도무당, 무녀, 아낙, 첩지, 마을사람순으로 농악을 치며 입장 한다.
- 태백산밑의 서낭당을 꾸민 무대앞에 등글게 선다.
- 관중에서 인사를 하고 각자 위치로 간다.
- 무병을 앓는 여인이 낫지 않고 산신에 빌어도 낫지 않는다.
- 판수가 점을 치며 굿을 하라 한다.

* 제2과장

- 도무당이 무녀들을 이끌어 굿판을 벌인다.
- 12거리 굿판을 순차적으로 한다.
- 가족들이 함께 빌어 마을 사람들은 구경을 한다.
- 「해원굿」에 이르러 무녀들이 양쪽으로 늘어서서 광목천을 벌려잡는다.
- 「도무당」이 천을 갈라 길을 연다.
- 한번은 천을 반으로 가르고 두번째는 네가닥으로 가르다.

* 제3과장

- 「해원굿」을 한다음 환자가 일어나 대를 잡고 강신을 한다.
- 향을 풀은 부정물에 발을 씻는다.
- 쌀 뒤주 위에 쌀 3가마를 쌓고 그위에 물을 담은 물동이를 올리고 그 위에 작두를 설치한다.
- 내림굿을 하던 무병을 앓던 여인이 신을 받아 새로운 무녀가 되어 작두위에서 맨발로 춤을 추며 옳은 무당이 되었음을 확인한다.

* 12거리 굿내용

1. 부정굿

도무녀가 쾌자를 입고 머리띠를 하고 칼을 들고 부정을 친다. 무녀가 노래를 부르고 다른 무녀들이 뒷쇠를 받는다.

(받는 소리) • 에헤 영전아

(선 소리) • 천하부정, 지하부정
• 에헤 영전아
• 온갖부정 개부정
• 에헤 영전아
• 상문 부정, 삼재부정

2. 서낭 굿

도무녀가 서낭복색으로 갓을 쓰고 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춤을 추며 서낭신을 모신다.

(받는 소리) • 에헤 서낭님 모시자

(선 소리) • 천상에 술법서낭
• 에헤 서낭님 모시자
• 지하에는 백호서낭
• 에헤 서낭님 모시자
• 오행정기 만물서낭

3. 산신 굿

도무녀가 산신복색으로 갓을 쓰고 방울과 부채를 들고 춤을 추며 팔도 명산의 산신에게 소청을 한다.

(받는 소리) • 에헤 산신님 모시자

(선 소리) • 산지 조종은 백두산이요
• 에헤 산신님 모시자
• 수지 조종은 한강수라
• 에헤 산신님 모시자

- 함경도에 백두산신
- 평안도에 묘향산신
- 강원도에 금강산신
- 황해도에 구월산신
- 경기도에 삼각산신
- 경상도에 태백산신
- 충청도에 계룡산신
- 전라도에 지리산신
- 에헤 산신님 모시자

4. 가 목 굿

도무당이 가목복색으로 머리띠를 메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무병을 앓는 사람에게 강신된 신을 달랜다.

(받는 소리) • 에헤 가목님 모시자

- (선 소 리) • 천지건곤 신명가목
- 에헤 가목님 모시자
 - 일월성신 성관가목
 - 사해용신 용왕가목
 - 에헤 가목님 모시자
 - 팔도명산 산신가목

5. 칠 성 굿

도무당이 칠성복을 입고 꼬깔을 쓰고 손에는 흰 천을 들고 일곱칠성(북두칠성,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에게 수명과 복을 빈다.

(받는 소리) • 에헤 칠성님 모시자

- (선 소 리) • 칠월이라 칠석날에
- 에헤 칠성님 모시자
 - 까막 까치 다리 놓고
 - 에헤 칠성님 모시자

- 쌍무지개 선을 돌려
- 에헤 칠성님 모시자
- 외무지개 서기발로

6. 용 신 굿

도무당이 용신복색에 머리띠를 하고 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춤을 추며 용신(우물, 샘, 연못, 강, 바다)에게 수재와 가뭄을 없게 해달라고 빈다. 신이 오르면 물동이를 입에 물고 춤을 춘다.

(받는 소리) • 에헤 용왕님 모시자

- (선 소 리) • 동해바다 용왕신님
- 에헤 용왕님 모시자
 - 서해바다 용왕신님
 - 에헤 용왕님 모시자
 - 남해바다 용왕신님
 - 에헤 용왕님 모시자
 - 북해바다 용왕신님

7. 성 주 굿

도무당이 쾌자에 대감복색을 하고 갓을 쓰고 오른손엔 부채, 왼손에 한지 묶음을 들고 가신에게 무사 안녕을 빈다.

(받는 소리) • 에헤 성주님 모시자

- 천상천국 계실적에
- 에헤 성주님 모시자
- 이름한자 잘못짚어
- 에헤 성주님 모시자
- 지하 세계 귀양갈때

8. 조 상 굿

도무당이 쾌자를 입고 머리띠를 하고 오른손엔 부채를 왼

손엔 대를 잡고 조상님들의 덕을 찬양하고 복을 빈다.

(받는 소리) • 에헤 조상님 모시자

(선 소리) • 여보시요 시주님네

• 이네말씀 들어보소

• 에헤 조상님 모시자

• 이내 일신 태어날때

• 에헤 조상님 모시자

• 칠성님전 명을 빌고

• 삼신님전 복을 빌고

• 조상님네 음덕으로

• 에헤 조상님 모시자

• 아버님전 뼈를 빌고

• 어머님전 살을 빌어

• 에헤 조상님 모시자

• 이내 일신 탄생하니

9. 세 존 굿

도무당이 세존복색으로 꼬깔을 쓰고 손에는 부채와 또하나의 꼬깔을 들고 춤을 추며 세존(삼신) 삼한세존에게 복을 빈다. 세존은 당금애기의 남편이며 당금애기는 산신할머니다.

(받는 소리) • 에헤 세존님 모시자

(선 소리) • 천상세계 계실적에

• 에헤 세존님 모시자

• 글귀한번 잘못짚어

• 에헤 세존님 모시자

• 인도로 귀양갔다가

• 에헤 세존님 모시자

• 조선으로 건너올때

• 53불이 오셨구나

- 회오리 바람이 세계 불어
- 게센 파도 용솟음치니
- 50불이 돌아가고
- 삼세불이 건너와서

10. 말 명 굿

도무당이 쾌자를 입고 머리띠를 하고 손에는 오색천을 들고 하다가 죽은 귀신들을 달래고 위무한다.

(받는 소리) • 에헤 선수 모시자

- (선 소리) • 말명아가씨 탄생할때
- 에헤 선수 모시자
 - 어머님 배 밖에 나와서는
 - 세살적에 엄마 잃고
 - 일곱살에 아비 잃고
 - 에헤 선수 모시자

11. 장 군 굿

도무당이 장군복장에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명장군을 찬양하며 잡신을 물리쳐 주시고 착한신을 좌정케 해달라고 빈다.

(받는 소리) • 에헤 장군님 모시자

- 천하장군 지하장군
- 에헤 장군님 모시자
- 백마장군 흑마장군
- 에헤 장군님 모시자
- 삼국명장 조자룡아
- 조선명장 임경업아
- 에헤 장군님 모시자

12. 해 원 곳

도무당이 쾌자를 입고 머리띠를 하고 손에는 꽃을 들고 저승을 못간 귀신들을 배에 태워 극락왕생 토록 한다.

이때 길다란 천위에 배를 띄우고 뱃노래를 하며 길을 가르기 위해 천을 갈라 나간다.

그밖에 꽃놀이, 뱃놀이, 등놀이, 길가리, 뒷전거리들을 하면서 조상들과 그밖의 신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곳을 한다.

* 작 두 곳

12거리 곳을 끈다음 무병을 앓던 사람이 향을 쫓아 부정물에 발을 씻고 작두위에 올라가 일월성신을 받기 위해 춤을 춘다.

작두의 설치는 제일밑에 뒤횼을 놓고 그위에 쌀가마니를 3개 쌓아 놓고 그위에 물동이를 놓은 다음에 그위에 작두를 설치한다.

작두는 쌍작두와 외작두가 있으며 그밖에도 그네작두가 있다.

陟州 東海碑文과 眉叟 逐癘文의 考察

金 剛 山

(太白 郷土史 研究所長)

<目 次>

- | | |
|------------------------|--------------------|
| I. 序論 | VI. 眉叟 逐癘文의 作者 |
| II. 眉叟 許穆의 行蹟 | VII. 陟州 東海碑文의 性格 |
| III. 陟州 東海碑의 建立 | 1) 祝文으로서의 陟州 東海碑文 |
| IV. 陟州 東海碑文과 眉叟 逐癘文 解釋 | 2) 風浪으로 激沈된 陟州 東海碑 |
| 1) 陟州 東海碑 | 3) 退潮碑라는 이름의 虛構 |
| 2) 眉叟 逐癘文 | VIII. 結論 |
| V. 東海岸의 氣候와 災殃 | |

I. 序 論

삼척시 六香山에는 유명한 陟州 東海碑가 있다. 朝鮮 顯宗 때 三陟府使로 부임한 眉叟 許穆이 潮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웠다고 하며 일명 退潮碑로도 불리운다.

碑文은 허목의 독특한 篆書體로 쓰여져 일반인들은 읽기가 쉽지 않지만 살아 있는 듯한 글자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얼마 전 三陟文化院 金榮俊 院長으로부터 이상한 글이 복사된 종이 한장을 건네 받았다. 자세히 읽어보니 眉叟 逐癘文이라는 글이었다. 眉叟라, 그러면 眉叟 許穆이 지은 것이 아닌가? 하고 김원장의 기색을 살피니 김 원장도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東海市 松汀洞에 사는 鄭溶和라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옛 文籍들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 眉叟 逐癘文은 뜻있는 향토사가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逐癘文 앞에 眉叟라는 글자가 붙어 있기에 眉叟하면 三陟 地方에 큰 영향을 끼친 許穆 先生을 연상하게 되니까 그렇다.

眉叟 許穆은 신묘한 문체로 東海頌을 짓고 陟州 東海碑를 세워 潮水를 물리친 일로 유명하고, 그 신비한 기적에 매료된 삼척지방 사람들이 碑文을 탁본해다가 집 안에 걸어 놓으며 潮水가 물러가듯 災殃이 물러가길 비는 풍습이 수백 년간 이어져 왔다. 그러니 삼척지방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많은 府使들 가운데 眉叟 許穆이 단연 뛰어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척지방 사람들의 정서와 맞물려 이번에 발견된 것이 眉叟 逐癘文이니 이것도 필시 許穆이 지었을 것이라는 世論이다.

이에 과연 眉叟 逐癘文이 許穆의 所作인지 여부와 이 축려문을 주해하여 그 속뜻을 밝혀 보고자 하며, 이 기회에 陟州 東海碑文과의 연관성과 나아가 두 문장의 성격과 두 문장에서 보여지는 시대적 정서를 알아 보고자 한다.

II. 眉叟 許穆의 行蹟

眉叟 許穆은 단기 3928년(서기 1595년) 朝鮮 宣祖 28년 서울 창선방에서 태어나 단기 4015년(서기 1682년) 숙종 9년에 경기도 연천에서 88세를 일기로 타계한 大學者이다.

字는 文父 또는 和甫요, 號는 眉叟 또는 臺嶺老人이라 하였다.

20여 세에 종형 許厚를 따라 경상도 星州로 가서 禮學에 밝은 당대의 명문장가 鄭述에게 사사하였고 대학자인 張顯光의 門人이 되어 학문의 길로 접어든다.

그가 태어날 때 손바닥에 文자 비슷한 손금이 새겨져 있었고 발바닥엔 井자 비슷한 발금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니, 이미 태어나면서 文名을 떨칠 소명을 받고 난 사람이 아닌가 여겨지며 발바닥의 井자는 물과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학문의 조리 정연하게 됨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젊어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여 諸子百家의 書를 연구하고 다시 經書의 연구에 전심하였는데 특히 禮學에 있어서는 一家를 이루었다.

50여 세가 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뒤늦게 50세 때 持平에 初任되면서 벼슬길에 나아간다.

단기 3993년(서기 1660년) 자의대비(慈懿大妃)의 服喪 問題로 1차 禮訟이 일어났을 때, 許穆은 3년설을 주장하였으나 顯宗이 西人의 暮年設 주장을 재확인 함으로써 南人이던 許穆은 三陟府使로 좌천당하게 된다.

이 때가 許穆이 三陟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三陟府使로 부임하여 2년간 다스리다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許穆은 여러 가지 치적을 남기게 된다.

후에 숙종이 즉위하여 제2차 服喪 問題로 禮訟이 일어나자 暮年說을 채택케 하는데 성공한 남인들이 집권하게 되었고, 남인의 영수인 허목은 대사헌에 특진되고 이어 이조참판을 거쳐 우의정에 오른다.

이 해에 長鬚에 유배 중이던 宋時烈에 대한 처벌 문제가 일어나자 영의정 許積의 의견에 맞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이로 인해 남인은 둘로 갈라져 송시열의 처벌에 온건론을 주장하던 濁南과 대립, 그는 淸南의 영수가 된다.

단기 4012년(서기 1679년) 탁남의 허적을 탄핵했다가 파직, 고향

으로 돌아가 후진 양성과 저술에 전심하게 된다.

그는 篆書에 능하여 전서에 관한 東方第一人者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그림과 文章에도 뛰어났다.

Ⅲ. 陟州 東海碑의 建立

척주 동해비가 세워진 것은 단기 3994년(서기 1661년)이며 당시 三陟府使로 있던 許穆에 의해서다.

陟州 東海碑文에 보면

「현종 2년에 허목 선생이 부사로 와서 다스릴 때 글을 짓고 전각한 동해비를 정라도에 세웠는데 풍랑으로 격침되었다. 선생이 듣고서 다시 글을 써 두어 지금 양본을 참고하였는데 큰 글자는 구본을 사용하고 작은 글자는 신본을 사용하여 각자해서 죽관도에 세운다. 숙종 35년 기축년 춘 3월이다.」(顯宗二年先生來守是邦撰篆東海碑立於汀羅島爲風浪激沈先生聞而改書今參考兩本大字用舊本小字用新本刻豎于竹串島時 上之三十五年己丑春三月也)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처음 허목이 세운 비는 풍랑으로 인해 부러져 바다에 빠져 버렸고, 두 번째 비는 48년 뒤에 府使 洪萬紀에 의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장소도 처음엔 汀羅島이고 나중에는 竹串島(六香山)로 바뀐다.

汀羅島는 일명 萬里島로 지금의 정라진항 방파제 끝 쪼미라 전하고 죽관도는 지금의 六香山이다.

홍만기가 세웠을 당시는 육향산 아래에 바다를 향해 있었으나, 단기 4302년(서기 1969년) 12월 6일 현재의 육향산 꼭대기로 옮겨 세워지게 된다.

Ⅳ. 陟州 東海碑文과 眉叟 逐癘文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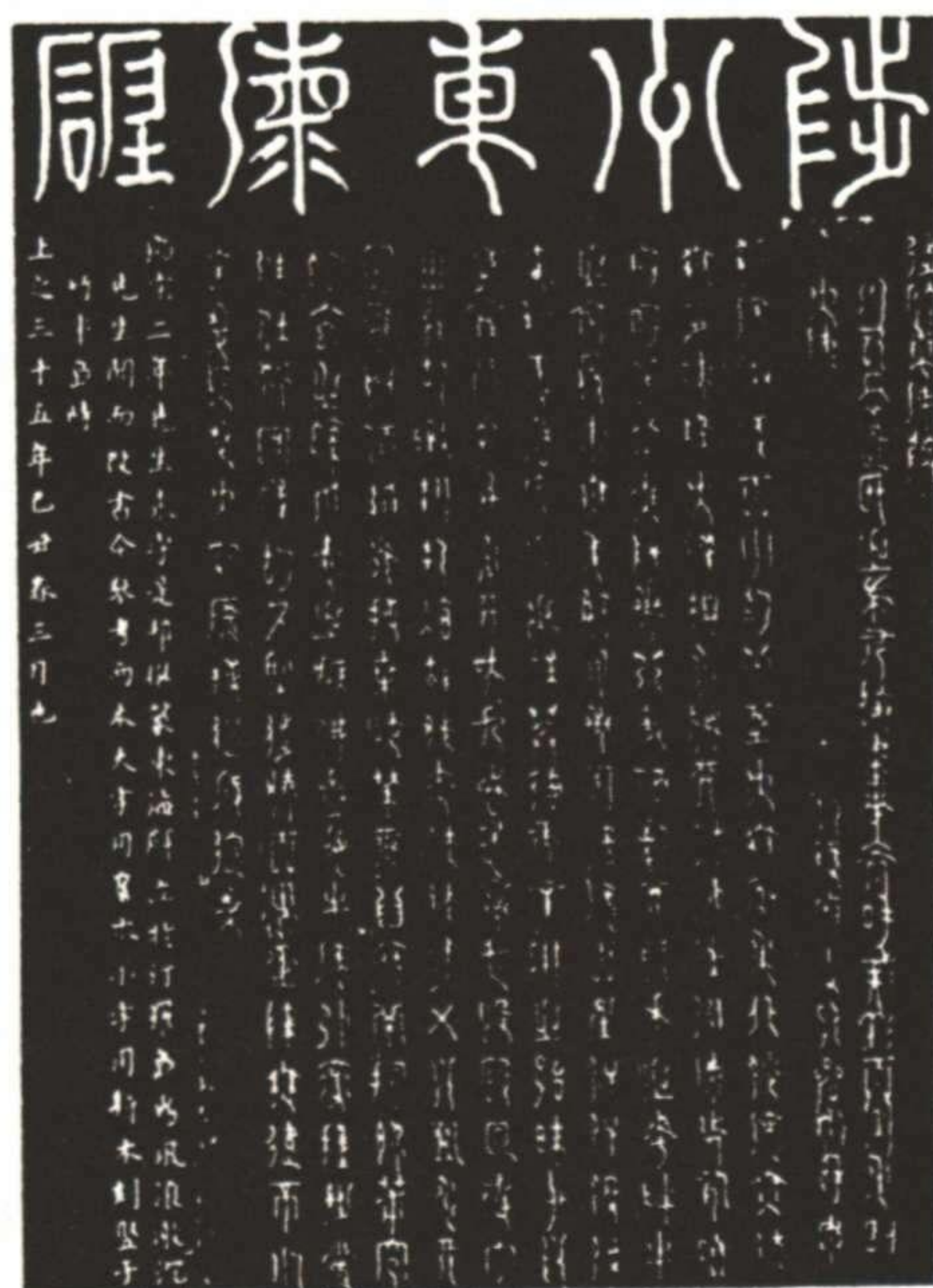
1. 陟州 東海碑

가. 소재지 : 삼척시 정상동 육향산 정상

나. 규 격 : 높이 1m75cm, 넓이 76cm, 두께 23cm

다. 제작 시기 : 현재의 碑는 洪萬紀가 세운 것으로 단기 4042년
(서기 1709년) 3월에 제작된 것이다.

라. 陟州 東海碑文 해석 : 척주 동해비문의 해석문은 삼척군지의
것을 인용한다.



原文楷書	우리말해설
州古悉直氏之地在 瀟墟 南去國都七百里 東臨大海 都護府使 孔巖 許穆 書	이 고을은 옛날 실직국(悉直國)의 땅으로 예국(濊國)의 옛 터였던 강릉 남쪽에 있고 서울과의 거리는 칠백 리이며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다. - 도후부사 허목 씀 -
瀛海滄溟 百川朝宗 其大無窮	큰 바다 가이없어 온갖 넷물 모여드니, 그 크 이 끝이 없네.
東北沙海 無潮無汐 號爲大澤	동북쪽 사해(沙海)여서 밀물 썰물 없으므로, 대택(大澤)이라 이름했다.
積水稽天 渤瀕汪濊 海動有聲	파란 물 하늘에 닿아, 출렁댐이 넓고도 아득하 니, 바다가 움직이고 음산하네.
明明暘谷 羲伯司賓 義伯司賓	밝고 밝은 양곡(暘谷)으로, 태양의 문이라서, 희백(羲伯)이 공손히 해를 맞았고
析木之次 牝牛之宮 日本無東	석목(析木)의 위차요, 빈우(牝牛)의 궁(宮)으로, 해가 본시 돌는 동쪽의 끝이로다.
蛟人之珍 涵海百產 汗汗漫漫	교인(蛟人)의 보배와 바다에 잠긴 온갖 산물은 한없이 많으며
奇物譎詭 宛宛之祥 興德而章	기이한 물건 변화하여 너울대는 그 상서는 덕 을 일으켜 나탐이로다.
蚌之胎珠 與月盛衰 旁氣昇霏	조개의 태에든 진주는 달과 더불어 성하고 쇠 하며, 대기를 따라 김을 올리고
天吳九首 怪蕤一股 颺回且兩	머리 아홉인 천오(天吳)와 외발달린 기(夔)는 태풍을 일으키고 비를 내린다.

原 文 楷 書		우 리 말 해 설
出日朝暾 紫赤滄滄	轉軋炫煌	아침에 돋는 햇살 넓고 크게 빛이나니, 자주빛 붉은빛 으스스 하여라.
三五月盈 列宿幕光	水鏡圓靈	삼오야 둥실 뜬 달, 하늘의 수경되니, 못별이 광채를 감추도다.
扶桑沙華 撮髻莆家	黑齒麻羅	부상 사화와 흑치 마라(麻羅)와, 상투튼 보가 (莆家)며
蜺蠻之蜉 佛齊之牛	爪蛙之猴	연만(蜺蠻)의 굴조개, 조와(爪蛙)의 원숭이, 불 제(佛齊)의 소들은
海外雜種 同園咸育	絕儻殊俗	바다 밖 잡종으로 종류도 다르고 풍속도 판이 한데, 우리를 같이 하여 함께 자라도다.
古聖遠德 無遠不服	百蠻重譯	옛 성왕 덕화가 멀리 비쳐서, 온갖 오랑캐 중역 (重譯)으로 왔으니, 복종하지 않은 곳 없었네.
皇哉熙哉 遺風邈哉	大治廣博	크고도 빛나도다, 그 다스림 넓고 커서, 유풍이 오래 가리로다.

2. 眉叟 逐癘文

가. 소장자

동해시 송정동 鄭溶和

나. 재 원

현묘총괄(玄妙摠括)이라는 가로 18.4cm, 세로 20.2cm에 책장
수 32장의 책 속에 실려 있는 글이다. 책의 겉표지는 현묘총괄이

고 속표지는 참총류박(讖叢流粕)이라 되어 있으며, 속표지 다음장부터 20장이 필사되어 있고 그 다음 글이 쓰여지지 않은 빈 곳이 7장 있고 다시 필사된 1장이 있고 다시 빈 곳이 1장, 그리고 뒷표지로 마무리 되어 있는 책인데 미수 축려문은 필사된 20장 속에 있다.

다. 제작 시기

겉표지 안에 乙酉 秦月 望前이라는 일자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봐서 기유년 3월 14일에 필사된 것이다. 기유년은 단기 4242년(서기 1909년), 단기 4182년(서기 1849년), 단기 4122년(서기 1789년), 단기 4062년(서기 1729년), 단기 4002년(서기 1669년)등이 있는데 종이의 지질로 보아 조선 후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라. 미수 축려문 해석

미수 축려문을 보면 몇 곳에 필사 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여 글자의 순서를 바꾸라고 표시한 곳과 문장 배열에서 의문나는 곳이 있다. 먼저 眉叟 逐癘文이라는 제목 밑에 「末」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미수 축려문은 하나가 아니고 적어도 둘 이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初, 中, 末」이나 「初, 末」 또는 「始, 末」등의 편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목 밑에 '붉은 주사로써서 대문에 부치라'는 뜻의 「以朱書付門大」에 門자와 大자에 각기 방점(·)이 있어 門자와 大자가 바뀌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以朱書付門大」는 「以朱書付大門」으로 고쳐 잡았다.

끝으로 15번째 구절인 「曾退靖芳神則扶名」은 다른 구절과의 문장 배열이 적합치 않고, 「名」자 위에 「兮」로 보이는 글자가 덧씌어져 있고 「芳」자도 「兮」자와 비슷해 보여 필사할 때의 잘못으로 보고 필자 임의로 그 구절은 「曾退靖名神則扶兮」로 정정하였다.

眉叟 逐癘文은 필자가 해석을 하였으나 문장의 난해로 말미암아 미숙한 점이 많다. 앞으로 보충하여야 할 대목이 있을 것이니 강호제현의 지도 편달을 바라며 필자의 미숙한 해석문을 실는다.

眉叟 逐羈文 末

銷聲滅形 保頭顱兮 以朱書付大門	소성멸형 보두로혜 이주서부대문	앓는소리 사라지고 여귀의 형체를 멸하여 두로(머리)를 보호하리니 주사로 써서 대문에 붙일지니라.
后王建極 尊聖謨兮	후왕건극 존성모혜	후왕께서 만민의 법을 정하시니 존엄함 성인이시도다
回拓陽谷 亘玄菟兮	회척양곡 궁현수혜	양곡에서 해 다시 돌아 아득한 곳 찾아 비추니
齊肅秉止 休于孚兮	제숙병지 휴우부혜	엄숙하 삼가서 잡은 손 멈춰 하던짓 그만두고
逖矣北土 紛殊途兮	적의북토 분수도혜	멀리 북망산천 길 분주히 가거라
維閏元交 月魄蘇兮	유윤지교 월백소혜	남은 날 모여 윤달되니 달의 녋이 회생하고
蒼龍海芒 升外休兮	창룡해망 승외체혜	창룡이 넓은 바다에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도다
有女維肖 形睢于兮	유녀유소 형휴우혜	유녀와 유소가 눈 부릅뜨고 노리니
橐鍾磨礪 數起也兮	탁종마알 수구유혜	절구에 찧고 갈아 뭉게서 털 방석을 만들리라
霹靂前引 天鳥超兮	벽력전인 천조초혜	벽력이 앞에서 인도하니 하늘 새가 날아 오르고
揮霍百里 起須臾兮	휘정백리 기수유혜	번개불이 백 리에 휘몰아치며 순식간에 일어나도다

視祝听必 疑有無兮	시축은필 의유무혜	축수함을 보고 들으나 효험의 있고 없음이 의심되고
訛言沸騰 胥憂矣兮	와언비등 서우의혜	그릇된 말 물끓듯 하니 서로 근심하지 않으리요
或詰韜鈴 或瞽巫兮	혹힐도령 혹고무혜	혹은 무당 불러 굿하고 혹은 판수 불러 빌어도
人斯興妖 慢則巫兮	인사흥요 만즉무혜	사람에게 요사함만 일게 하니 무복이란 부질없는 것
曾退靖名 神則扶兮	증퇴정명 신즉부혜	일찌기 물리쳐 바른 길 세우면 신이 도우리라
於皇上帝 處清都兮	어황상제 처청도혜	옥황 상제는 옥청궁에 계셔서
降監化國 誅不逋兮	강감화국 주불포혜	하계를 굽어 살펴 다스리니 천벌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狺狺虎豹 雷電俱兮	은은호표 뇌전구혜	범과 표범이 으르렁 대고 천둥과 번개가 함께 치니
擘列剝斷 血糝糊兮	벽렬고착 혈모호혜	빠개고 찢고 쪼개고 베고 피도 없이 하고
寥開菁霽 民媴媴兮	건개골무 민순유혜	뻘을 갈라 골수까지 빼어 백성을 기쁘게 하리라
毋騰于天 張威弧兮	무등우천 장위호혜	하늘로 솟지도 못하리라 활을 당겨 쏠 것이며
毋潛于淵 沉牡犢兮	무잠우연 침모독혜	물 밑으로 숨을 수도 없으리라 숫송아지로 밟을 것이다.

雨雖醜類 點非遇兮	이수추류 점비우혜	너희가 추악한 무리일진대 날날이 보기 싫도다
速挈群匿 屏一隅兮	속설군닉 병일우혜	빨리 너희 무리를 이끌고 숨으라 한 구석으로 물러가라

V. 東海岸의 氣候와 災殃

이 글은 陟州 東海碑文과 眉叟 逐癘文을 대상으로 연구한 글이기에 許穆이 三陟府使로 부임한 때를 기점으로 전후 약 100년간 三陟地方과 東海岸 또는 太白山脈 쪽 산간을 중심으로 자연적인 氣象 災害와 그로 인한 疾病 災害에 대해 알아 본다. 그 근거는 陟州志와 陟州 先生案, 三陟郡誌등의 내용으로 했다.

■ 三陟地方 自然災害 日誌

- 단기 3886년(서기 1553년) 癸丑 7월, 큰 홍수가 남(大洪水).
- 단기 3889년(서기 1556년) 丙辰 12월, 지진이 일어남.
- 단기 3936년(서기 1603년) 癸卯 2월, 동해 바닷물이 붉게 변함(東海水赤).
- 단기 3938년(서기 1605년) 乙巳 7월, 수재가 나고 큰 비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넘쳤다(水災 大風雨 海溢).
- 단기 3980년(서기 1647년) 丁亥, 몹시 가뭄(旱災).
- 단기 3988년(서기 1655년) 乙未, 연년이 크게 가뭄(連年大旱).
- 단기 3992년(서기 1659년) 己亥, 동해물이 얼어 붙음(東海水合).
- 단기 3993년(서기 1660년) 庚子, 2월과 3월에 山火로 수 백 채

의 집과 수 백 명이 불에 타 죽음.
2월에 交柯驛이 火災를 당하여 200여 채의 민가가 불에 탔. 영동에 큰 기근이 들었음(嶺東飢饉).

- 단기 3994년(서기 1661년) 辛丑 5월, 서리가 내려 풀이 죽고 7월에 장마가 지고(大水), 8월에 또 서리가 내려 작물에 피해를 줌. 큰 흉년이 들었음.
- 단기 3995년(서기 1662년) 壬寅 7월, 큰 비바람이 몰아침(大風雨). 팔도에 려질이 크게 일어남(八道癘疾大起).
- 단기 4005년(서기 1672년) 큰 기근이 들었음(大飢饉).
- 단기 4014년(서기 1681년) 辛酉 5월, 강원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담장이 무너지고 기왓장이 날아 떨어짐. 양양의 바닷물은 끓는 물처럼 소리를 내며 끓어 올랐고, 설악산의 신흥사와 계조굴의 큰 바위가 무너졌다. 삼척에는 두타산 동석산성의 바위가 무너졌고 능파대의 바다 속에 있는 10여 척이 되는 돌이 중간이 부러졌다. 또 바닷물은 退潮 상태로 평일에 물이 차 있던 곳이 100보 내지 50~60보씩 드러났다. 정선 평창에서도 역시 산이 흔들리어 암석이 추락하는 변이 일어났다. 이후 10여 차례나 더 있었다.
- 단기 4018년(서기 1685년) 乙丑 7월, 대홍수가 났다(大洪水).
- 단기 4028년(서기 1695년) 乙亥 큰 기근이 들었음.
- 단기 4029년(서기 1696년) 丙子 큰 기근이 들었음(大飢饉).

- 단기 4030년(서기 1697년) 丁丑 5월, 태풍과 폭우가 내림.
- 단기 4031년(서기 1698년) 戊寅 전국에 염병이 번짐.
- 단기 4040년(서기 1707년) 丁亥 큰 홍수가 남(大洪水).
- 단기 4044년(서기 1711년) 辛卯 7월, 대 홍수가 남(大洪水).
- 단기 4051년(서기 1718년) 戊戌 염병이 크게 번짐.
- 단기 4053년(서기 1720년) 庚子 3월, 붉은 눈이 오(赤雪) 년말에
기근이 발생.
- 단기 4054년(서기 1721년) 辛丑 기근이 거듭 닥침.
- 단기 4064년(서기 1731년) 辛亥 큰 흉년.
- 단기 4065년(서기 1732년) 壬子, 흉년.
- 단기 4074년(서기 1741년) 辛酉 7월, 해일이 일어나 집과 접답
이 많이 떠내려 감.
- 단기 4077년(서기 1744년) 甲子, 대홍수가 발생 千古所無라 하
여 수백명이 물에 빠져 죽었음.
- 단기 4079년(서기 1746년) 丙寅, 흉년.
- 단기 4081년(서기 1748년) 戊辰, 지진이 일어남.
- 단기 4083년(서기 1750년) 庚午, 전염병이 만연.
- 단기 4084년(서기 1751년) 辛未, 소병(牛疫)이 만연.
- 단기 4089년(서기 1756년) 丙子 7월, 태풍이 와서 전답을 매몰
시켰는데 갑자년보다 더 심했음. 9
월에 곡식이 익지 않아 흉년이 됨.

위에서 보듯이 三陟地方에는 평균 6~7년에 한 번씩 큰 가뭄이
나 큰 홍수가 지고 기근이나 흉년 등의 자연 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眉叟逐稿文

未鉤頭賊形
以朱書付門犬

后王建極
巨玄蒐兮
休于乎兮
紛殊迹兮

維閏之交
蒼黃海芒
有女維肖
數罹瑜兮

釋歷前引
揮塵百里
視祝所必
訛言沸騰

或詰韜鈴
人斯與妖
曾退靖芳
於皇上帝

降監化國
信之帟豹
壁列割斷
事開晉霧

毋騰于天
毋潛于淵
甬雖醜類
速挈群臣

張威孤兮
沉牡犢兮
駐非遇兮
屏一隅兮

VI. 眉叟 逐癘文의 作者

逐癘文이라는 것은 돌림병이 창궐하거나 할 때, 돌림병을 옮기는 귀신을 쫓기 위하여 외우는呪文으로 특정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임기 응변적 구술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 돌림병이 돌면 축려문이라 할 것까지도 없이 입담 좋은 사람이나 卜者들이 돌림병 귀신을 어르고 달래어 쫓아 버릴 때 비손하는 말이다.

이것은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글줄이나 외던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남길 만한 가치도 없는 일반 백성들의 토속 주술 신앙인 것이다.

그런데 이 민간의 주술 신앙을 고차원적 문장으로 축려문이라 하여 정형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그 앞에 수식어로「眉叟」라는 글이 붙어 있으니 민간 주술 신앙이 한 차원 높아져 글줄이나 하는 선비 문학의 차원까지 끌어 올려져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성리학이 발달된 조선 시대라지만 돌림병이 돌면 속수무책이다. 돌림병에 공자왈 맹자왈이 통할 리 없고 글하는 선비라고 돌림병 귀신이 봐줄 리 있겠는가. 돌림병이 돌면 그 때마다 일반 백성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대로 지껄이며 그 못된 돌림병에서 살아 남기를 빌었을 것이고, 글줄이나 외던 선비들은 제법 문장을 지어 읽었을 것이다.

陟州志에 보면

「계미년에 중녀가 있었으니 봉두난발에 귀신의 물골로 왼손은 불에 데어 조막손이고 오른손은 칼에 베어 조막손인데 갑산 땅에 내려 왔다가 잠깐 사이에 하늘로 올라 갔다. 학사 허봉이 갑산 땅에 귀양갔다가 축려문을 지어 푸닥거리를 하였다. 박지화 선생이 듣고 말하길 십 년 있으면 큰 난리가 일어나 남쪽으로부터 이르리라 하였으니 이제 그 말이 과연 증험을 한다고 이르더라.」(癸未有

中女蓬頭而鬼貌左手掘火右手掘刀降于甲山俄而上天時許學士筭謫甲山作逐癘文以上禳之 朴枝華先生聞之曰十年當有大亂起自南方至此其言果驗云)

라고 하였으니, 갑산 땅에 귀양가 있던 허봉도 축려문을 지어 푸닥거리를 하였음을 알겠다.

許筭의 字가 美叔이니 허봉이 지은 축려문은 美叔 逐癘文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묘총괄〉이란 책 속에서 발견된 眉叟 逐癘文도 여러가지 축려문 가운데 眉叟라는 이름이나 號를 가진 선비가 지은 축려문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미숙 축려문과 미수 축려문이 어감이 비슷함을 볼 수 있으나 허봉이 지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眉叟라는 아호를 가진 사람이 지은 것으로 추단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三陟府使로 있던 許穆의 號가 眉叟이고 허목 재임시 전국적으로 돌림병이 크게 유행했고 대홍수와 해일로 삼척지방에도 돌림병이 크게 일어 났으리라 여겨진다.

陟州志에 보면 현종 3년 초에 돌림병이 돌았다는 기록이 있으니 「팔도에 돌림병이 크게 일어 났다. 임금이 대신들의 의견을 좇아 예관을 노농(단종농)에 보내어 빌게 하니 본부(삼척)와 춘천부가 같이 제수를 바쳤는데 7월 21일이다.」(八道癘疾大起上從大臣議遣禮官行禱于魯陵本府同春川府供祭需七月二十一日也)

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이르길

「24일에 큰비가 왔고 또 큰바람이 불어 지붕의 기와가 다 날아갔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혹은 뽑히고 혹은 부러지며 오십천의 물이 크게 불어나 논밭과 들이 모두 물에 잠겨 바다와 이어졌다. 나이 많은 노인과 백성들이 혹 말하길 어릴 때 어느 해 어느 달인지는 모르나 큰바람과 큰비가 있는 그 해에 크게 흉년이 든바 있는데 이제 또다시 보게 된다고 말한다. 바닷가 쪽이 가장 심하다.」(二十四日大雨又大風屋瓦皆飛合圍大木或拔起或摧折川水大溢田野沈沒連海耆老百姓等或曰兒時不記年月有大風雨其年大飢今又再見云蓋

海上最甚)

라고 하였으니 許穆도 허봉처럼 逐癘文을 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더욱이 眉叟 逐癘文은 眉叟 許穆이 지은 陟州 東海碑文과 같이 4언1구의 48구 192자로 되어 있으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구성이고 전체적인 문장 배열로 보아 허목의 소작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VII. 陟州 東海碑文의 性格

1. 祝文으로서의 陟州 東海碑文

朝鮮 시대 統治 思想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性理學이 지배하게 된다. 성리학자인 허목은 고전을 연구하여 訓詁學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한 사람으로 성현의 가르침을 법도에 맞게 실행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가 늦게 벼슬길에 들어선 것도 이를 牧民하는데 실천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

허목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경전의 자구 하나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는 사람으로 그가 보여준 통치와 목민에 대한 견해는 禮에 근본을 두고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허목이 삼척부사로 왔을 때 삼척지방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민심이 흉흉하던 때였다. 그해 2월에 산불이 나서 타 죽은 사람이 여럿이고 집이 불타는 바람에 맨몸으로 뛰어 나온자가 160여 명이나 되었다. 이어서 交柯驛이 불타면서 주변 민가 200여 채가 함께 타버리고 사람과 가축이 많이 타 죽는 변고가 발생한다. 뒤이어 3

월에 또 산불이 나서 민가 170여호가 불타 버리는 재난이 겹친 뒤였다. 허목이 부임하였을 때는 민심이 흉흉하여 다스리기에 애로가 많았을 것이다.

거기에도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여름에는 크게 가물더니 5월에 서리가 내려 농작물과 초목이 죽어 버렸고, 이어 7월에는 큰 장마가 지고 8월에 다시 서리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牧民官이 취해야 할 조처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출하고 민심을 어루만져 줘야 하는 것이다.

自然 災害는 人爲的으로 어찌할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統治者나 牧民官이 부덕한 소치에서 그런 재앙이 따른다고 믿는 시대였다. 그래서 가물면 임금이 평복으로 갈아 입고 근신하며 혹시 억울한 사람이 옥에 갇혀 그 한이 하늘에 이르렀는가 하고 감옥의 죄수들을 대사면하여 풀어주기도 하며,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덕이 없어 그렇다고 식음을 폐하고 친히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허목도 이러한 상황에서 몸소 근신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이다. 마침 삼척 사람들은 푸닥거리를 좋아하고 神佛에 빌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이다.

許穆 자신이 지은 陟州志에 봐도

「풍속은 음사를 좋아하고 그 백성은 검소하고 인색하며 재주가 많다.」(風俗好淫祠其民儉嗇多質)

라고 했고 東國輿地勝覽의 三陟都護府 風俗에 봐도

「무당과 귀신을 믿으며 사람들은 재주가 많고 오금잠 제사를 지낸다.」(信巫鬼 人性多巧 祭烏金簪)

라고 했으니 삼척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무당들을 불러다 푸닥거리도 하며 山川과 天海 등에 제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임을 알겠다.

허목도 삼척 고을을 다스리자면 삼척 사람들의 이러한 심성을 십분 이용하였을 것이니, 그들에게 영합할 수 있는 것은 致祭만이 민심을 수습하는 길이라 믿고 대대적인 致祭 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격식도 없이 하는 푸닥거리 대신 제문을 짓고 축문을 지

어 그들이 하던 행위와 비슷하면서도 엄격하고 격조 높은 유교적 致祭를 함으로써 종전의 祭禮와 차별화 시키면서 뭔가 무게 있고 품위 있는 致祭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작게는 최낭의 열녀문에 致祭하고 각 마을마다 里社를 지어 祝文을 짓고 致祭케 하였으며, 당시 큰 피해를 입힌 성난 파도를 다 독거리는 일도 해야 했다.

許穆은 동해바다 신(東海神)에게 祭祀를 지내기도 하였을 것이다. 水害를 物的으로 복구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을 것이니, 바다 신(東海神)에게 제사하여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災殃이 오지 않게 해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흥흥한 민심은 가라앉고 백성들은 희망을 걸고 생업에 종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許穆은 三陟 汀羅津 바닷가에 백성들을 모아 놓고 東海神에게 祭祀하며 이를 통해 三陟府民들을 결속시키고 재해로 상처 받은 마음을 위무했을 것이다.

東海神에게 祭祀하는데 祝文이 없을 수 없으니 그것이 지금의 陟州 東海碑의 碑文이었던 것이다.

동해 바다를 찬양하고 바다가 미치는 덕화를 기리며 자연과 사람의 조화와 合一을 추구하는 차원 높은 文章으로 지어진 祝文을 읊는 순간, 바다는 파도를 멈추고 모여선 백성들은 숙연해졌을 것이다.

東海神에게 고한 祝文은 許穆의 신비한 篆書體로 다시 쓰여져 아예 바다를 찬양하는 영원한 상징물로 바다 가운데 작은 섬 汀羅島에 세우게 되는 것이다.

許穆의 학풍을 이어 받은 丁若鏞의 牧民心書에 보면 祝文은 읽기 쉽게 4字1句를 이루게 지어야 된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글에 보면 祝祭文은 4字1句로 되어 있는 것이 상례이다.

陟州 東海碑文의 성격이 祝文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詩文이라면 詩文의 형식을 갖추어 지었을 것인데 陟州 東海碑文은 4字1句의 48句 192字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도 祝文의 성격

을 띠고 있고 碑를 세운 시기가 自然 災害 뒤에 세운 것이기에 東海神에게 祭祀하며 읽은 祝文일 가능성은 크다고 보겠다.

許穆이 지은 각 마을의 里社의 祝文도 4字1句로 되어 있고 平水土贊碑文도 4字1句로 되어 있으며 사직단의 축문도 4字1句로 되어 있다.

陟州 東海碑를 세우게 된 것은 허목이 牧民官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致祭를 근본으로 삼은 교화의 방편으로 만든 것이며, 그 비문은 東海神에게 祭祀할 때 쓰여진 祝文이라고 본다.

2. 風浪으로 激沈된 陟州 東海碑

현재의 陟州 東海碑文에 의하면 처음 東海碑를 정라도에 세웠는데 풍랑에 의해 부러져 바다에 빠졌으며 48년 뒤인 숙종 35년에 다시 세웠다고 되어 있다.

첫번째 碑가 激沈되어 바다에 빠진 원인은 무엇일까. 碑文의 내용대로 풍랑에 의해 격침되어 바다에 빠진 것일까. 아니면 당쟁으로 인한 반대당 사람들이 일부러 부러뜨렸다는 주장대로인지 살펴보자.

첫번째 東海碑를 세운 것은 현종 2년으로 단기 3994년(서기 1661년)이고, 두 번째 다시 세운 때가 단기 4042년(서기 1709년)으로 그 사이가 48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운 현재의 碑文 내용에 보면 첫번째 東海碑가 부러져 바다에 빠진 것을 許穆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 다시 비문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48년 사이의 삼척지방 기상 이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허목이 죽기 1년 전인 단기 4014년(서기 1681년) 5월에 강원도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조실록에 의하면 이 해 5월 11일 강원도에 지진이 일어나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담장이 무너지고 기왓장이 날아 떨어졌다. 양양의 바닷물은 끓는 물처럼 소리를 내며 끓어 올랐고 설악산 신흥

사와 계조암의 큰 바위가 무너졌으며, 삼척에서는 두타산의 動石山城의 큰 바위가 무너졌고 능파대의 바다 가운데 있는 10여 척이나 되는 돌기둥의 중간이 부러졌다. 이 돌기둥이 바로 추암의 촛대바위 앞에 있던 또 다른 돌기둥이었다. 또 바닷물은 退潮 상태로 되었는데 평일에 물이 차 있던 곳이 100보 내지 50~60보씩 드러났다. 평창, 정선에도 역시 산이 흔들리어 암석이 추락하는 변이 일어났다. 이후에도 10여 차례나 지진이 더 있었는데 이 지진은 전국적이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지진 활동 때문에 정라도에 세웠던 東海碑도 부러져 바닷물에 빠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海惡 즉, 海溢이나 潮水를 막고자 세웠다는 碑가 地震과 함께 밀어닥친 풍랑(해일)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許穆 자신이 바다를 너무 과소 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처음 東海碑를 汀羅島에 세운 것 자체가 파도가 세봐야 돌로된 碑를 격침시키려 했을 것이다.

정라도는 大洋에서 오는 큰 파도를 곧 바로 받아야 하는 야트막한 바위섬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곳에 碑를 세운 것부터가 격침의 소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쟁으로 인한 반대당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부러뜨렸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추측일 뿐이다.

처음 세운 東海碑가 격침된 것은 碑를 세운 지 20년만의 일로 許穆이 죽기 1년 전으로 본다. 그래서 허목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글을 써 두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운 현재의 陟州 東海碑文에 의하면 풍랑으로 碑가 격침된 소식을 듣고 다시 글을 썼다는 내용이 있으니 허목이 죽기전에 첫번째 碑가 격침되었다는 증거인데, 적어도 그 때는 南人이 집권할 때였다. 그러니 반대당 사람의 훼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후 삼척지방에 연이은 災害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번째 碑가

격침된지 4년만에 삼척에 大洪水가 나고 10년뒤에 大飢饉이 2년 연속으로 생기고, 다시 1년 뒤에 큰바람과 큰비가 내리고 다시 10년 뒤에 大洪水가 일어나자 府使 洪萬紀가 사람을 보내어 글을 얻어 오게 하여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첫번째 東海碑가 격침된 것은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당쟁으로 인한 반대당의 훼손이 아니라 지진과 거대한 파도에 의해 격침된 것이다.

3. 退潮碑라는 이름의 虛構

陟州 東海碑를 일명 退潮碑라 하여 潮水를 물리친 碑라 전해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東海바다에는 밀물이나 썰물이 없는 곳이다. 그것은 許穆 자신도 잘 알고 三陟 사람들도 잘 아는 일이다.

許穆 자신이 지은 東海碑文에 보면

「동북쪽 모래 바다여서 밀물과 썰물이 없어 이름하여 대택이라 한다.」(東海沙海無潮無汐號爲大澤)

라고 하였으니 애시당초 동해에는 밀물이나 썰물이 없기 때문에 退潮碑운운은 맞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수란 무엇인가? 있지도 않은 조수를 굳이 찾자면, 허목이 말한 海惡 같은 것일 것이다.

陟州志에 보면

「동해는 동쪽 남쪽 북쪽으로 끝없이 펼쳐져 항상 큰 바람과 파도가 많다. 파도가 바닷가를 치면 열길이나 되는데 오직 서풍이 불면 바다가 고요해진다. 그래서 여풍(북서풍)이 불면 바다가 요동친다. 혹 바람이 없는데도 파랑이 일면 모두 해악이라 이른다.」(東海東南北無際常多大風波浪拍岸十丈惟西風海靜然厲風則海動或無風波浪皆謂之海惡)

라고 했는데 潮水를 굳이 찾자면 여기에 나오는 해악(海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해악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日本과 우리 나라 사이에 있는 東海 한가운데나 일본 쪽에서 地震이 발생하면 그 여파로 해일이 일게 되는데, 그 해일이 몰려오면 오십천이 역류하고 논밭과 집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自然 災害로 인위적으로는 막지 못한다. 하물며 碑 하나 세웠다고 그런 자연 재해가 생기지 않겠는가? 실제로 처음 세운 東海碑도 풍랑과 地震 때문에 부러졌고 그래서 두 번째 碑는 파도로부터 안전한 죽관도(육향산) 동쪽 기슭에 세워 碑가 다시 부러지는 일은 없게 됐지만 海惡을 막지는 못했다. 두 번째 碑를 세우고도 檀紀 4044년(서기 1711년)에 大洪水가 있었고, 단기 4074년(서기 1741년)에는 海溢이 일어나 많은 집들이 漂沒되었고, 단기 4077년(서기 1744년)에는 千古所無의 大洪水가 일어나 매몰되고 떠내려간 백성이 수백 명이라 했다. 단기 4089년(서기 1756년)에는 큰 태풍이 불어와 논과 밭이 매몰되고, 죽은 자가 많아 千古所無라는 단기 4077년의 水害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한다.

결국 陟州 東海碑는 있지도 않은 潮水를 물리치는 退潮碑요, 가끔씩 몰려오는 해일이나 큰 풍랑도 막지 못하는 碑인 것이다. 그러니 陟州 東海碑를 退潮碑라고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VIII.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 지으면

1) 陟州 東海碑는 처음 許穆이 汀羅島에 세웠는데 20년 뒤 지진과 해일에 의해 격침된 것을 48년 뒤 府使 洪萬紀가 다시 제작 竹串島(六香山)에 세웠고,

- 2) 아울러 당쟁으로 인한 반대당 사람들이 파괴한 것은 아니며,
- 3) 陟州 東海碑文은 당시 해일로 인한 수해 때문에 東海神에게 祭祀하면서 고하던 祝文이었는데 나중에 碑文으로 되었다.
- 4) 眉叟 逐癘文은 許穆이 당시 수해로 인해 돌림병이 확산되자 지은 것이 확실하고
- 5) 陟州 東海碑를 세워도 海惡인 海溢, 波浪은 밀려오고
- 6) 東海岸은 애초에 潮汐이 없으니 退潮碑 운운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7) 척주 東海碑文과 眉叟 逐癘文은 다같이 4言1句의 48句 192字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陟州東海碑는 許穆 재임시에 발생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백성들을 위무하고 불가항력적 天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三陟府民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와 성난 파도를 달래려는 뜻에서 東海神에게 祭祀를 올리면서 東海神에게 고하는 祝文을 碑文으로 하여 세운 것이다. 아울러 眉叟 逐癘文도 이와 같은 災害 뒤에 오는 돌림병을 막고자 지은 것이다.

太白山 巫俗村 建立 計劃

金 剛 山

(韓民族巫覡人協會長)

1. 무속에 대한 인식 정리

가. 무속의 개념과 특성

《무속의 개념》

무속(巫俗)은 엑스타시(忘我)와 같은 이상심리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접하여 얻은 신령한 능력을 통하여 점복, 예언, 제의, 천도 등을 행하는 무격(巫覡)을 중심으로 하는 제반 주술이나 종교현상으로 원시신앙을 말하며 샤머니즘(Shamanism)이라 한다.

《무속의 특성》

무속(巫俗)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집합체요 화석(化石)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들이 읊조리는 사설은 가치가 커서 우리의 전통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들이 입은 복장은 전통의상을 연구하는 대상이며, 그들이 추는 춤은 무용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우리의 전통춤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巫歌)는 전통민요의 뿌리가 되어 전국적으로 지방민요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판소리나 산조 등의 예술음악 형성에 크게 기여 하였다. 무속인들의 집단생활과 세습무의 전승은 전통사회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악기, 신내림으로 인한 공수와 제의 등은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편린으로 보존하고 정리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나. 무속의 형태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들은 고대사회에서는 통치자의 권위를 누리기도 하였으니 고조선 시대에는 단군이 무당이었고, 삼한시대에는 영고, 무천, 동맹, 교천 등이 무당이 집전하는 의식이었다.

무속은 인류문명사에 등장하는 모든 종교의 원초적 형태라 할 수 있으며, 현대의 기성 종교도 샤머니즘적 요소를 완전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여러종교의 원초적 형태가 샤머니즘적 충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고유종교에 있어서 그 원류이며, 그것은 인류 원초 심성의 신앙체계인 것이다.

다. 태백산과 무속세계

무속은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합일이라는 대원칙이 있기에 대자연의 하나의 신격화하는 양상이 대두되어 다신화하고 대자연 자체를 모태로 보기에 산천을 의지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 진다.

태백산은 국토의 뿌리산으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이 되며 백두대간의 중추로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의 분기점에 자리하여 무속인

들에게는 뿌리산이자 본산이며 거룩한 신산으로 여기는 신성한 영산인 것이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태백산으로 많이 몰려오고 태백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굿하지 않은 무당은 행세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태백산에서의 무속행위는 그 역사가 수천년이 되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척주지등에 나타난다.

2. 무속행위의 집단화 필요성

가. 전통문화 보존측면

고대 부족사회로 부터 민족전통문화의 맥으로 이어져온 토속 신앙의 뿌리를 무속신앙을 통하여 보존, 정리될 필요성이 있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편린들을 보호하여 우리것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킨다.

우리것이 천박하고 고리타분하며 미신적요소이며 버려야할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쯤으로 여기는 발상은 외래문화의 비교 우위론에서 나온 단순 비교의 발상이며 우리것은 버리고 남의 것만 취했을 때 결국은 우리의 뿌리는 부실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것 우리 문화는 소중한 것이며, 어느것 하나 버려서는 안된다.

무속문화도 우리의 전통문화의 한 갈래이고 그것은 우리 겨레의 심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고, 미술, 음악, 사회, 정신세계 등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가까운 일본도 무속문화 보존에 힘쓰고 있고 미국, 캐나다 등도 사라져가는 인디언들의 무속문화를 보존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나. 자연생태계 보존 측면

태백산 도립공원 지대는 자연생태계 보존지구에 준하는 지구대로 보존적 관광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 공생적(共生的) 마케팅(Symbiotic Marketing)의 관광시책 도입이 필요한 적기로서 무속촌을 집단화 함으로서 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병행시키는 보존적 개발방식(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으로 전환시키는 기본모델로 삼아 태백산 생태계 보존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다. 관광자원 이용 측면

세계 총생산(GNP)의 12%를 점유하는 제3의 수출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이 환경오염으로 부터 심한 도전과 저항을 받고 있고 세계적 노력의 대응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태백산 도립공원지구 내 무속행위, 무속인, 참배자등 유무형의 신앙지를 집단화 함으로서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고 1990년대 후기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의 제4차 산업구조(여가산업)속에 의례적 심리적 행위, 비 직업적 기술의 습득, 모험, 공연등의 여가활동이 증가 전망 추세에 맞추어 전국 제1의 무속관광산업 명소로 세계적 문화자원이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다.

3. 무속촌 집단화를 위한 가능성 모색

가. 집단화를 위한 기본전제

- 민족전통 토속신앙의 보존 계승발전으로 민속신앙의 상품화(세계관광시장 점유)

- 태백산 무속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제도적 보존실례로 도입 태백산 관광의 보존과 개발의 이원적 운용사례로 표출
- 태백산 무속촌의 문화관광자원의 소재별 불거리 산출
- 태백산 특화산업으로의 무속관광산업 관광상품화 전개

나. 무속인 · 참배자 방문추산

(단위 : 명, %)

구 분	관 광 객	토속신앙자(평균)	비 율	비 고
'92년	150,000	20명/일 × 365일 = 7,300	4.86	전통신앙활동자
'93년	220,000 (태백산입장료 관광객 64,137)	30명/일 × 365일 = 10,950	4.97 (17.0)	전국굿대회개최 참여기회유발
'94년 추 정	350,000	40명/일 × 365일 = 14,600	4.17	관광홍보신앙 효과접수

※ 년도별 방문객의 20% 차지(조사대상제외 25%)

다. 태백산 환경보존 활동점유율('93년도 기준)

- 자연정화활동 : 33회 28개 단체 4,192명 참여
- 쓰레기 수거량 : 6,573kg

태백산 자연정화활동에서 일반 관광객의 쓰레기 등 오염원보다 무속활동에 따른 각종 제수품과 무속인 참배객(기도, 굿)이 버리고 방치한 음식품 등 관련 쓰레기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하절기에는 돼지머리 등의 방치로 환경공해유발 태백산 관광 이미지 추락)

○ 손실비용(년간) : 총 3,857백만원

◦ 참여활동손실금(A)

$6,190\text{원} \times 4\text{시간} \times 4.192\text{명} \times 33\text{회} = 3,425\text{백만원}$

※ 단가는 참여자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공무원 7급(10호봉)기준 시간당 인건비 적용

◦ 활동지역간 운송비용(B)

$620\text{원} \times 2,280\text{대} \times 2\text{회} \times 4\text{명} \times 33\text{회} = 373\text{백만원}$

◦ 쓰레기 수송비(C)

$30,500\text{원(인건비 포함)} \times 33\text{회} \times 2\text{대} = 2\text{백만원}$

◦ 생산, 직무활동 손실율(A+B+C) 1.5% = 57백만원

라. 무속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93년 기준)

① 경제적 직접효과 657백만원 (월 54백만원)

· 제수품등 구입 : $50,000\text{원}/1\text{회당} \ 10,950\text{명} = 547\text{백만원}$

· 교통비 등 : $10,000\text{원} \times 10,950\text{명} = 110\text{백만원}$

② 경제적 간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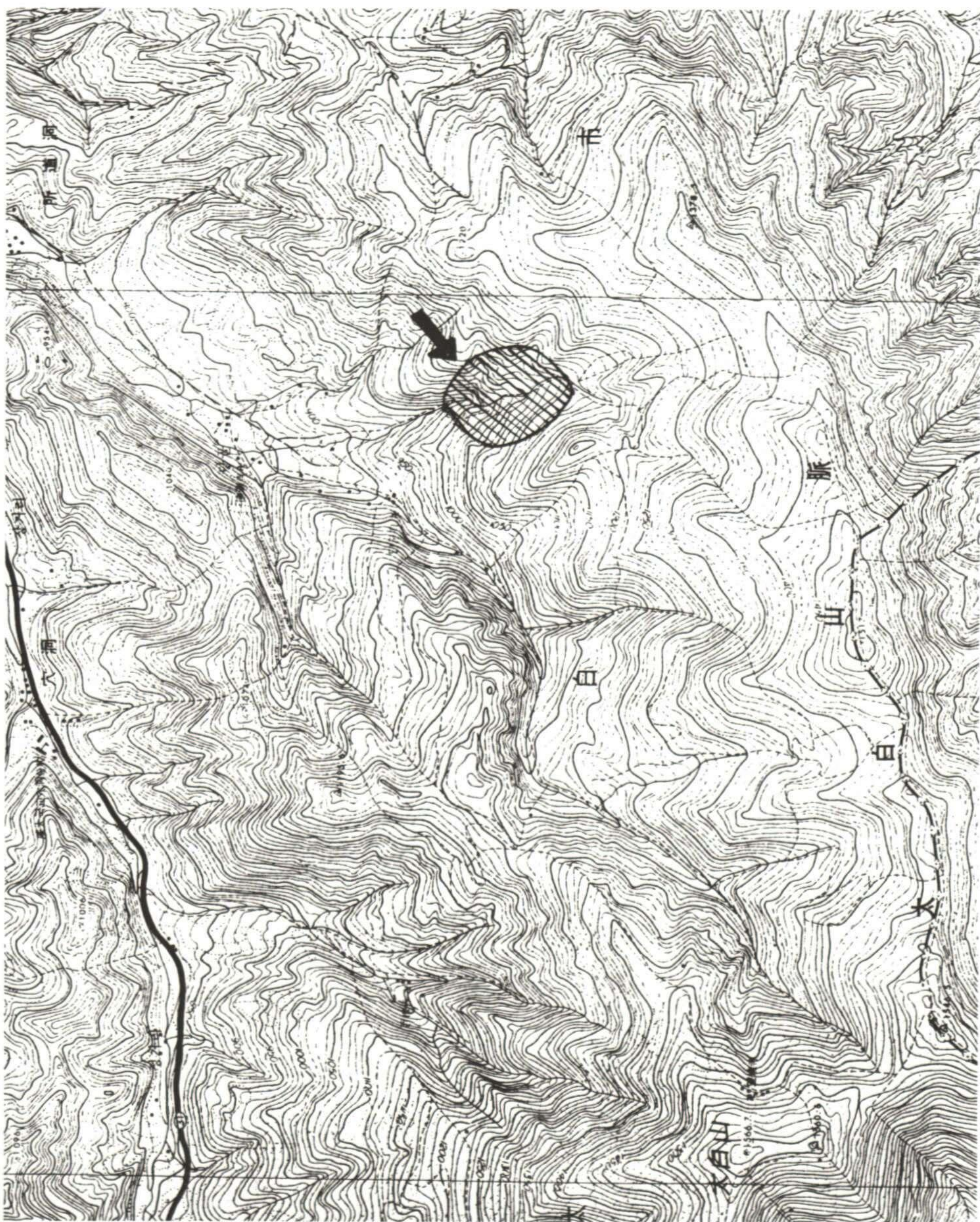
지역 경제활동의 소득효과가 높아지고 경제 승수율 1.0%로 관광소득 승수율과 같은 효과의 비를 가져옴.

4. 무속촌 조성계획

가. 설치장소

◦ 태백산 도립공원내 산제당골 일원 3천평

나.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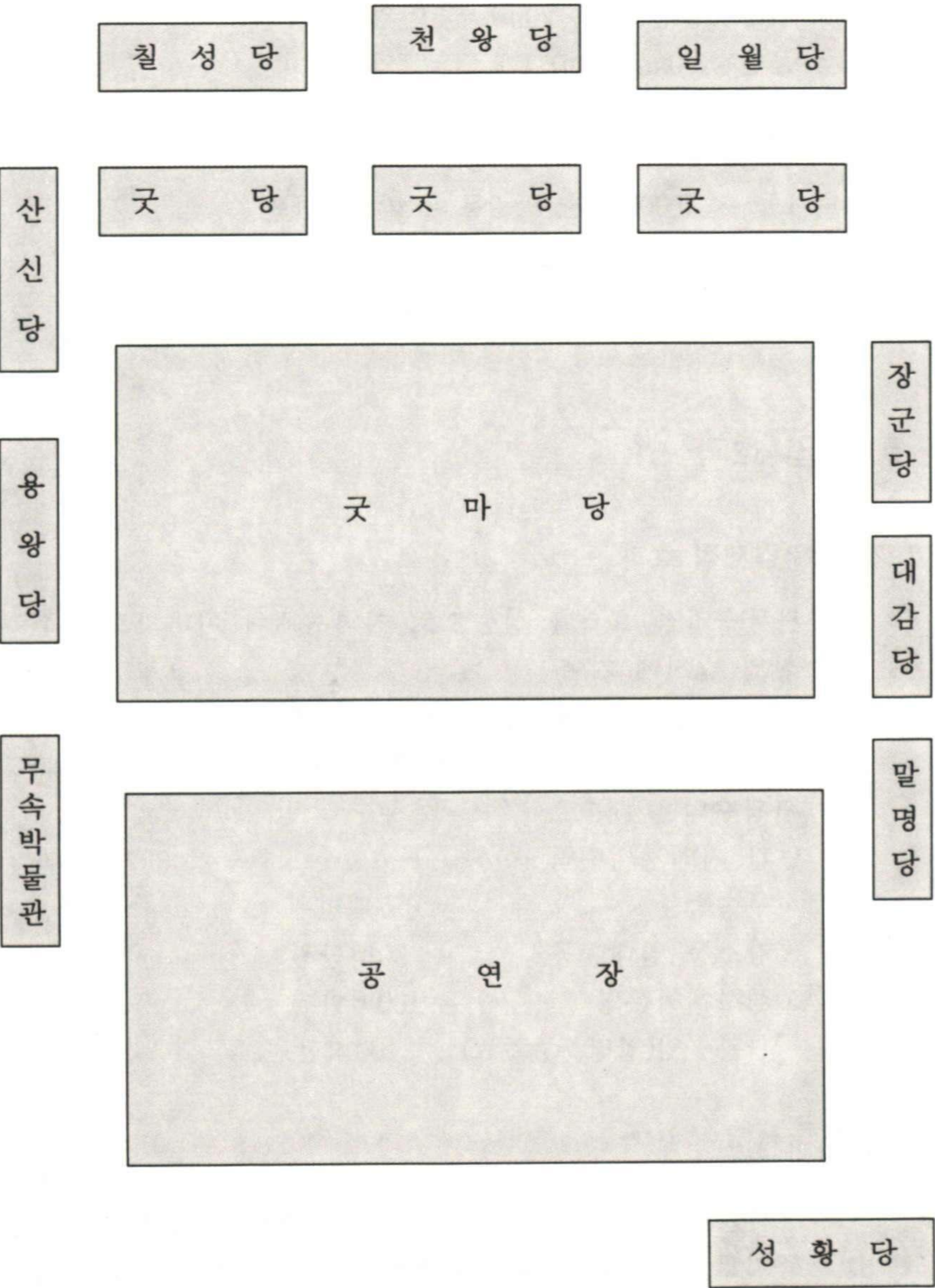
다. 사업추진 주관

- 한민족 무격인 협회

라. 시설물

◦ 굿 당	_____	1개소
◦ 무속박물관	_____	1개소
◦ 공연장	_____	1개소
◦ 굿마당	_____	1개소
◦ 산신당	_____	1개소
◦ 칠성당	_____	1개소
◦ 천왕당	_____	1개소
◦ 일월당	_____	1개소
◦ 용왕당	_____	1개소
◦ 장군당	_____	1개소
◦ 대감당	_____	1개소
◦ 말명당	_____	1개소
◦ 성황당	_____	1개소
◦ 돌탑	_____	100개소

마. 시설 배치도



바. 예산 : 총 15억원

- 굿당(10m×5m) 3개소 × 1억 = 3억원
- 무속박물관(30m×20m) = 3억원
- 공연장(50m×30m) 1개소 = 1억원
- 굿마당(30m×20m) 1개소 = 5천만원
- 산신당(12m×5m) 외 8동
1동 × 5,000만원 × 9동 = 4억5천만원
- 돌탑(밑둘레 6m×높이 15m) = 100개 제작(자연석)
1기 × 3,000,000 × 100 = 3억원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적 효과

- 관광수익적 효과율 상승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
- 무속촌 입장, 참배, 방문객에 대한 입장료 수익
- 영화촬영장, 무속인 교육의 장 임대, 전국 굿마당 개최 등 관광수익을 제고
- 연간 지역경제수익 887백만원
 - 무속활동 = 657백만원
 - 장소등 임대활동 = 30백만원
 - 행사개최운영 = 100백만원
 - 관광수입(입장, 주차료) = 100백만원

나. 관광 효과

- 태백산 도립공원 관광객 및 무속인 집단촌 방문 이용객의 증가로 관광도시로의 기반조성

- 전국 무속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굿대회 개최 및 전통민속 신앙의 재현 등 계승발전의 메카로 이미지 부각
- 무속활동 집단화로 무속관광산업으로 정착

다. 자연생태 보존효과

- 자연훼손 방지로 태백산 관광지 보존에 이바지 하고 산불 위험 요소로 부터 배제

6. 추진 사항(토론회, 건의 등)

가. 무속촌 건립 시민 토론회 개최

- 일 자 : 1993년 9월 21일
- 장 소 : 태백문화원 강당
- 참 석 : 무속인 125명, 시민 36명
- 토론진행 : 자유토론식

나. 무속촌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 일 자 : 1994년 1월 20일
- 장 소 : 문화원 강당
- 명 칭 : 한민족 무격인협회

다. 설립계획 건의

- 강원도
- 태백시, 태백시 의회

라. 전국 굿대회 개최(3회)

- 일 자 : 1993. 10. 3 ~ 10. 5 (1회)
 1994. 10. 3 ~ 10. 5 (2회)
 1995. 10. 3 ~ 10. 5 (3회)
- 장 소 : 소도 당골 공설운동장
- 참석대상 : 전국의 무속인
- 참가인원 : 연인원 550명
- 관 랑 객 : 연인원 53,000명

※ 위의 글에서 각종 통계자료는 이명진씨가 제공하였음.

● 태백시 남·여 백일장 중등부 (시부) 장원 작

낙 동 강

김 영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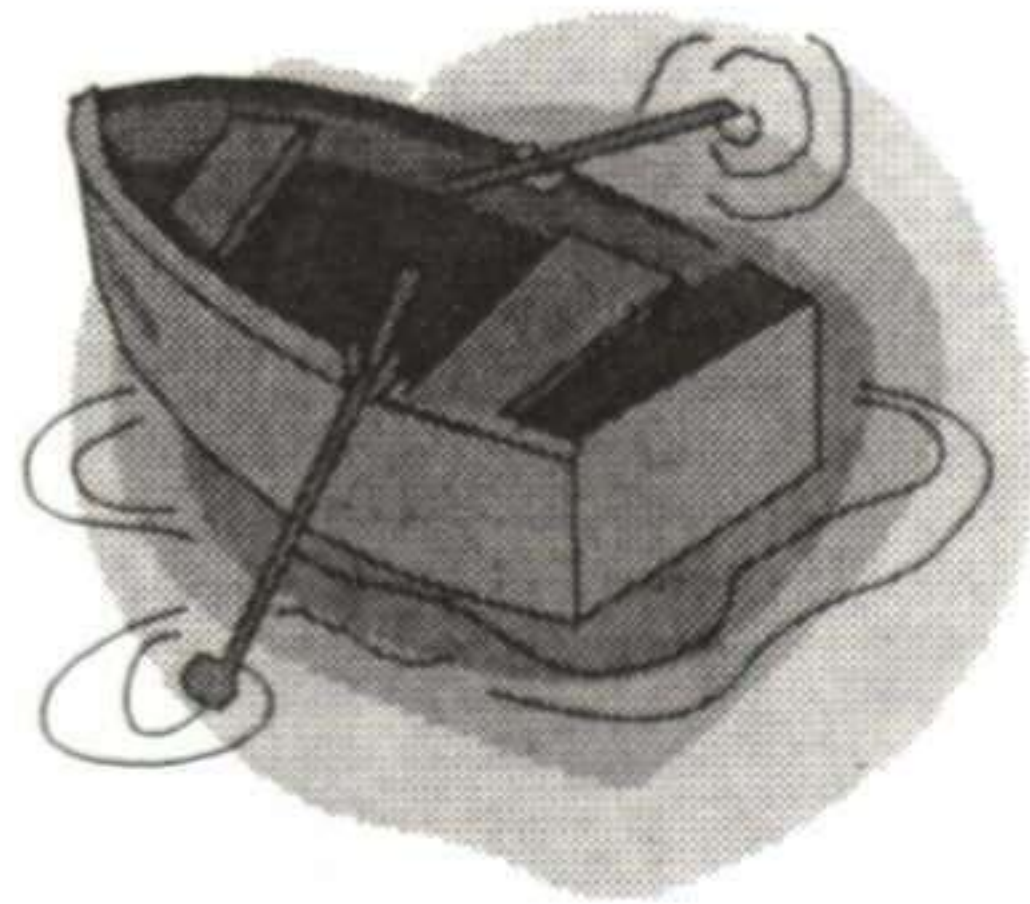
황지중학교 3학년

낙동강 굽어 흘러
산도 들도 길도 지나
바다에 도달하니
그 길이가 1300리다.

어렵고도 험난했던
그 흐름
오랜세월 역사와 함께해온
그 끝없는 이야기들

바위와도 부딪히며
산과 이야기 하고
하늘보며 생각하고
흐르고 또 흘러

그제야
한반도에
한획을 그었다.



◆ 태백시 남·여 백일장 중등부 (시부) 차상 작

구문소의 깊은 물

박 정

상 장 중 학 교

그 옛날
신라왕자와 봉화미녀의
사랑의 버팀돌이 되어주던
구문소의 깊은 물

구문소의 깊은 물 만큼이나
깊은 그들의 사랑에
연민의 정을 쏟아 주었던
구문소의 깊은물은

봉화미녀의 소중한 비녀를
봉숭아 싹처럼
곱게
간직하여

마침내는
그들의 사랑에
깊고 깊은 징검다리를
건네 주었다.

어쩌면
구문소의 깊은 물은
그들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하늘 일지 모른다.

나는
구문소의 깊은물에
구름같은 나의 맘을
살포시 띄워본다.



● 태백시 남·여 백일장 중등부 (시부) 차하 작

바 람

김 인 식

철암중학교 3학년

환웅과 함께와서

수천년을 살았지만

원한이 맺혀 울어 부는지

세상이 괴로워 심술 부는지

삶에 지친 나뭇잎을

후려치는 듯

다가올 내일 세상의 문을

막아서고 있구나!



태백시 남·여 백일장 중등부 (시조부) 장원 작

낙 동 강

박 정 균

태백중학교 3학년

호랑이 등골속에

흐르는 민족의 젖줄

검용소 푸른 물결

낙동강에 부딪치면

터지는 물방울 소리

내 가슴에 용트림 친다.



✿ 태백시 남·여 백일장 중등부 (시조부) 차상 작

바 람

이 은 실

황지여자중학교 3학년

바람은 처음부터
세상에 뜻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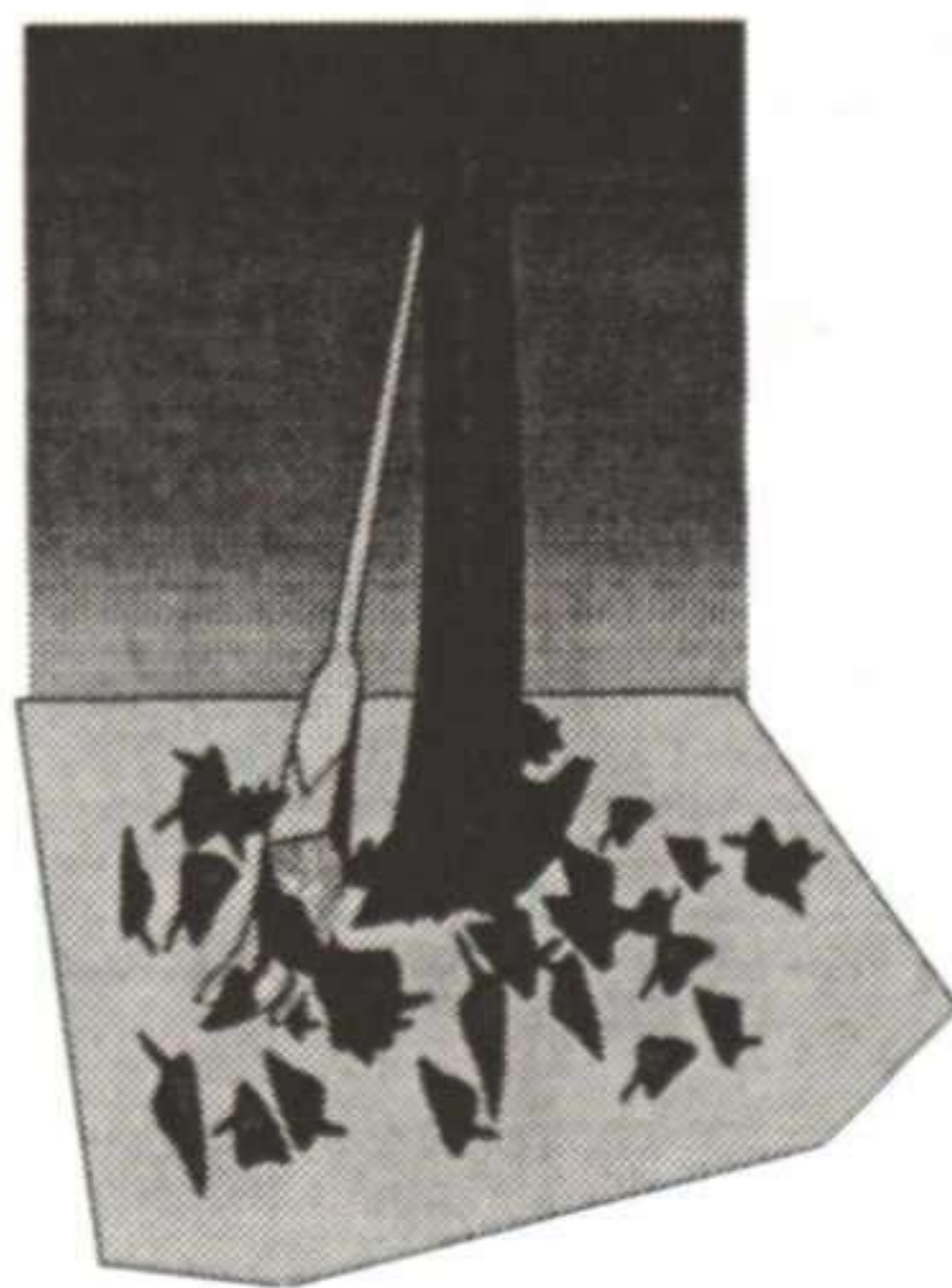
이날토록 빈 하늘만
떠돌아 다니지만

지금은 가야한다는듯
꽃잎하나 떨군다.

떨어진 꽃잎밑엔
새롭게 돌아나는

조그만 새싹은
어려운 역경속에서

큰나무 되기를
기원하며 자라난다.



태백시 남·여 백일장 중등부 (시조부) 차하 작

구 문 소

진 자 영

장성여자중학교 2학년

강물이 돌고돌아

이곳까지 왔는가

굽치는 물결마다

사연들은 많건마는

지금은 어찌하여

구무와 풍강 뿐인가

예부터 지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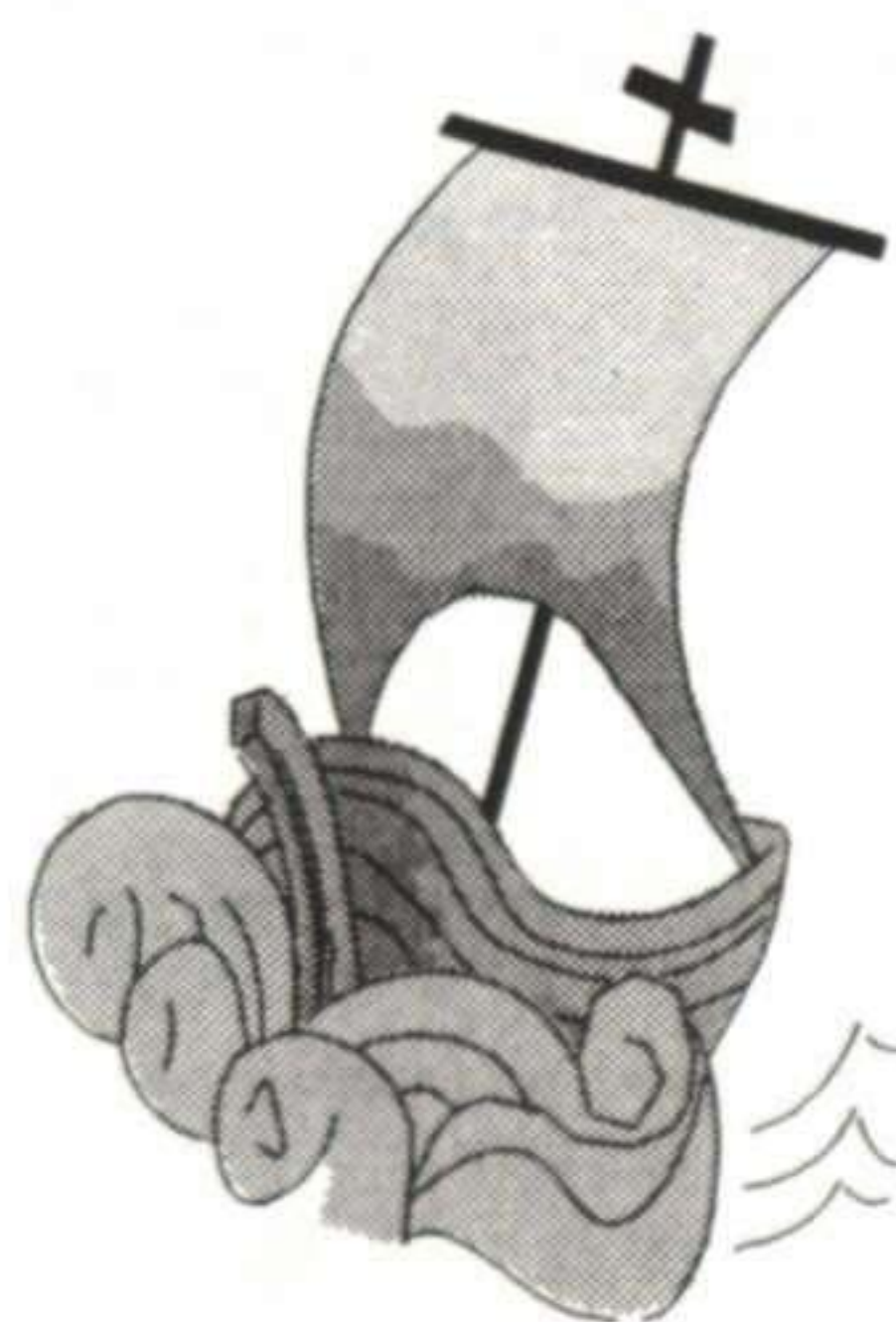
말없이 흐르는 물

세월의 흐름과

수많은 이야기 담고

지금도 여기에서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전설의 길목에서

정 현 주

상장중학교 2학년

흑염소를 몰고 가는 할아버지, 그리고 구문소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 이것이 내가 구문소에 와서 처음 본 광경이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때 뭔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 까닭은 왜 일지

그리고 이곳의 전설을 들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미녀와 호동왕자의 사랑 얘기, 엄씨 어부의 부자가 된 이야기

그래, 여기는 정말 전설의 터전인가 보다. 그래도 내가 여자여서 그런지 호동왕자와 미녀의 애뜻한(?) 사랑얘기에 관심이 많다. (근데 왜 전설 속의 여자는 다 예뻐까?)

사랑이란 사람의 목숨까지 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지녔나보다. 그 미녀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으니,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건 호동왕자, 어떻게 그 미녀가 정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인에게 아픔을 남길 수 있었을까? 하늘의 도움(?)으로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지금 강물은 흐른다.

저 강물도 구문소의 전설, 그 미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피, 나도 저 물에 몸을 빠뜨리면 멋진 사랑의 해피엔딩이 이루어 질까? (어휴, 내가 왜 망상을!) 그 미녀와 호동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궁궐문이 새벽 1시에 열려 그 편안한 곳으로, 행복한 그들만의 세계로 갔을지도 모르겠다.

이 구문소의 바위는 일본 사람들이 뚫어 냈다고 한다. 일본 사람이 구문소를 뚫은 것, 지금 이렇게 도로가 생겼으니 잘했다고 해야 될까? 하지만 어쨌든 그 미녀의 정취가 사라졌으니까

선생님들께 설명들은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구문소, 맑았던 강물, 어부가 용궁의 닭을 잡았다는 그 강, 하지만 오염되어 있는 게 지금의 구문소인가?

그리 오염되었다고 할 순 없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 조금 신경질도 나고 서운함도 남는다. 정말 깨끗한 강물이면 좋을텐데 그러면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즐거워질지도 모르겠다.

“어휴 추워”

같이 온 친구들은 모두 몸을 움츠렸다. 나역시 너무 바람이 찬 탓인지, 감기나 걸려 돌아가는 건 아닐까?

혹시 그 미녀가 자살 기도 할 당시가 이렇게 추웠던 건 아니겠지? 물소리가 강하게 컷전을 때린다. 바람도 많이 잔잔해 졌고... ..

내가 앉아 있는 자개루에서 언제 또 궁궐 문이 열릴 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이킹을 떠나는 듯 한 두 소년, 나도 이젠 이 구문소를 떠나 집으로 가겠지. 오늘 밤엔 꿈 속에서라도 이 구문소에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미녀와 호동왕자도 만나야지.

지금 그 미녀의 미소를 느끼듯이..... !



지금의 모습은 버리고...

안 미 라

장성여자중학교 1학년

사람들은 너무나 저의 마음을 몰라 줍니다.

제가 병이 들어도 제가 남해로 흘러가기까지 많은 미움도 받고 하는데도 이곳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생활밖에 모릅니다.

제가 더럽다고, 제가 지역의 걱정거리로만 남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뿐 누구하나 내 모습을, 고운 내 머리, 맑고 맑아 햇빛의 아름다움이 내 몸을 비치었던 내 모습을, 찾아 주려는 사람은 모두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내 출생시에 황부자 그 구두쇠를 죽이고 태어났다고 이리 구박한단 말인가? 솔직히 내가 맘대로 생긴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금의 인간들은 너무한다. 합성세제, 기름, 농약, 폐수들로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나 몰라라 등 돌리고 내가 더럽다구 욕만 하고.....

도대체 왜 내가 이곳을 흘러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살아서 이 산맥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신비로울 뿐이다.

내가 말을 할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향해 애원하고 싶다. 제발 살려달라고.

낙동강!

내 이름 석자, 이 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라지만 이젠 내 자존심

보다 살고싶다는 마음뿐이다. 내가 살아 온 그 시간만큼 전설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이젠 전설등의 사람들의 관심은 싫다.

이젠 제 몸의 회복을 다시 찾아 줄 사람만을 기다린다. 순진한 아이들, 앞으로의 희망이 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더러운 내 모습보다 깨끗한 내 모습을, 그 깨끗한 내 모습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싶다.

이젠 이 더러운 내 겉모습을 버리고 내 진실한 그 모습을 보이고 싶다.

만약 전 그 깨끗한 모습을 찾는다면 지금의 모습으론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으로 검게 물든 모습이 아닌 행복, 웃음으로 맑은 내 모습을 다시 찾아 간직할것입니다.

더러운 내 모습을 버리고서.....



심옥세의 반란

유 정 이

황지여자중학교

그날따라 학교교실 바닥에서 내가 썩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조금씩 스며드는거 있지.

내 머리위에 내리치던 까만 출석부와 선생님의 조롱섞인 눈빛, 더 이상 교실바닥에서 썩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날 지배하게 된 그날, 그날 내게 일어났던 일 중 기억나는건 이 두 가지 밖에 없어.

“정이야, 너 16살이지?”

난 16살 때 처음으로 담배란걸 피워봤어. 그 일이 있는지 일주일뒤였던것 같아. 내 친구가 내민 담배 한 개피를 처음 입에 대보았을 때, 알 수 없는 희열감을 느꼈었어, 모순투성이인 학교에 대한 반항심이었던 같기도 하구.

그날부터 난 담배 습관처럼 피워댔어. 그러면서 본드도 배웠구. 난 항상 날라리들과 함께였던거 같아. 그 애들과 있으면 가식적으로 날 꾸미지 않아도 되는게 좋았어. 규칙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그날 이후 난 기분대로 살았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건 알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그 까만 출석부의 기억을 잊고 싶었거든.

어느날, 난 학생과에 개처럼 끌려갔어. 학교 꼭두각시가 흡연을 했다는걸 알고 질렸나봐.

학생과 선생님의 가시같은 충고를 들으면서 맘껏 울어도 보고 싶어거든. 하지만, 하지만 난 그럴수가 없었어. 이미 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나봐. 생각치도 않았던 반항적인 말들을 선생님에게 쏟아냈어.

통쾌하더라.

그리고, 황당해 하시는 선생님 앞을 보란듯이 지나쳐 학생과를 나왔어. 날 부르시는 선생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날 지배한건 자유라는 바람이었거든.

다음날 난 태백을 벗어나 서울로 왔어. 흔들리던 내가 결국은 뿌리마저 뽑혀 버리게 된거야.

정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내가 서울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니?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았어. 그러다 한달에 100만원이라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받게 됐어. 몸을 파는 유흥업소였단다.

그날부터 난 창녀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살게됐어. 남들 앞에서 원하지도 않는 웃음을 팔아야 했고, 몸은 망가져만 갔어.

자유! 해방! 반란!

이 모든 바람에 휩싸여 얻게 된건 도대체 뭐지?

창녀? 수치심? 잃어버린 순결?

다시 되돌아 갈수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렇게 바보처럼 바람에 내 몸을 맡기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야.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을꺼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만 돼.

정이야!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더이상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 낼 수 없을 것 같아. 나 그냥 죽어 버릴꺼야. 바람에 취한 죄를 죽음으로라도 용서 받아야지, 안 그래?

•
•
•
•
•
•
•
•
•
•
•

구름소

권 창 숙

장성여고 2학년 1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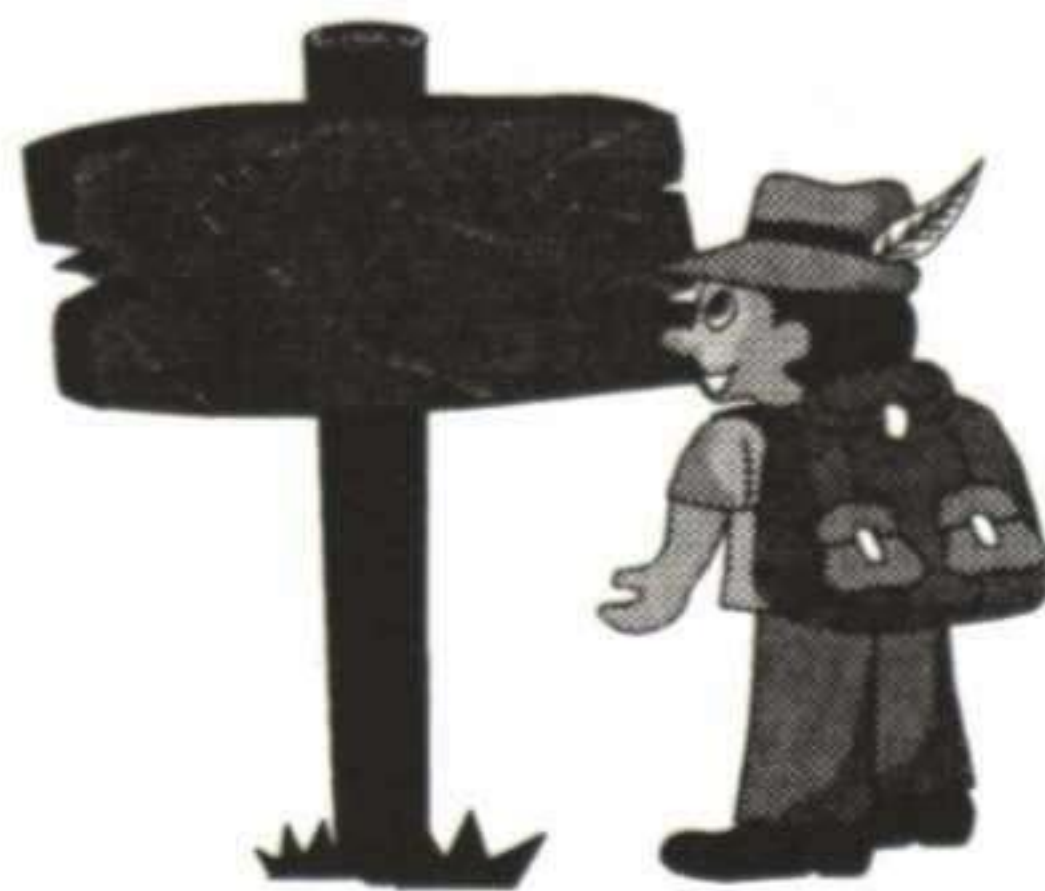
구문소, 구문소, 구문소,...

이 - 곳을 지나오면서도
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죽은 듯이 죽어 있는 굵은 물밖에는
호동왕자의 사랑이야기도
이 곳을 헤메이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도

그러나, 몇년이 흘러
그곳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문화재에서
유구한 역사에서
신비로움을 찾지만
난, 구문소의 가슴에서
신비로움을 찾습니다.



.....

태백시 남·여 백일장 고등부 (시부) 차상 작

바 람

장 곰 돌

황 지 고 등 학 교

님이 떠나가듯
살며시 불고 가는

아카시아 나무를
살며시
건드리는 바람.

자유롭게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이말저말을 하여
떠나가는 바람.



✎ 태백시 남·여 백일장 고등부 (시부) 차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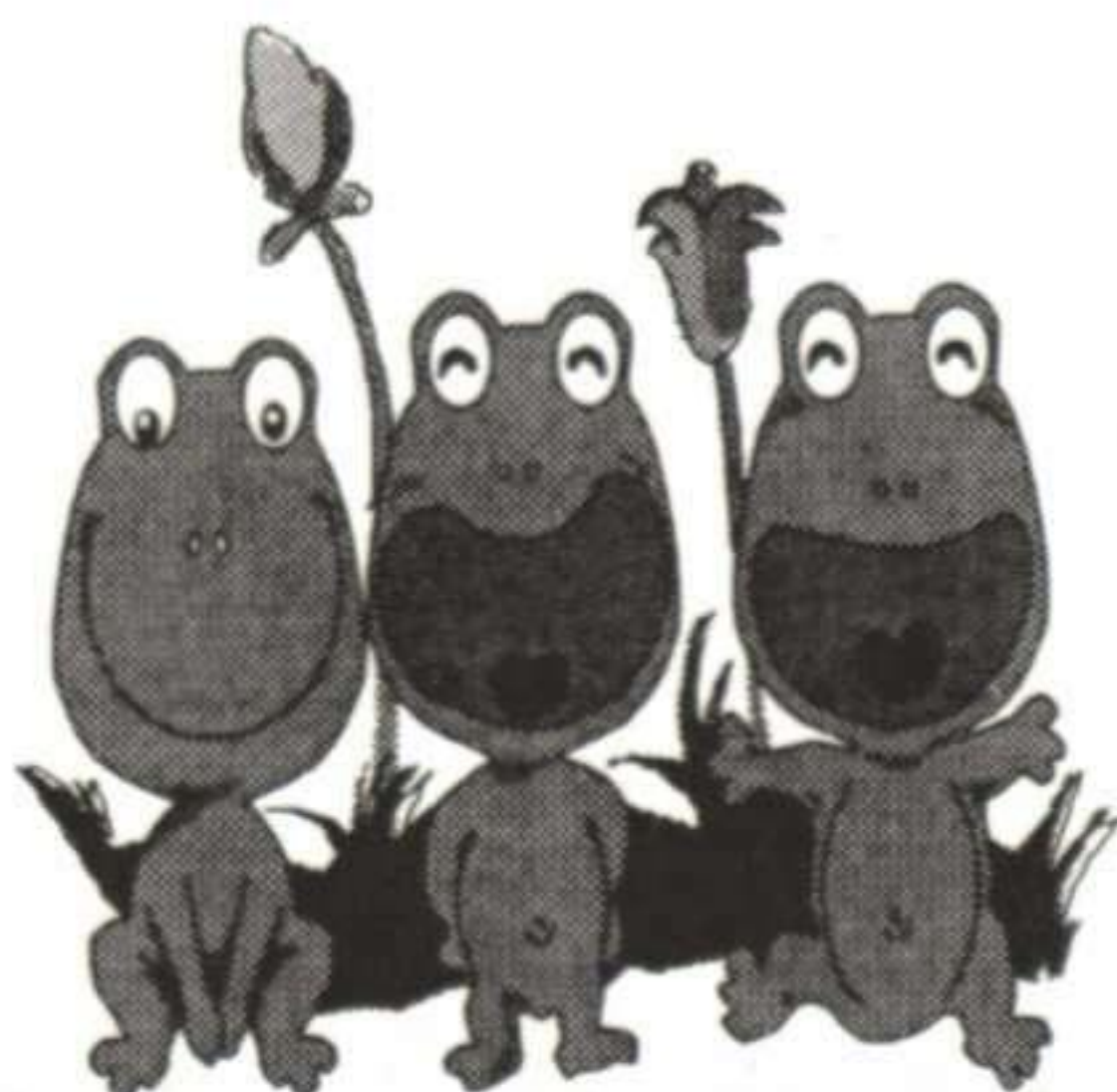
낙 동 강

변 지 현

장성여고 2학년 2반

작은 연못을 발원지로
태백의 내음을 한껏 머금고
굽이치는 가는 줄기

때론 비켜서서
때론 구석까지 적셔도 가며
자연의 줄기를 따라
흐르고만 있습니다.



• • • • •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구문의 몸받침을 청산아 슬퍼마라.
미친한 이내몸은 님위해 바치었다.
그님을 그리워하며 들꽃이나 되리라.

바람

녹수가 뿜어내는 초봄의 새로움이
갈길을 배회함을 나는야 보았어라.
외쳐라 찾아나보자 아름답던 선율을

낙동강

적색의 물결속에 열목어 잃어가니
조용한 청산만이 눈물만 흘리구나.
뱃놀이 같이가던 그 아이는 어디로

.....

구름속

정혜영

장성 여자고등학교

어제는 오상고절 내모습에 취했다.
자사에 내보일 죽음없는 세상향해
자개루 먼지까지 씻기어서 가는구나!

하지만 오늘은 네모습이 슬퍼운다.
밤새워 기다린 너는 아니오고
무성한 풀잎만이 너를 향해 맞는구나!



● 테백시 남·여 백일장 고등부 (시조부) 차하 작

낙 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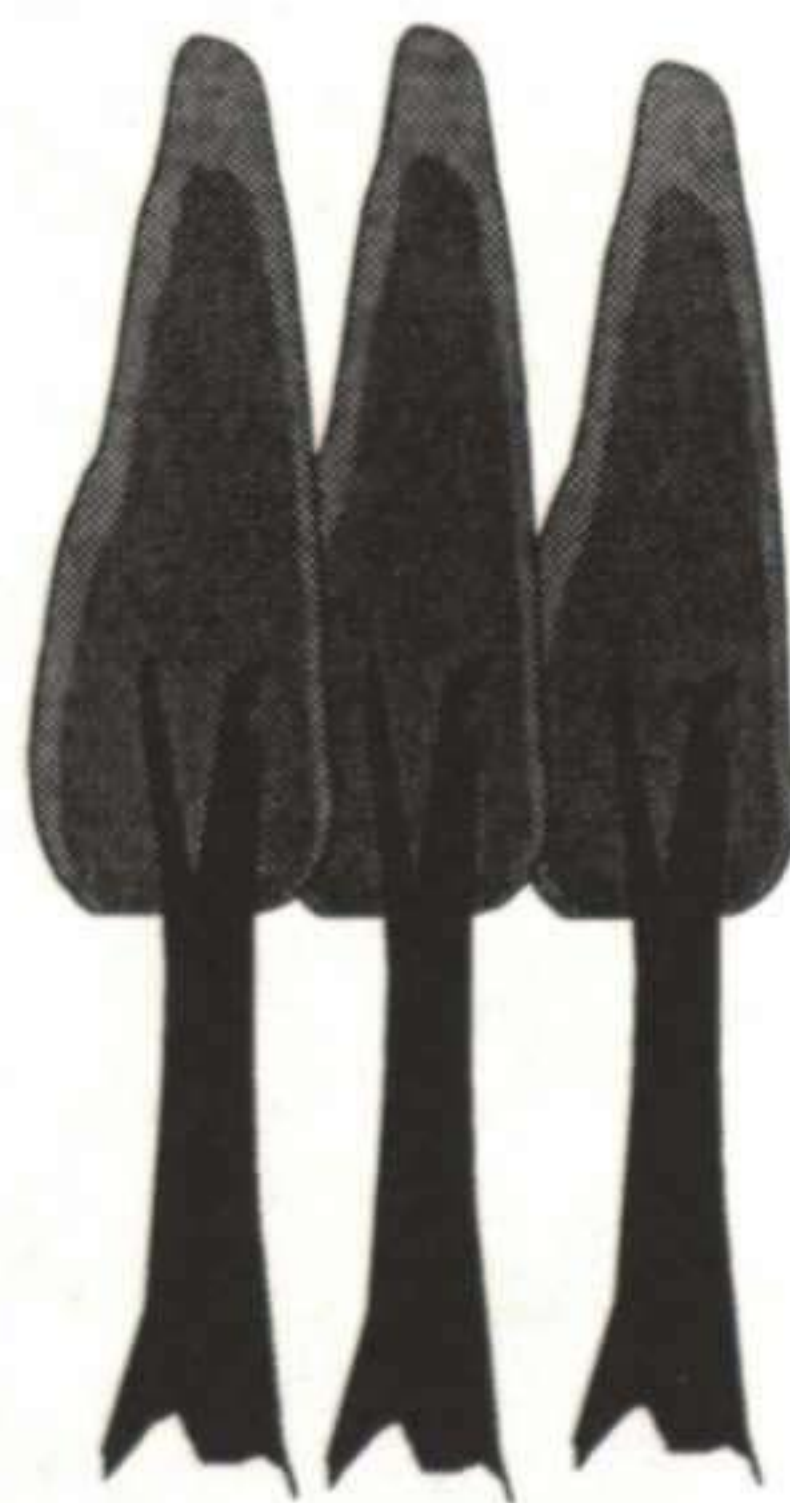
유 소 은

장성 여자고등학교 1학년

푸르른 산빛물을 가슴에 물들이며
임께서 주신 비녀 두 손에 꼬옥 쥐고,
내마음 물위에 떠서 임께로 가옵니다.

춘양소 깊은 물에 그만 닳을 잃어
두 손의 임의 마음 깊은 물로 떨어지니
물이 곧 내 마음이라 파랗게 멎들었소

떠나신 임의 마음 모르는 바 아니기에
이 물과 하나되어 임께로 가겠으니
임이여 용서하시고 노여움 푸시옵서



❁ 태백시 남·여 백일장 고등부 (시조) 장려 작

구 문 소

조 미 영

장성 여자고등학교

누런벼 가득찬 들판이 끝없고
열목어 노니는 강물이 푸르데
이마음 서러워라. 너무나 서러워라.

어머니 물속을 바라며 통곡하시네
아버지 물속을 바라며 눈물 흘리시네
서러운 눈물이라 강물되어 물결치네

가을추수 하여도 먹을 이 없고
낙시드리워 고기 잡아도 드릴 이 없네
세상이 서럽구나 나는 서럽구나.

성문속 세상이 아무리 좋다하여도
나는야 가련다. 늙으신 부모곁으로 가련다.
강물아 흘러서 이마음좀 전해주려무나.



한 여름날의 새로운 추억

김 연 화

황지 여자상업고등학교

우중충한 교실 벽, 잿빛 구름 가득한 채 아무런 말도 없이 무겁기만한 하늘 조각을 배경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연습장 위에 매일 보아오던 친구의 모습을 옮기기엔 너무 따분한 그런 날이다. 이런 날은 정말 어디라도 떠나고 싶다. 그리지도 못하는 서툰 손짓으로 되지도 않는 그림을 크로키라 칭하며 그려야 하는 서글픈 존재가 되어 버린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은 다름이 아닌 장호열 선생님이셨다. 교내 백일장에 입선하여 내일이면 구문소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내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야호! 신난다. 내일은 수업을 안 해도 된다는 유치한 기대감으로 내 마음은 들떠 있다.

하룻밤의 꿈은 어느 새 아침이라는 단어로 날 그 꿈 속에서 깨어나게 했고, 난 아쉬움 단꿈을 뒤로 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약간은 우중충한 날씨지만 오늘은 무언가 모르게 행복하 아침이다.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의 재잘거림을 함께 하며 구문소를 향하는 내 모습! 오늘만큼은 온 세상이 내것인 양 행복하기만 하다.

어느 새 구문소에 도착하는 우리들, 하지만 지금 구문소 이곳엔 아무도 존재하질 않는다. 휴게소 아주머님의 정감어린 말투와 몸짓, 건립된 지 얼마되지 않는 자개루의 평안한 모습, 산들산들 불

어와 내 살갓에 부딪치는 바람한 줄기, 그에 맞춰 굽이쳐 흐르는 깊은 물줄기들의 시원스런 외침들, 그리고 우리들을 반겨주는 말 없는 자연의 고요함 뿐! 우리가 일찍 온 탓이겠거니 생각하고, 10분, 20분을 기다렸어도 아무도 우리들의 말 없는 외침에 대답해주는 이가 없다. 우중충하던 날씨가 따가운 햇살과 함께 무더운 날시로 변했을 뿐... 시작할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질 않는다. 학교에 두번째 전화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드는 그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분들이 도착하셨다. 승용차에서 내리신 두 분 선생님, 장호열 선생님과 정기수 선생님이셨다.

문화원에 전화를 해 본 결과,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10시인 줄 알고 9시 20분부터 와서 기다린 우리는 어찌하라는 것인지...? 선생님들도, 우리도 모두가 짜증이 난다.

11시쯤 되었을까? 아홉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한대의 승용차에 타고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한다. 좁은 공간 속에서 많은 인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긴 시간을 이동하는 일, 그 일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기공에 계신 김윤희 선생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두신 분이시다. 승용차 한 대가 더 추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기공을 지나 우리는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탄 채 한가로운 드라이브와 평화로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의 친밀한 대화, 긴 세대간의 벽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립없이 자연스레 통하는 선생님들과 우리와의 어떤 유대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한없이 즐겁게 한다. 이렇게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들이 왜 이런 곳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안타까운 교육 현실을 체감하며, 찌들려왔던 생의 얽힘을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

드디어, 예정된 시간이 왔다. 버스에 몸을 싣고 구문소에 도착했을 때, 여러가지 교복들과 함께 백일장 참가생들이 보인다. 그때의 반가움이란. 그걸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구문소 동굴의 웅장한 자태와 함께 그 안에 새겨진 옛 성현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자연의 커다란 능력과 무언가 작은 여운을 갖게 한다. 자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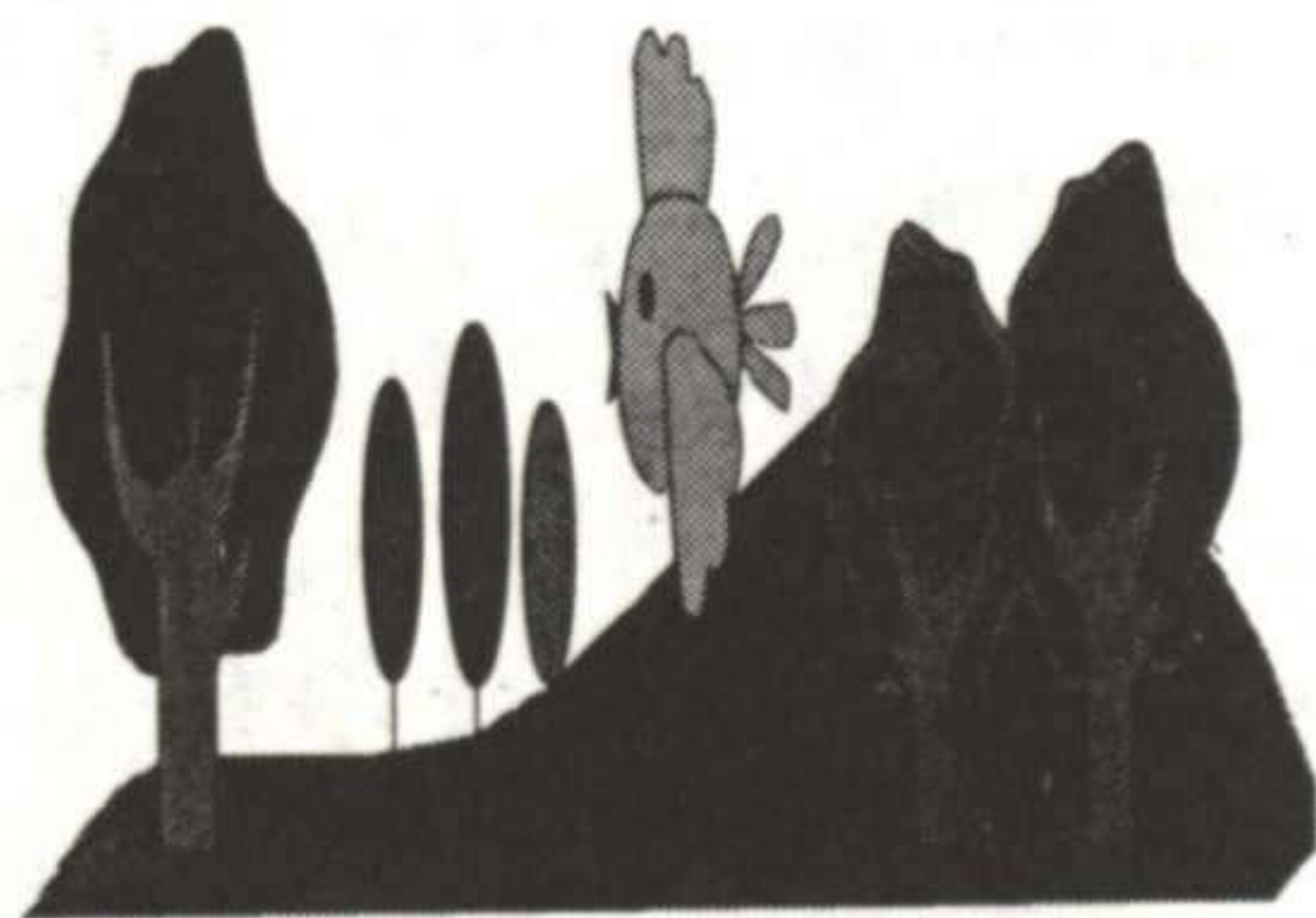
루에서 내려다 본 굽이 흐르는 물들, 산과 들은 끝도 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푸르른 잔디위에 어린 아이 마냥 배를 깔고 자연을 벗삼아 뒹구는 친구의 말없는 눈웃음이 왜 그리 아름답기만 한지…?

구문소라는 곳! 아직 난 잘 모른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 것 같다..

관동팔경에 속해도 좋을만한 훌륭한 자연을 환경을 지닌 곳이 우리가 사는 태백 하늘 아래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그것 하나를…,

이런 태백을 이제는 더 이상 소요되게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다. 말없이 그러나 헌신적으로 이 태백을 가지고 가꾸어 가련다. 이제 더 이상 태백은 버려진 검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난 이제 내가 사는 이곳, 이자리를 영원히 사랑하며 살리자 다짐하며 나의 서툰지만 진실된 이 손놀림을 이제는 여기서 그만둘까 한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울려질 그날이 오면 태백에도 건전한 문화와 함께 그세대 아이들을 위한 바른 교육의 장이 이 세상 속에 펼쳐지리라 믿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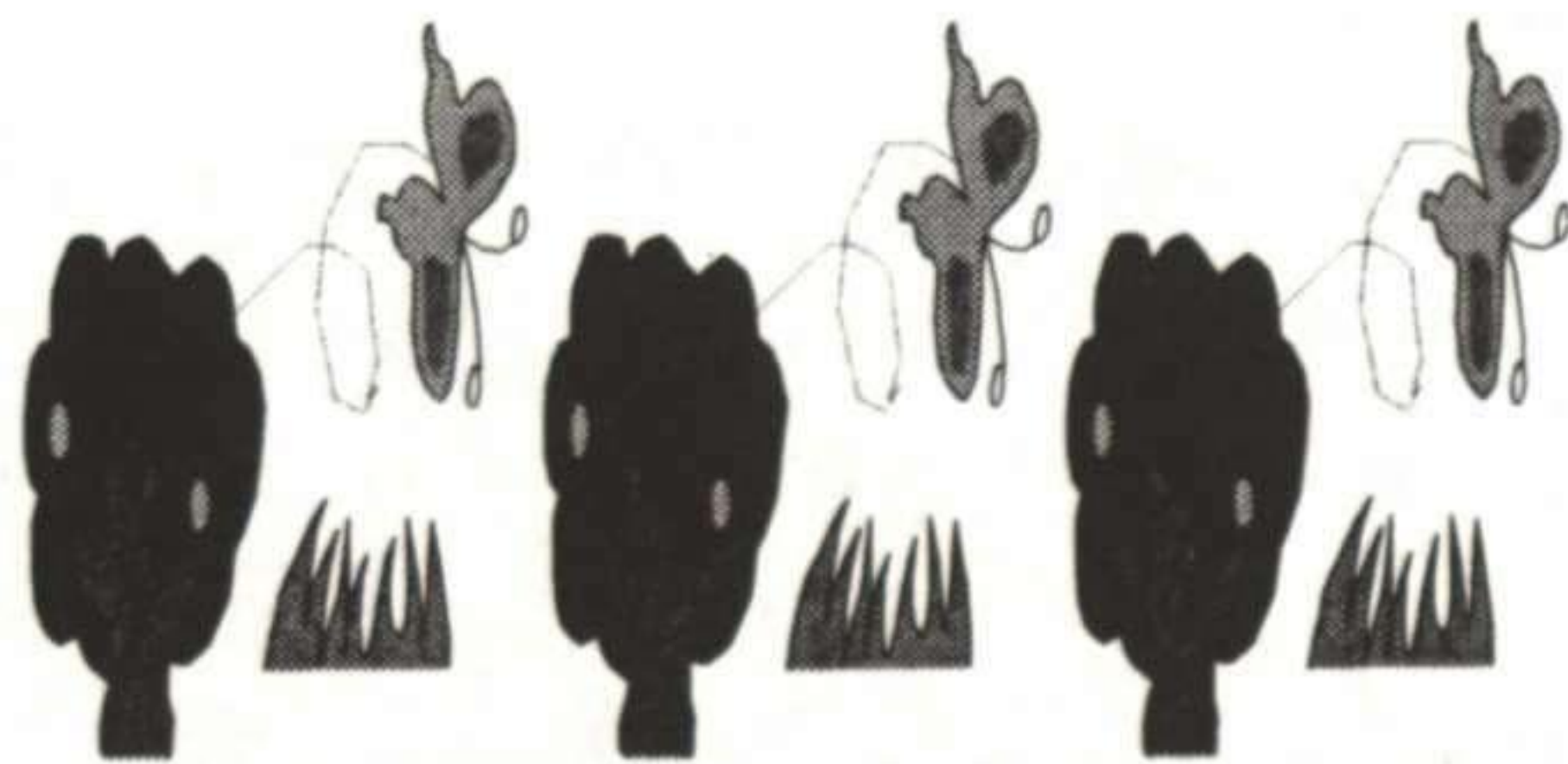
선생님들과의 결속력있는 유대감을 체험한 어느 여름날을 마감하며…,



문소를 지나는 황지천은 우리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 있고, 저 초원의 산인 연화산은 우리의 정신을 그 속에 쌓아 놓았고 그 정신을 다시 태백의 공기속에 풀어 놓는다. 우리는 그 공기를 들이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초월의 연화산과 우리의 숨결이 녹아 있는 황지천이 있는 이상, 태백에 이상이 없지는 않다.

이제 30분 남아있다. 오래 전에 태백을 살던 이들은 12시라는 시간을 기다려왔다. 초월의 힘을 가진 산을 보고 뜻을 품었고 그 뜻을 이룰 기회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래왔다. 12시가 되어 구문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산의 정기를 받은 태백이 초월의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동감한다. 몇십 년 크게는 몇 백 년간 산에 가려전 뜻을 펼 기회가 없었던 태백에서 새롭게 발돋움 할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서서히 열려 가는 구문소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물이 더러워지고 물고기가 살지 않는 다해서 태백 속에 있는 큰 뜻이 없어질리 없다.

연화산에서 받은 큰 뜻을 난 구문소에서 들이 마신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30분을 기다리며 이 곳에서 있겠다.



은 경험으로 현명하게 이겨낸다면 아마도 넌 힘겨운 경험으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게되겠지, 그렇게만 된다면 그 바람은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서늘한 바람이 되어 너의 값싼 땅을 식혀 주리라 생각해 넌 아주 현명한 나의 친구잖아. 아파만 하고 있을 그런 네가 아니라는거 알아. 난 그 차갑고 외로운 바람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리라 믿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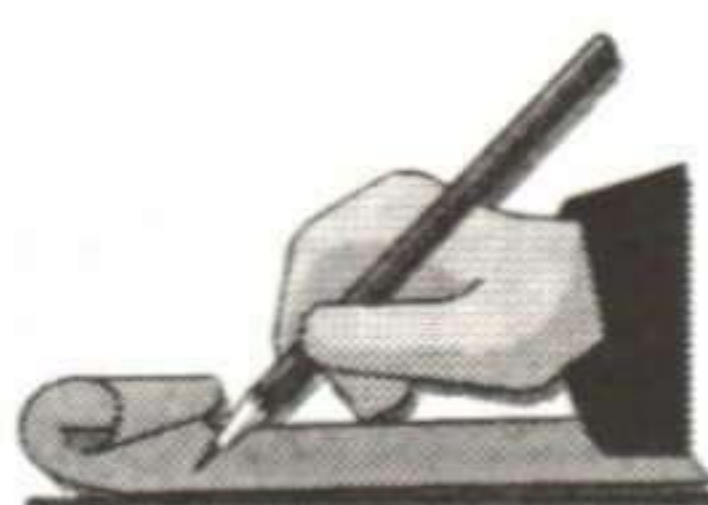
얼마후 그 친구의 답장에서 난 그가 서늘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친구의 환한 웃음에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나는 바람이 우리내 인생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일들이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따스하고 포근한 바람으로 바꿀줄 아는 작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내게 부는 바람?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채찍질하는 바람이리라.

내 두뺨을 스치며 지나가는 이 서늘한 바람에 난 다시금 용기를 얻는다.





태백문화원 연혁

1984. 1. 황윤덕씨등 19명이 태백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1984. 8. 17 문화공보부 법인 설립허가, 황윤덕씨 초대원장 취임
1984.10. 1 태백시 장성동 69-2번지에 태백문화원 개원
1985. 7. 18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이호진씨등 12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1985.12. 31 민속놀이 '태백갈풀설이'등 12개 사업완료
1986. 2. 27 제2차 정기총회 개최
1986. 7. 21 문공부로 부터 정관변경허가 - 부원장 제도 신설
1986.12. 31 청소년백일장 및 사생대회등 15개 사업완료
1987. 2. 24 제3차 정기총회 개최
1987.12. 31 창간호 '태백문화지'발간등 13개 사업완료
1988. 3. 24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988. 8. 16 임시총회 개최 - 신임 장인원원장 선출
1988.12. 31 웅변대회 및 사시랭이 발굴사업 등 10개 사업완료
1989. 3. 24 제5차 정기총회 개최
1989. 8. 29 문화원 원사 이전 - 구, 시청 별관
1989.12. 31 태백문화지 및 지게싸움놀이발굴 등 10개 사업완료
1990. 3. 6 제6차 정기총회 개최 - 정관개정
1990. 6. 13 문화부로 부터 90년도 시범문화원으로 선정
1990.10. 16 임시총회 개최 - 부원장 선출(김영훈 이사)
1990.12. 31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통기타콘서트등 14개 사업완료
1991. 2. 26 제7차 정기총회 개최
1991.12. 31 폐광기록 사진집 「막장 사람들」발간등 12개 사업완료
1992. 2. 27 제8차 정기총회 개최
1992.12. 31 전통향토음식솜씨 자랑대회 등 13개사업 완료
1993. 8. 17 제3대 원장으로 우성조씨 취임
1993.12. 31 효자비 건립 등 15개 사업 완료
1994. 4. 18 문화체육부로 부터 한국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설립인가
1994.12. 31 문화학교 운영등 16개사업 완료
1995. 2. 25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1995.12. 31 태백산 천제등 15개 사업완료

'95년도 태백문화원 사업현황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 소	주 요 내 용
향토교육사업	태백시 남녀 백일장 및 사생대회	95. 6. 9	동점동 구문소 광 장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부문 : 시, 시조, 산문, 서양화 한국화 시상 : 각부문 장원, 차상, 차하, 장려 수상자 : 42명 참가인원 : 150명
문화학교운영	도자기 교실	95년 4~6월 8~10월	태 백 문화원	대상 및 수강인원 : 일반인 35명 강사 : 조미영 수강일시 : 매주 월, 화 (오전 10:00~12:00) 수강내용 : 생활용품제작
	종이접기 교 실	95년 4~6월 8~10월	태 백 문화원	대상 및 수강인원 : 일반인 40명 강사 : 김정수 수강일시 : 매주 수, 토 (오전 10:00~12:00) 수강내용 : 종이접기, 기초이론 및 고난도실기지도, 강사 자격증 취득
	국악 교실	95년 4~6월 8~10월	태 백 문화원	대상 및 수강인원 : 일반인 35명 강사 : 이숙영 수강일시 : 매주 월, 목 (오전 13:00~15:00) 수강내용 : 장고지도, 민요지도,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 소	주 요 내 용
문 화 학 교 운 영	고 전 무 용 교 실	95년 4~6월 8~10월	태 백 문화원	대상 및 수강인원 : 일반인 35명 강사 : 이경옥 수강일시 : 매주 수, 목 (오전 13:00~15:00) 수강내용 : 민속춤, 고전무용 지도
	한 문 교 실	95년 4~6월 8~10월	태 백 문화원	대상 및 수강인원 : 일반인 50명 강사 : 김강산 수강일시 : 매주 화, 금 (오전 13:00~15:00) 수강내용 : 명심보감, 소학
	사 진 교 실	95년 4~6월 8~10월	태 백 문화원	대상 및 수강인원 : 일반인 30명 강사 : 이석필 수강일시 : 매주 화, 금 (오전 19:00~21:00) 수강내용 : 사진 기초이론 및 실기지도, 야외촬영지도
향 토 연 구 사 업	향토사 연구 논문집 발간	95. 1~ 95. 12	태 백 문화원	내용 : 태백의 얼 보완 발간 분량 : 300페이지 부수 : 1,000부
	향 토 음식 솜 씨 자 랑 대 회	95. 12, 13	태 백 문화원	대상 : 관내거주 부녀자 출전부문 : 원형부, 가미부, 개발부 시상 : 으뜸상, 버금상, 솜씨상, 인기상 참가단 : 20개단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 소	주 요 내 용
	태백문화지 제9집 발간	95. 12	태 백 문화원	분량 : 250페이지 부수 : 1,000부 내용 : 태백시 관내 유래
향 토 행 사 사 업	경 노 효 친 수 범 자 발 굴 표 창	95. 12. 21	태 백 문화원	대상 : 관내 중학교 재학생 선발 :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 아 경노효친 수범자를 발 굴표창함. 표창장과 장학 금지급 표창자 인원수 : 7명
	청 소 년 문 화 강 좌	95. 11	관 내 학 교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부문 : 태백의 향토사 및 예절교육
	전 국 굿 대 회	95. 10.3 ~10.5	종 합 운동장	대상 : 전국 무속인들 시상 :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단 : 12단체 굿선택 : 12거리굿(시준굿, 서낭 굿등)중 한가지 선택

태백문화원임원및 운영위원 명단

임 원

직 위	이 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자 택	직 장	
고문이사	황 윤 덕	장성동 1-5	81-6648		
고문이사	장 인 원	황지 3-2-1 자혜의원		52-2795	
원 장	우 성 조	문곡동 27번지	81-2714	53-3161	
부 원 장	박 광 옥	황지1동 태백농협	52-1125	53-3830	
이 사	이 용 익	화광동 1-1 장성한의원		81-6424	
〃	하 일 호	황지 1-11-2 경희한의원		52-2525	
〃	전 영 호	계산동 198-2 한일기업	52-8522	81-3314	
〃	황 광 현	황지 1-2-1 강원이동통신		52-5015	
〃	정 원 교	금천 8-2		81-7740	
〃	천 명 란	황지1동 태백축협		53-4000	
〃	도 한 봉	상장동 황지고등학교		53-6631	
〃	황 영 흠	황지1동 황지주류합동		52-1221	
〃	김 해 운	황지 1-11-2 문성사	52-2217	52-2318	

사무국

사무국장	김 강 산	황지1동 6통 2반	52-9175	53-3161	
간 사	김 영 란	철암2동 9통 3반	82-9111	53-3161	

운영위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김운대	태백시 황지동 172-2	52-5300	
남주수	태백시 철암2동 2/1	82-8236	
최호진	태백시 황지1동 41-21	52-1248	
유호명	태백시 황지1동 대림㉠ 205	52-2163	
장영창	태백시 황지1동 11/4	52-3641	
정연준	태백시 장성동 4/1	81-6544	
하진호	태백시 철암동 366-26	81-1255	
홍성일	태백시 상장동 15/1	52-2162	
김금시	태백시 화평동 협심연립 304	81-2508	
손창은	태백시 화광동 4/1	81-6262	
홍성덕	태백시 황지1동 62-3	52-2573	
정정화	태백시 소도동 116번지 6/6		
손봉식	태백시 장성동 3/1		
고영규	삼척시 도계읍 전두 1리 8반	41-2266	
이경성	태백시 황지1동	53-6688	
김정모	태백시 화광동 4통 3반		

후원위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강국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A 1331-103	(02)645-4700	재경태백총동문회장
고봉영	경기도 부천시 남구 괴안동 96-4	(031)341-1814	켈코연마(주)사장
고영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동현A 3-406	(02)275-3610	동부건설(주)상무이사
김시영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419-2	(02)212-7818	진일인쇄대표
김재림	서울시 양천구 신월 7동 시영A 20-902	(02)719-2997	황일토건(주)사장
서강석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66-246	(02)821-8742	경안전자(주)사장
신동춘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3-102	(02)298-3204	현대칼라(주)부사장
이근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대림A 7-1208	(02)868-4455	(주)남방 영업이사
장무부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주공A 104-503	(02)417-5275	재향군인회 운영과장
홍성필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삼천리빌라 4-101	(02)679-1460	당산동 분식센터 대표
전춘권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155-36	(02)603-0526	진우전기 사장
홍영치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사서함 36호	(0562)220-0465	포항제철전문교육부장
우용택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사서함 36호	(0331)220-0396	품질관리부검사과장
김창남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0-2	(0331)213-0188	유성전자(주)사장
송준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성A 3-102	(02)499-6346	삼표레미콘(주)사장
이단화	서울 송파구 송파동 94-11	(02)415-7551	연화유치원 원장
최옥화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0-306	(02)737-2708	시릿트대표
이춘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A 319-402	(02)549-2577	국민학교 교감

향토시 연구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이동헌	태백시 황지동 9-3	52-3637	
이석필	태백시 상장동 1주공 6-206	52-1487	
이상출	태백시 계산동 1-6	81-6901	
이재원	태백시 상장동 1주공㉠ 5-302	52-7020	
김인수	태백시 황지1동 중앙로 한성통신	52-8229	
오광희	태백시 상장동 7-1	52-4440	
조미영	태백시 황지1동 대운㉠ 2-506	52-7576	
이상본	태백시 황지1동 11-2 한성지업사	52-2225	
이문근	태백시 상장동 15-2 2주공 208-105	53-7709	
조영호	태백시 장성동 403	81-2879	
정의준	태백시 철암1동 5-7	82-9114	
장화윤	태백시 황지1동 10-1	52-6651	
이성우	태백시 황지1동 우석㉠ 105-301	53-0622	
이명진	태백시 황지1동 상수도사업소	52-1360	
오영애	태백시 화전1동 9-3	52-3760	
정운자	태백시 상장동 1-1	52-3980	
용현주	태백시 장성동 4-5 그린화실	81-2251	
석수덕	태백시 황지2동 10-1	53-1666	
정원범	태백시 황지1동 4-1	52-3248	
김부래	태백시 황지1동 5-6	52-3267	
김준연	태백시 황지3동 2-1	52-2048	

명심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홍순남	태백시 황지 1동 4-4	52-2942	회장
김순달	태백시 황지 3동 1-1	52-2522	
최필희	태백시 황지 3동 2-1	52-2048	
조한희	태백시 계산동 아파트 201-406	81-3515	총무
김양현	태백시 장성동 2-3	81-4346	
안분열	태백시 장성동 7-2	81-4774	
김금자	태백시 상장동 9-2	52-3466	
최선화	태백시 화전 2동 1-1	53-8050	
김숙자	태백시 황지 2동 6-4	52-6828	
허정애	태백시 황지 1동 4차대림 1001	52-4806	
안정순	태백시 황지 2동 6-4	53-1020	
김점순	태백시 황지 1동 10-2	52-4063	
어순옥	태백시 황지 2동 6-4	52-2481	
안정옥	태백시 황지 1동 6-2	53-6598	
윤용숙	태백시 황지 1동 대운A 2-101	53-1379	
권원규	태백시 황지 2동 5-5	52-7250	
허옥자	태백시 황지 2동 7-5	52-4282	
엄순자	태백시 화광동 8-7	81-4480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정양례	태백시 화광동 협심㉠ 10동 408호	81-8168	
한미연	태백시 황지3동 장원㉠ B동 301호	53-6544	
서윤옥	태백시 황지1동 59-15	52-8026	
김수자	태백시 황지1동 대림4차㉠ 803호	53-5892	
전영미	태백시 황지1동 10-4	52-2360	
정순연	태백시 상장동 10-2	53-6078	
오순옥	태백시 상장동 18-3	52-1320	
이재숙	태백시 황지1동 16-9	52-7412	
박정희	태백시 상장동 18-3	52-5506	
전영숙	태백시 상장동 18-8	53-4963	
윤수희	태백시 황지1동 11-2	52-2521	
이규복	태백시 황지1동 10-1	52-2772	
손재학	태백시 황지2동 5-1	52-4889	
김경자	태백시 장성도 9-2	81-3951	
이화월	태백시 문곡동 2통1반 광원㉠ 201-402	81-7309	
구경희	태백시 철암1동 상철암㉠ 13-108	82-1983	
이숙영	태백시 장성동 3-3	81-3226	
박종숙	태백시 상장동 2주공 206-504	52-9111	
김재교	태백시 동점동 2-1	82-4410	

태백문화학교 동문회원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이숙영	태백시 장성동 3-3	81-3226	
김순달	태백시 황지3동 1-1	52-2522	
홍순남	태백시 황지1동 4-4	52-2942	
이규복	태백시 황지1동 10-1	52-2772	
송순일	태백시 황지2동 265-46 1통1반	52-3412	
엄순자	태백시 화광동 8-7	81-4480	
김종순	태백시 화광동 4통 1반	81-4480	
장용숙	태백시 화광동 12통 4반	81-6213	
정순노미	태백시 장성동 139 9통3반	81-6346	
김옥희	태백시 황지1동 6통 2반	81-8921	
김미경	태백시 협심연립 나동 105호	52-4251	
정양례	태백시 협심A 10동 408호	81-8951	
김태선	태백시 협심연립 가동 204호	81-8168	
김정숙	태백시 협심연립 가동 103호	81-3698	
김경자	태백시 협심A 5동 207호	81-7588	
배금순	태백시 상장동 174 7통 4반	81-395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김옥희	태백시 장성동 2통 1반	81-7587	
전영숙	태백시 동점동 1통 5반	81-6207	
이계옥	태백시 문곡동 시영㉠ 104-201	81-4503	
최옥임	태백시 황지1동 4통 2반	52-9761	
윤순늬		52-4258	
명옥분	태백시 황지1동 3통 1반 33-93	52-3403	
정순연	태백시 상장동 10통 2반	53-6078	
이혜식	태백시 상장동 90-9 영흥빌라 404호	52-0630	
윤준심	태백시 황지동 우남연립 107호	52-5014	
윤수희	태백시 황지1동 11-2	52-2521	
손재학	태백시 황지2동 5-1	52-4889	
서윤옥	태백시 황지1동 59-15	52-8026	
민금련	태백시 황지1동 4통 4반	52-3842	
방경아	태백시 황지2동 5통 2반	52-6951	
박종숙	태백시 상장동 2주공 206-504	52-9111	
김재교	태백시 동점동 2통 1반	82-4410	
김갑순	태백시 화전1동 4통 2반	52-4606	

太白文化 (제9집)

발행일: 단군기원 4329년 3월 10일

발행인: 우 성 조

발행처: 태 백 문 화 원

인쇄처: 대 성 문 화 출 판 사

전화 651-2121 · 4354

등록 1993년 8월 20일 제3호

■ 본지는 국비와 지방비 일부보조로 발간함.

